

나주(금성)오씨대종보

羅州(錦城)吳氏大宗報

2017 | 제 18 호



나주오씨대종회
www.najuoh.or.kr

상처 많은 꽃잎이 향그럽다

세상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주고 또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게 삶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낫지만 마음에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 준 이를 용서 못하고 미워하면, 그만큼 자신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싹틔니다.

이 증오의 싹이 자라 자신을 파괴시키고 타인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꽃에 물을 주듯이 상처에 미움의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많은 꽃잎이 향기롭고, 상처 입은 나무들이 더 단단해지듯

사람도 상처 입은 후에야 더 강인해집니다.

상처는 아픈 것이지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입니다.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이며,

그 과정을 통해 상처가 아름다운 꽃 빛깔을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도 잘만 다스리면 향기로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상처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며,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표지 사진—광산사(廣山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에 있는 사당으로, 조선 전기의 문신 오겸(吳謙) (1496~1582)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오겸은 1532년(중종 27)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에서 일하였으며 1671년(선조 4)에는 우의정을 지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1825년 오겸의 후손들이 건립하였으며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가 다시 중수하였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단층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기단을 별도로 두지 않고 낮은 외별대 위에 아들은 주춧돌을 놓고 원기둥을 세웠으며 주두는 익공식이다. 현판은 없으나 전면에 '광산사영각상량문(廣山祠影閣上樑文)'이 걸려 있고, 건물 정면 벽체에는 6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굴도리를 올린 5량집으로서 사당 안에는 오겸의 영정을 봉안해 놓았고, 벽에는 4군자가 그려져 있다. 사우 오른쪽에는 강당으로 쓰인 금하재(錦霞齋)가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의 평기와 팔각지붕으로 되어 있다. 대문은 솟을대문 형식이며, 해마다 음력 9월 9일 제향 인물의 유덕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

나주(금성)오씨대중보 제18호(2017)

발행일 : 2017년 3월 26일 | 발행인 : 오근성 | 편집인 : 오정균
편집위원 : (서울) 오종만 · 오근성 · 오양근 · 오형근 · 오종문
(호남) 오무송 · 오기주 · 오현교

발행처 : 나주오씨대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608호(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홈페이지 : <http://www.najuoh.or.kr>

전화 : 02-2275-5574 / 팩스 : 02-563-5574

[호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1-8 나주오씨칠송궁파영호공중증회관 3층

전화 · 팩스 : 062-375-5575

디자인 · 제작 : 도서출판 이미지북 (010-3214-7068)

• 본지에 기고한 글은 '나주오씨대중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Contents

송조사상을 받드는 나주오씨 이야기

- 02 인사말/ 오근성 회장
- 06 축 사/ 이개호 국회의원
- 08 환영사/ 오인국 송계공파 문중 회장

● 대중회 소식

- 09 2016년도 정기총회 개최
- 13 2017년도 중무회의 개최
- 17 2017년 「대종대상(大宗大賞)」 '효자상' 표창·'장학금' 수여
- 26 서울경기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 임원회의 및 중무회의
- 105 오수·오성산악회 산행일지 및 산행의 이모저모

● 기획 특집

- 18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조치사항/ 편집부

● 가문을 빛낸 선대 인물

- 35 정부인 신씨 묘지명(貞夫人申氏墓誌銘)/ 편집부

● 기 고

- 38 대중회에 적극 참여합니다/ 오기선 부회장
- 39 직필과 곡필 사이/ 오종문 홍보부장
- 43 나주오씨 무안(務安) 몽탄(夢灘) 풍수지리 사상/ 오찬균 금초가문 대표

● 나주오씨 족보 발간 주요 내용

- 46 정묘보, 경오보, 임진보, 신사보, 신유대등보/ 편집부

● 시

- 52 봄날의 족보/ 오종문

● 나주오씨 문중 소식

- 53 부사공(諱愼交) 13대손 오재영(吳在英) 건국포장 추서 외

● 나주오씨 애경사 소식

- 57 나주오씨 애경사

● 족보 상식/ 58

● 나주오씨 항렬자 정규 및 선조의 시제일, 전자족보 등록 안내 외

- 61 나주오씨 항렬자 정규
- 64 나주오씨 선조의 시제일
- 65 나주오씨 홈페이지 전자족보 등록 안내
- 68 나주오씨대중회 조직기구조표

● 회칙 및 운영 규칙, 나주오씨대중회 기구조표

- 85 나주오씨대중회 회칙, 나주오씨 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외

● 대중회 임원 명부 및 오수·오성산악회 임원 명단, 대중회 역대 회장단 명단

- 90 대중회 임원 명부 외

● 대중회 공지사항

- 62 나주(금성)오씨 대중보 제19호 원고모집 안내
- 63 본관을 나주로 통일합니다
- 105 연회비·협찬금 납부 안내

□ 2017년도 정기총회 자료/ 67

- 70 2016년도 회기 감사보고/ 2016년도 사업추진 내용
- 72 2016년도 회기 결산(총괄)/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국고보조금 수지 보고
- 75 2017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17년도 회기 예산안(총괄)
- 80 회칙 개정안/ 2016 오자치 초상 진행사항, 보존방법 결정/ 대중회 활성화 방안

대중회의 발전과 보람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중회가 발족한 지 올해로 18년째가 됩니다. 1999년 12월 5일, 나주오씨대중회가 창립된 후 명실상부 전국적인 종친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동안 대중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성과에 힘입어 대중회의 아홉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을 되돌아보면서 잘한 일은 더욱 장려해 발전시켜 나가고, 부진한 사업이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집성촌 순회 총회 개최로 만남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천 여 개의 성씨 본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중회처럼 매년 계파 문중이 유사를 맡고, 그 문중과 연고 있는 집성촌을 순회 하면서 총회를 개최하는 성씨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종친 간 교류를 통해 정을 두텁게 하고, 개최 문중의 내력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모임 준비를 통해 개최 문중 지손들이 단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미덕은 한국의 여러 종친 모임 중 모범 사례로 꼽힐 것이니, 우리 오문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 장 오근성

둘째, 나주오씨대중보의 지속적인 발행입니다.

대중회 소식지인 나주오씨대중보(120여 쪽)를 매년 1200여 부를 발간해 종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중의 크고 작은 소식은 물론 선대를 빛낸 인물의 행적과 유적을 소개하고 집성촌을 알리는 등 대중보에 실린 내용들은 우리 오문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중보 18호도 총회에 참석한 400여 명의 종친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참석하지 못한 종친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은 물론 타 종친회에도 배부해 나주오씨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류하고자 합니다.

셋째, 호적 본관 정정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터전인 나주羅州의 옛 지명이 한때 금성錦城으로 된 적이 있어 본관을 '나주' 또는 '금성'으로 사용한 종친이 있습니다. 이처럼 혼용되어 사용되는 본관을 대동보(족보) 명칭대로 '나주오씨'로 통일하기로 결의해 호적 정정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 동안 본관이 '금성'으로 되어 있던 종친들이 '나주'로 정정하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관이 '나주'와 '금성'으로 혼용 사용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넷째, 회원 명부 작성·배포를 통한 대종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05년 세대주 위주로 2,176명의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회원 간의 연락 유지와 효율적인 회원 관리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종친의 주소를 파악 등재하고 변경 내용 등도 수시로 정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종친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종친들이 뿌리 찾기를 통해 우리 오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고 대종회 소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나주오씨 족보 영인본을 제작해 배본했습니다.

1810년에 간행된 경오보를 비롯해 임진보(1892), 신사보(1941), 신유보(1981)를 필요로 하는 종원들이 많아 위 족보의 영인본을 발간하여 희망자에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족보 영인본을 필요로 하는 종원들이 많을 때에는 다시 발간할 계획입니다.(* 1747년 정묘년에 간행된 1회 족보는 참의공 문중에서 재발간한 재고가 있어 영인본 발간 생략)

여섯째, 가문을 빛낸 선대 인물의 대외 홍보 사업입니다.

나주시가 주최한 팔도성씨박람회에 우리 오문을 빛낸 자랑스러운 20분 선조님의 행적을 실어 가문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 중 몇 분의 명휘만을 열거해 보면, 출사해 나라에 공을 세운 선조님으로는 퇴암공 오세상吳世相, 나성군 오자치吳自治, 금양군 오겸吳謙, 장악원정공 오득린吳得胤은

물론 한말의 대유학자인 난와공 오계수吳繼洙, 후석공 오준선吳駿善, 의병장 오성술吳成述·오상열吳相烈, 현대에 와서는 오필선吳弼善 대법관과 오중렬吳重烈 8대 국회의원 등의 행적이 실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현조님들이 계시지만, 주최 측의 인원 수 제한으로 다 신지 못해 후손의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본받을 선조님들이 많아 자부심도 갖습니다.

일곱째, 나성군 유적 정비 및 영정 보존사업입니다.

나성군 휘 오자치吳自治 선조님의 묘소와 유적이 있는 원당 선영 아래의 제실인 시기재를 수차에 걸쳐 보수·완료하였고, 오용근吳用根 종친의 헌성에 힘입어 쓰러져가는 사당을 중건하고 신도비를 이설·정돈하였으며, 종친들의 성금과 봉사로 원당 선영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보물 제1190호인 ‘오자치 초상’(나성군 영정)을 문화재청 소속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탁해 모사도(동강 권오창 화백) 1점을 기증받았으며, 오자치 초상의 보존처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5,3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보존처리 중에 있으며, 보존처리 후 종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덟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족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중회는 시대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젊은이들과 많은 종친들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 대중회 홈페이지(www.najuoh.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넷(Oh-Net) 회원으로 가입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주오씨에 관한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족보 편찬사와 서문, 사적, 문헌, 주요 인물들의 행적, 집성촌 동향과 제향일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 성씨에서는 하지 못한 나주오씨대동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발간된 대중보도 모두 탑재하여 대중회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오수·오성산악회의 운영입니다.

대중회 산하에 산악회를 두어 매월 1회의 정기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수산악회, 호남의 오성산악회는 매월 만남을 통해 친목 도모는 물론 심신과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년 중 한 번은 오수와 오성의 합동 산악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유명 명소 답사를 통해 예와 역사를 배우고, 종친 간 안부는 물론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종회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종친에게 매년 총회 때 효행상을 표창하고 있으며,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년회에서는 어버이날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경로행사를 수차례 가져 어른들을 예로서 공경하는 모범을 실천에 옮겨 자손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조님들의 시제나 정향제 때는 서울 등 각지에 있는 종친들이 단체로 고향을 찾아 참배하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자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종원들이 참배의 기회를 통해 선조님들의 행적을 통해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나주오씨대종회가 전국적인 모임으로 존립하고 발전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상면할 수 없는 종친을 만나 정을 나누고 우의를 다질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대종회 발전의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울산·양산에 터를 내리고 사신 송은당공 후손들이 해년마다 대종회의 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때때로 제수까지 준비해 조상의 선영을 참배하는 것은 숭조정신崇祖精神의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종원 여러분!

대종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발전하거나 존속할 수 없습니다. 종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할 때 그 뜻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대종회는 앞으로도 나주오문의 발전을 위해 후손들에게 뿌리 정신을 일깨우고 가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종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대종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6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이개호

반갑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개호입니다.

나주오씨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와 더불어 발행되는 <나주오씨대종보羅州吳氏大宗報> 제18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근성 회장님을 비롯한 종원 여러분과 편집위원님들께도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오씨는 4대 봉군封君(4세 금성군錦城君 휘 신중愼中, 5세 나성군羅城君 휘 자치自治, 6세 나원군羅原君 휘 세훈世勳, 7세 금양군錦陽君 휘 겸謙)을 받은 명문 성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가문 출신의 딸을 내자內子로 맞았습니다.

나원군의 세 아들인 금양군, 칠송공七松公, 서윤공庶尹公은 형제의 우애가 매우 두터웠으며, 막내아들 서윤공 휘 원諤은 참판공과參判公派의 집성촌(풍숙마을) 입향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 서윤공의 큰아들로 참판공과 파조派祖이신 8세 휘 언린彦麟의 14대손인 오인교(2009년 작고, 전 동신고등학교 교장) 씨의 셋째사위가 됩니다.

또한 제 지역구 담양에는 명곡공明谷公(휘 희도希道)가 살던 유명한 원림명옥헌鳴玉軒이 있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을 뿐 아니라 함평에는 석문공石門公(휘 이익以翼)이 함평현감 재직시 선정을 베풀어 함평 유림들에 의해 선정비가 세워져 현재 함평공원에 보존되어 위정자爲政者の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는 내금위공과內禁衛公派 후손들이 자자일촌을 이루면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영광에도 나주오씨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나 지역구로도 나주오씨와 많은 연이 닿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엄청난 경제 발전의 탑을 쌓으며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축으로 성장했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탑을 바라보고 있자면 웬지 불안합니다. 경제적 받침돌과 함께 균형을 잡아줄 정신적 받침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종친 간에 화목을 도모하는 ‘송조목종崇祖睦宗’이 절실하게 필요한 까닭입니다.

나주오씨대종회에서는 이 송조목종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종원 간 소식을 전하고, 나주오문羅州吳門 선조의 위업과 문화·인물을 소개하며, 종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대종보를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발간하면서 ‘뿌리를 찾아 후세에 전하는 노력과 기록’들이 널리 전파되고 읽히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 정신적 궤돌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용비어천가』를 통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천 년 역사와 깊은 전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이 그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서는 깊은 뿌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주오문에서 이러한 역할에 힘써 주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전통 속의 정신문화를 되살리는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주오씨대종회 총회와 대종보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나주오씨 가문의 더 큰 번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
‘뿌리를 찾아 후세
에 전하는 노력과
기록’들이 널리 전
파되고 읽히는 것이
야말로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 정신적
궤돌 역할...”

”

송조 봉사 성실 친목은 송계공 문중의 덕목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닭은 풍요와 다산多産을 상징하고, 덕을 갖춘 새(吉鳥)로 표현되어 왔으며, 총명하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울음소리로 아침을 알리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도래할 빛의 희망을 알리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새 아침을 울리는 닭 울음소리처럼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울을 비롯하여 영남 등 각지에서 나주오씨대종회 정기총회에 참여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송계공 문중을 대신해 감사 말씀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송계공 문중은 파조이신 휘諱 언인彦仁 선조님 자손들로서 송산동 내동(너부메), 삼계면 이암(귀바우)마을에 일촌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태世態의 변화로 지금은 경향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어 아쉬움이 크지만, 우리 혈손血孫들이 번창하는 모습으로 보여 긍지와 자부심도 큼니다.

나주오씨대종회 종훈宗訓인 송조·친목·성실·봉사는 우리 송계공 문중의 지향점指向點과 동일한 덕목입니다. 오늘날 송조崇祖 정신하면 옛사람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겼던 윤리쯤으로 폄하하는 사회 현상을 접할 때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일은 인간 윤리의 기본이며 천리天理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윤리의식이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무지의 세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글에 “꾸불꾸불 자라는 쭉도 삼밭에 나면 곧게 자란다(蓬生麻中不扶自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을 받들고 선영을 모시는 우리 후손들은 건실하며 예의바르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건실한 후손으로 자랄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송계공 문중 주최로 대종회 총회를 개최한 이후 송계공 문중원들에게는 더욱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종회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설처럼, 종친간 만나는 기회가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종친 간의 화합과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친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6일



오인국
송계공과 중중 회장



2016년 정기총회 개최(2016. 3. 27.)

2016년도 나주오씨대종회 정기총회가 3월 27일 (일) 1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대강당(해오름관)에서 장탄공 문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서울·경기, 광주, 전·남북,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하여 송조사상 함양과 단합 그리고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 오기주 총무부회장은 “오늘 총회는 나주 오씨의 대동단결과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종친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한 뒤,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13조(의사 및 의사 정족수) ①항 ‘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성회한다’는 성원 보고에 이어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서 국민의례와 먼저 가신 조상님들을 추모하고 영면을 기리는 선조님에 대한 묵념, 그리고

임원 소개와 함께 고문, 소문중 내외빈 소개가 이어졌다. (무순) 송은당공 중중 오인선, 금양군 문중 오동근, 칠송공 문중 오필열, 참판공 문중 오영교, 도암공 문중 오홍구, 장탄 문중 종손 오종채, 석문공 문중 오은열, 송계공 문중 오금열, 지봉공 문중 오재혁, 사정공 문중 오종식, 내금위공 문중 오맹근, 정언공 중중 오영택, 상호군공 문중 오형근, 명곡공 문중 오현중 등의 내외빈 인사가 끝나고 종친간의 상호 인사로 이어졌으며, 곧바로 효부상 및 효자상 표창과 장학금 수여 전달식이 이어졌다.

효부상 표창자인 박영금 씨는 장탄문중 오광근의 부인으로,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님과 장애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는 등 효부이며



열부라는 칭송이 자자해 이를 본받고자 종친들의 뜻을 모아 효부상을 표창했다. 효자상 표창자 오영석은 장탄문중 오태열의 아들로, 오랜 투병생활 중인 어머니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지극한 효성으로 보살피며 참 효를 실천한 효자로서 귀감이 되어 종친들이 뜻을 모아 효자상을 표창했다.

장학금 수혜자 오상영 군은 장탄문중 24세손으로 승조정신이 투철하고 애족심이 강하여 중문을 빛낼 인재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장탄문중 23세손 오경재 군은 오만석의 아들로 2016년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가문을 빛낼 동량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인수 회장은 “정기총회는 많은 종원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면서도 새 회장단

이 출범하는 기대와 희망이 봄꽃처럼 피어나는 자리”라면서 총회를 개최한 장탄문중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회장직을 수행해 온 4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임기 동안 대총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으며, 혹여 대·내외적으로 대총회에 누나 끼치지 않았는지 적이 걱정이 된다”면서 “성과없이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대총회 일을 함께 처리해 온 “오교철 종무원장님, 오양근 서울경기본부장님, 오은열 호남본부장님, 오의곤 영남본부장님을 비롯해 고문님, 부회장님 및 모든 종친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새로 취임하는 오근성 회장님은 오랫동안 대총회를 위해 헌신해오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종사의 일에 해박한 분으로 모든 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고, 오정균 종무원장님은 공직에 종사하신 분으로 대총회 대소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총회의 모든 일을 슬기롭게 처리하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대총회의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떼는 새 회장단에 우리 모두 힘찬 박수를 보내자”고 했다.

장탄문중 오광교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매년 대총회 총회는 각 문중들의 중지를 모아 개최되고, 이 총회를 통해 선조의 유훈을 받들고 애족사상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 핏줄 한 자손으로 효와 예를 자손만대에 이어가기 위한 자리가 바로 이 총회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주오씨 역사와 전통을 후손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오늘 참석하신 종친들께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종친 간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마쳤다.

오은열 호남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 42만의

거대한 자치구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나주오씨의 본향인 삼도 본량”이라면서 “나주오씨 천 년의 세거지인 삼도초등학교에서 한핏줄이라는 혈연으로 만나 노력한 지 벌써 18년이 지났다면, 오늘 이 자리에 훈훈한 향기로 전해진다”고 했다. 그리고 장탄문중이 화합으로 준비한 총회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자고 했다. 그리고 “4년의 회장직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오인수 회장님과 임원진들께서 수고했다는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신임 오근성 회장님과 오정균 종무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을 드린다”면서 “새 회장을 중심으로 화합과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 우리 대총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드리자”고 했으며, 종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정기총회 주요 안건인 의안 보고 및 인준

에 관한 건을 회장의 위임을 받아 오교철 종무원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종무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임기 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신임 회장단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면서 종무원장으로서 마지막 진행하는 이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오동근 감사의 ‘2015년도 회기 감사 보고’가 끝나고, 제2안 ‘2015년도 회기 결산 및 2016년도 회기 예산(안) 보고 인준’, 제3안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제4안 ‘임원개선 인준’ 건을 일괄 상정했다. 오현교 재무부회장이 안건을 설명하려 할 때, 지난 2월 14일 종무회의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총회 자료로 대신하지는 종원들의 제안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임원 개선 사항’으로 회칙 제6조(임원 선출) ①항 “회장 종무원장 부회장 감사는 종무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에 따라 2016년 2월 14일 충남 공주시 ‘새이학가든’(공산성 입구) 종무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오근성, 종무원장 오정균, 감사 오동근·오승기의 인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보물 제1190호,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추진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상으로 총회 회의의 안건인 제2호, 제3호, 제4호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기타 안건에 대한 종원들의 의견이 없어 신임 집행부가 소개되었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오근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칙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종무회의에서 추대를 받아 대총회를 위해 마지막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승낙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대총회를 이끌겠다

고 했다. 그리고 “전임 회장단에게 대총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면 감사의 말과 함께 지도편달 바란다”면서 “우리 대총회는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젊은층의 대총회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참석하신 종원님들께 자녀들의 대총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서 새로 선임된 오무송 호남본부장, 오의곤 영남본부장, 오양근 서울경기본부장, 오동근·오승기 감사 소개를 끝으로 2016년도 정기총회 폐회가 선언되었다.

식전 행사로는 복지예술단의 각설이타령 등 흥겨운 공연 있었으며, 2부 행사로는 장탄문중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으면서 종원들 간의 화기에애한 정담이 이어졌다. 그리고 점심 후 장탄문중 선영을 참례하기로 했으나 공사 관계로 참례를 못하고 2016년도 정기총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역대 총회 개최 문중

개최연도	개최문중	개 최 장 소
2003	도암공	전북 고창군 늘봄가든
2005	송은당공	나주시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대강당
2006	석문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07	사정공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사회복지관
2008	철송공	광주시 상공회의소
2009	장탄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0	송계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1	금양군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2	송은당공	나주시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대강당
2013	석문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4	사정공	전남 나주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2015	철송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6	장탄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7	송계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7년도 종무회의의 개최(2017. 2. 12)

2017년 2월 12일 오전 12시, 충남 논산시 관촉동 관촉사 앞에 있는 ‘돌체회관’ 2층에서 종무회의가 개최되었다. 총회에 앞서 개최되는 이날 종무회의는 서울·경기 지역 및 광주·전남북 지역, 영남 지역의 임원 및 종무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개별 출발한 종무위원 8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회자 오형근 총무부회장은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제9조,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2017년도 종무회의의 개최를 선언했다. 그리고 조상님의 숭고한 덕을 기리기 위한 ‘선조님들께 드리는 묵념’에 이어 곧바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오근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종무회의에 참석해주신 임원 및 종무위원님들께 감

사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우리 대종회처럼 매년 종무회의를 갖는 성씨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매년 종보를 발행해 선대 유업이나 선조님들의 업적을 소개해 왔다”면서 참의공 문중의 시조비 건립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나주오씨 전체 문중이 참여하지 않고 시조비를 세우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선조님들의 유업에 어긋난다”면서 “다련군을 나주오씨 시조로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선조님들이 다련군을 시조로 세우지 않는 이유는 확실한 율대를 달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를 후손들이 임의대로 시조를 내세우는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년마다



각 문중이 3월 넷째 주 일요일에 총회를 개최해왔는데, 올해는 송계공 문중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더불어 "삼도초등학교 강당에서 해년마다 총회를 열 수 있는 것은 오은열 부회장님의 공이 크다"고 치하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제쳐두고 중무회의에 참석하시 분들을 보면 더욱 겸허한 자세로 회장직에 임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인사말을 가름했다.

회장 인사말에 이어서 중무원장이 중무회의를 진행했다. 중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붉은 닭의 해"라면서 "예부터 닭은 어둠을 물리고 새벽을 여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올 한 해 우리 대종회도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서 어두운 일을 물리치고 밝은 날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번 중무회의는 '2016년도 회기 결산 및 2017년도 예산 승인의 건' 의안을 가결하는 것은 물론 '나성군 초상 보존의 건' 진행 사항, '참의공 문중의 시조비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사항 등으로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번 총회 개최를 흔쾌히 수락해주신 송계공 문중에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 대종회는 무엇보다도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면서 여기 참석하면 임원 및 중무위원 자제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중무회의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중무원장을 대신해 오형근 중무부회장의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준비에 관한 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제2호 의안인 '예산·결산 등에 관한 건' 심의에 들어갔다.

오동근 감사는 2016년도 회기 감사 보고를 통해 "대종회 회칙 제8조 5항에 의거 2017. 2. 1~2. 4 일 서울 대종회 사무실과 호남지역본부 사무실에

서 종무사항과 회계사항을 감사한 결과, 종무사항 모두 특별한 하자가 없고 회계 상 처리 또한 적법하게 지출되었다”면서 “2016년도 회비 및 협찬금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는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 국고보조금은 “강남구청에서 5천3백만 원을 수령하여 고창문화재보존에 선급금 1590만 원을 지급하고, 세후 이자를 포함해 현재 37,141,182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제안사항으로 “임원 및 종무위원 등 종친들의 회비 납부율이 담보 상태로 자금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대종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나주오문에 대한 긍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2016년도 사업 보고가 이어졌다. 총무부회장은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외에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사업’ 추진이 문화재청 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오자치 초상 도급 계약 변경’ 계약을 완료했으며,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건립에 따른 종사연구위원회 개최, 대종회 조직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서울 부장 간담회를 2회 실시했으며, 서울광주 임원 간담회, 서울 종무위원간담회, 나주오씨대종회 고유증 발급, 정기에금 만기 도래에 따른 재예치 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간략하게 보고했다.

감사 보고와 사업 보고 후 2016년도 결산 보고는 회의 자료 내용으로 대신하자는 장내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어서 종무원장은 ‘오자치 초상 국고보조금 수지보고(특별회계)’에 대한 총무부회장의 제안 설명 후 곧바로 원



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어서 ‘2017년도 회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고, 2017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총무부회장이 간략히 설명했다. ‘대종회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방안’, ‘대종회 여성부 신설 운영 방안’, ‘청장년층과의 대화 시간 마련’, ‘신유대동보 20개 과별 PDF 파일설치(열람) 추진’, ‘대종회 임원 수첩 제작 배포’ 등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 후 곧바로 2017년도 회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제3호 의안인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개정안’과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대종회 회칙 제16조(운영)의 “제②항 본회의 재정기금은 은행을, 정기에탁금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나주오씨대종회’(실명 : 회장) 명의로 예치하되, 인감은 회장과 종무원장 2인의 직인으로 하고, 증서는



종무원장, 인장은 재무부장, 재무부회장이 보관한다”를 “본회의 자금관리를 위한 예금계좌 개설 등 필요한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종사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제5조(위원의 자격, 선출)에서 제③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했다.

이어서 제4호 안건인 ‘오자치 초상에 관한 건’에 대해 2016년도 보존처리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가 이어졌고, 향후 보존 방법(기증, 기탁) 결정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위원회(2017. 2. 1.)’ 회의 결과대로 2003년부터 계속 수탁하여 온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제5호 의안인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가 이어졌으며, 기타 토의사항으로 장화황후 부친 다려군에 대한 나주오씨 시조 정립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대해 오근성 회장은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했으며,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사신 선조님들도 시조 정립에 대해서 여러 글을 남겼듯이, 우리 나주오씨가 다섯 차례 족보 수보시마다 다려군을 시조로 정립하지 못한 이유는 중조 오숙규 선조님의 직계 선조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으며 “다

려군에 대한 확실한 계통을 이을 수 있는 고증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나주오씨의 중시조는 휘 ‘숙규’이고 기세조는 휘 ‘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의 의견에 대해 현혹되지 말고, 선조들이 만들어 놓으신 족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무리를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협조사항으로 “대중회 정보 발간 원고를 2월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공지”했다. 더불어 “회원들의 주소 변동과 전화번호 변경 시 대중회 사무실에 알려주고, 회비는 의무이자 권리로 연초에 납부해 주시면 대중회에 많은 힘이 될 것”이라면서 종무회의의 폐회를 선언했다.

점심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불이 있는 ‘관축사’를 답사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麻谷寺의 말사로, 968년(광종 19) 혜명慧明이 창건하였다, 이곳에는 보물 제218호로 지정된 “관음보살입상(은진미륵), 보물 제232호인 석등,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53호인 배례석拜禮石, 충남 문화재자료 제79호인 석문石門, 오충석탑·사적비 등이 있다. 이 절을 관람 후 은진미륵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2017년도 종무회의의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2017년 「대종대상 大衆大賞」 ‘효자상’ 표창 · ‘장학금’ 수여



효자상孝子賞 표창

- ◆ 성명 : 오근양吳根陽(송계공 휘 언인 12세손, 77세)
- ◆ 추천 사유 : 위 종원은 고영순高永順 여사와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왔으며, 평소 숭조와 효친 사상이 투철하여 부모님 봉양에 극진하였다. 특히 모친의 숙환에 정성을 다해 수발함은 물론 와병중인 부인의 간병에도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효자로 선정되었다.



장학금 수여

- ◆ 성명 : 오기현吳起賢(송계공 휘 언인 14세손)
- ◆ 추천 사유 : 위 종원은 호남대학교 전자공학과(2학년) 학생으로, 본회 회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숭조정신이 투철하고 애족심이 강하며 학업열의 높고 품행이 방정하여 종문을 빛낼 인재로 선정되었다.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조치사항

편집부

1. 사안의 개요

◆참의공과 종중과 오성근·오항식 씨는 우리 대종회와 나주오씨 전체 문중과 사전 논의·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련군多隣君(고려 태조비 장화왕후의 부친)을 나주오씨 시조始祖로 정하여 2016.09.05. 전북 고창 참의공(오희량) 묘원에 시조비始祖碑를 건립한 것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음은 물론 나주오씨 전체 문중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음.

◆우리나라 모든 성씨의 족보는 일반적으로 맨 위 선조先祖를 시조始祖로 정립하여 보계譜系가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 나주오씨는 1747년 최초 인쇄본 족보부터 1981년 대동보까지 5회에 걸쳐 족보를 편찬하면서 맨 위 선조인 고려 중엽인 오숙규吳淑珪 선조님을 시조로 정립하지 아니하고, 중조中祖(중시조)로 정립하였음. 그 이유는 나주오씨의 역사는 유원하나 병화로 가첩家牒을 잃어버려 시조 이하 상조上祖님들의 명위名位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조 미정립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나주오씨 중조 오숙규 선조님보다 선대先代の 오씨 특정인을 시조로 정립하려면, 첫째 나주오씨 시조로 정립될 인물이 중조 오숙규 선조님의 직계 선조라는 입증이 되어야 하고, 둘째 나주오씨대 종회(또는 20개 계파 종중 대표)의 심의 등 합당한 시조 정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그러나 나주오씨 20개 계파 중 하나인 참의공파 종중에서는 고려 태조비 장화왕후의 부친 다련군多隣君이 나주오씨의 직계 선조라는 입증 자료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나주오씨 시조를 '다련군'으로 정립하여 2016. 09.05. 전북 고창 소재 참의공(오희량) 묘원에 나주오씨 시조비를 건립하였음. 또한 참의공파 종중은 나주오씨 시조 다련군비를 건립함에 있어서도, 나주오씨대종회 또는 전체 문중이 참여하는 시조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조비 비문 결정, 시조비 건립 장소 선정, 건립 비용 부담 등을 심도 있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합의하여야 함

에도, 이러한 사전 논의·합의 절차 없이 1개 계과의 종중에서 일방적으로 시조비始祖碑 비문碑文을 결정함으로써 시조비 비문의 내용이 <고려사> 문헌과는 다르게 사실史實을 왜곡하였거나 잘못 기술된 내용이 많이 있음.

◆위와 같이 참의공파 종중이 나주오씨 시조비를 건립함에 있어서 시조 정립 절차상의 문제, 시조비 건립 절차상의 문제, 시조비 비문 내용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는 나주오씨 전체 문중 간 갈등 요인으로 비화하고 있어 종원 간 화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특히 나주오씨 중시조 오숙규 선조님 이하 대대로 자자손손이 줄지에 다련군의 자손이 되는 난륜亂倫사건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임.

2. 대종회의 조치사항

(1) 2016.10.09. 금양군 정향제 봉행(광산사) 행사 후 이날 참석한 서울지역 임원과 호남지역 임원들이 이 자리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지역본부와 호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호남지역본부에서는 2016.10.12., 서울지역본부에서는 2016.10.14.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심각성을 논의한 후 2016.10.22. 대전에서 종사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결의하였음.

(2) 우리 대종회는 2016.10.22. 2016년도 제1차 종사연구위원회를 개최(회의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 81 소재 '솔밭집')하여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심층 토의한 결과, 시조비를 건립한 참의공파 종중과 오성근·오항식 씨에게는 나주오씨 시조 정립과 시조비 건립의 부당함을 알리고 부당 건립된 시조비의 자진 철거 조치를 즉각 엄중히 요구하기로 결의하였고, 아울러 대종회 종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에게는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즉시 발송함은 물론, 대종회 홈페이지 및 대종보에 게재하여 전체 종원들에게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기로 결의하였음.

*참석자_ 21명. ① 종사연구위원(6명):종만, 열(이상 서울지역 2명), 광섭, 영교, 은열, 찬균(이상 호남지역 4명). ② 집행부 임원(9명):*근성(회장), 정균(종무원장), *양근(서울지역본부장), 무송(호남지역본부장), 동근(감사), *기주(총무부회장), *형근(총무부회장), 현교(재무부회장), 종선(재무부장) [註] *표시 4명은 종사연구위원임. ③ 기타 초청 임원·인사(6명):공수, 대균, 홍구, 부종(이상 서울지역 4명), 중섭, 희열(이상 호남지역 2명)

(3) 우리 대종회에서는 2016.10.22. 종사연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참의공과 종중과 오성근·오항식 씨에게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설치에 대하여” 서한 〈첨부자료 1〉을 2016.10.28. 발송하여 나주오씨 시조 정립과 시조비 건립의 부당함을 알림은 물론,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사과 요구 및 시조비의 자진 철거조치를 엄중히 요구하였음.

아울러 나주오씨 전체 임원(종무위원 포함)들께도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설치에 대하여(알림)” 홍보 안내문 〈첨부자료 2〉을 2016.10.28. 발송하여 나주오씨 시조 정립과 시조비 건립함에 있어 그 부당성과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려드렸음.

3. 첨부자료

- (1) 참의공과 종중과 오성근·오항식 씨에게 발송한 서한(2016.10.28.)
- (2) 대종회 임원(종무위원 포함)에게 발송한 안내문(2016.10.28.)

나주오씨대종회

www.najuoh.or.kr

문서번호 : 16 - 16

2016. 10. 28.

수 신 : 參議公 宗中 및 吳成根, 吳恒植 貴下

제 목 : 羅州吳氏 始祖碑 不當 設置에 대하여

謹啓時下 晩秋之節에 尊體 錦安하심과 宅內 萬福이 充滿하시길 祈願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參議公 宗中과 귀하들께서는 〈羅州吳氏大宗會〉 및 羅州吳氏 전체 문중과 어떠한 論議나 合意도 없이 일방적으로 羅州吳氏 始祖를 多憐君으로 定하여 羅州吳氏 始祖碑(羅州吳氏始祖 高麗太祖國舅 三重大匡多憐君碑)를 2016. 09.05. 전북 고창 參議公 墓園에 설치 완료하고, 2016.11.04. 始祖碑 除幕式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始祖碑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먼저 羅州吳氏大宗會 總會의 議決 또는 전체 系派 門中の 合意 등 始祖 定立 節次를 거친 연후에, 始祖碑 建立推進委員會를 구성하여 始祖碑 碑文 決定, 始祖碑 設置 場所 選定, 設置 費用 負擔 등을 심도 있고 신중하게 論議하고 合意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參議公 宗中과 귀하들께서는 始祖碑 建立推進委員會 구성은 물론 羅州吳氏大宗會 總會의 議決 또는 전체 系派 門中과 의견을 수렴하는 公論化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莊和王后의 父親 多憐君을 羅州吳氏 始祖로 定하여 2016.09.05. 전북 고창 參議公 墓園에 始祖碑를 설치 완료한 것은 절차상 重大하고 明白한 瑕疵가 있는 것이고, 많은 問題點들을 內包하고 있어, 羅州吳氏 전체 系派 門中の 和合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10.22. 개최된 羅州吳氏大宗會 2016년도 제1차 종사연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羅州吳氏 始祖碑 設置에 대한 問題點과 귀하들에게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통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 주실 것을 嚴重히 要求합니다.

1 羅州吳氏 始祖碑 設置에 대한 問題點

1. 始祖碑 設置 節次上의 問題

羅州吳氏 始祖 定立, 始祖碑 碑文 決定, 始祖碑 設置 場所 選定, 設置 費用 負擔 등 제반 사항을 事前에 羅州吳氏 大宗會와 羅州吳氏 전체 門中과 論議·合意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절차상 重大하고 明白한 瑕疵가 있는 것입니다.

2. 羅州吳氏 始祖 定立의 問題

〈羅州吳氏族譜〉는 丁卯譜부터 辛酉大同譜에 이르기까지 5차례 修譜하면서 族譜 修譜에 참여하신 先祖님들께서도 莊和王后 吳氏가 “羅州人”이고, 丁卯譜(韜庵公 所錄)와 庚午譜(부록 詩詞哀集 편)에 “羅州吳氏”로 기술하였으나, 莊和王后의 父親인 多憐君이 中祖 吳淑珪 또는 1世 吳偃 先祖님의 直系 先祖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始祖로 譜系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高麗史〉와 다르게 기록된 開城王氏 私門中에서 발행한 〈開城王氏族譜〉 제1권의 高麗聖源錄에 莊和王后를 羅州吳氏로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多憐君을 始祖로 定立한 것은 修譜 先祖님들이 多憐君을 우리 族譜의 譜系에 先祖로 등재하지 못한 이유를 무시한 대단히 主觀的인 思考의 결과입니다.

多憐君을 始祖로 定立함이 정당하다면 〈高麗史〉에서 多憐君의 父親으로 諱字가 확인되고 있는 “富佗”을 始祖로 定立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名諱를 모른다는 이유로 君號를 사용하여 始祖로 定立함은 대한민국의 어느 姓氏에서도 그 類例가 없을 것입니다.

3. 始祖碑 碑文 內容의 問題

가. 多憐君 官職 “三重大匡” 기록 관련

나. 世居地 “興龍洞” 기록 관련

다. “吳氏來東文蹟記” 기록 관련

라. “新羅吳氏” 기록 관련

마. “金傳王 駙馬說” 기록 관련

바. 多憐君의 父親 “諱 富佗” 기록 관련

사. “始祖碑를 세운 宗中” 기록 관련

4. 始祖碑 設置場所 選定의 問題

始祖碑 建立의 當爲性이 있다면 우리 羅州吳門의 歷史性과 象徵性이 있고 羅州吳氏 전체 門中이 同意하는 장소에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 조건들을 무시하고 전북 고창 參議公 墓園에 일방적으로 설치 완료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處事입니다.

※ 羅州吳氏 始祖碑 設置에 관한 具體的인 問題點은 別添 2016년도 제1차 종사연구위원회 회의자료 중 “참고자료 4 나주오씨 시조비 설치에 대하여”(9~25페이지) 참조 요망.

2 羅州吳氏 始祖碑 設置에 대한 措置 要求事項

1. 始祖碑 不當 設置에 대한 謝過
2. 羅州吳氏 始祖碑의 自進 撤去 措置

첨 부 : 2016년도 제1차 종사연구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나주오씨대중회 회 장 오 근 성

나주오씨대종회

www.najuoh.or.kr

문서번호 : 16 - 15

2016. 10. 28.

수 신 : 대종회 임원 여러분 귀하

제 목 :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설치에 대하여 (알림)

근제시하 만추지절에 존체 금안하심과 댁내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참의공 종중과 성근·항식씨는 〈羅州吳氏大宗會〉 및 羅州吳氏 전체 문중과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羅州吳氏 始祖를 다련군多憐君으로 정하여 나주 오씨 시조비(羅州吳氏始祖 高麗太祖國舅 三重大匡多憐君碑)를 2016.09.05. 전북 고창 9세 참의공(諱 希亮) 묘원에 설치 완료하고, 2016.11.04. 시조비 제막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조비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먼저 羅州吳氏 始祖를 누구로 할 것인지 시조 정립 절차를 거친 연후에 시조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조비 비문 결정, 시조비 설치 장소 선정, 설치 비용 부담 등을 심도 있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합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의공 종중과 성근·항식 씨는 시조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은 물론 羅州吳氏 전체 문중과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하지 않는 등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장화왕후의 부친 '다련군'을 羅州吳氏 始祖로 정함은 물론, 2016.09.05. 전북 고창 9세 참의공(諱 希亮) 묘원에 시조비를 설치 완료한 것은 절차상 대단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조비 비문 내용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후면 참조)을 내포하고 있어, 羅州吳氏 전체 문중의 화합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우리 대종회에서는 2016.10.22. 대전에서 2016년도 제1차 종사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참의공 종중과 성근·항식 씨가 추진한 '羅州吳氏 始祖 정립'과 '시조비 설치'의 부당함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종회가 참의공 종중과 성근·항식 씨에게 시조비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 설치한 시조비의 자진 철거를 엄중히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연락이 가능한 일가분들에게 시조비 설치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오씨대종회 회 장 오 근 성

나주오씨 시조비 설치에 대한 문제점(요약)

1. 시조비 설치 절차상의 문제

羅州吳氏 시조 정립, 시조비 비문 결정, 시조비 설치 장소 선정, 설치 비용 부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羅州吳氏大宗會〉와 羅州吳氏 전체 문중과 어떠한 논의·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절차상 대단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2. 나주오씨 시조 정립의 문제

〈나주오씨족보〉는 정묘보부터 5차례 수보하면서 족보 수보에 참여하신 선조님들께서도 장화왕후 오씨가 ‘羅州人’이고, 정묘보와 경오보에 ‘羅州吳氏’로 기술하였으나, 장화왕후의 부친인 다련군이 중조 오숙규 또는 1세 오언 선조님의 직계 선조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시조始祖로 보계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高麗史〉와 다르게 기록된 開城王氏 사문중에서 발행한 〈개성왕씨족보〉 제1권의 고려성원록에 장화왕후를 羅州吳氏로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다련군을 시조로 정립한 것은 수보 선조님들이 다련군을 우리 족보의 보계에 선조로 등재하지 못한 이유를 무시한 대단히 주관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다련군을 시조로 정립함이 정당하다면 〈高麗史〉에서 다련군의 부친으로 諱字가 확인되고 있는 ‘부돈富他’을 시조로 정립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3. 시조비 비문 내용의 문제

가. 다련군 관직 “삼중대광” 관련

다. “오씨래동문적기” 관련

마. “김부왕 부마설” 관련

사. “시조비를 세운 중증” 관련

나. 세거지 “홍릉동” 관련

라. “신라오씨” 관련

바. 다련군의 부친 “휘부돈” 관련

4. 시조비 설치장소 선정의 문제

시조비 건립의 당위성이 있다면 우리 羅州吳門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고 羅州吳氏 전체 문중이 동의하는 장소에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 조건들을 무시하고 전북 고창 9세 참의공(諱 希亮) 묘원에 일방적으로 설치 완료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 나주오씨 시조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별첨 「2016년도 제1차 종사연구위원회 회의자료」 중 「참고자료 4 나주오씨 시조비 설치에 대하여」(9~25페이지) 내용 참조 요망.

❖고창문화재보존과 도급계약 변경 체결 및 격려 방문



2016년 5월 13일 3시 30분 오근성 회장, 오양근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오종문 홍보부장 3인은 강남구의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사업 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문화재청 승인(2016. 2. 19)에 따라 고창문화재보존(대표 송정주)을 방문,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도급 계약 변경을 체결했다. 그리고 8월 25일 14시 오근성 회장, 오양근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오승기 감사, 오종문 홍보부장 4인이 고창문화재보존을 다시 방문,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송정주 대표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진행을 독려했다.

❖2016년 5월 13일 회장, 호남 임원 간담회

2016년 5월 13일 광주 금남로 ‘일송정’ 식당에

서 오근성 회장 주최 호남본부 임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지역본부 순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대중회 발전 방안과 청사진을 밝히고, 호남지역본부 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오정균 종무원장은 “나주오문의 본산답게 호남지역본부의 회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오무송 호남본부장은 “호남의 임원 정례 단합대회 형식으로 자주 만나는 자리를 갖겠다”고 화답했다. 오인수 상임고문은 “오근성 회장은 평소 송조·친목의 사상이 깊고, 애족하는 마음의 성실함이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 회장을 맡아서 항상 마음 든든하다”면서 “우리 대중회를 중심으로 나주오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오근성 회장은 오호근·오희열·오중섭 종원을 고문으로, 오곤수 종원을 부회장으로 추대하는데 모두 박수로 찬동을 보냈다.

오교용 종무위원은 건배 제의를 하면서 “젊은 종원들이 대중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 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석 임원 모두는 박수



로 동의를 표하였고, 반주를 곁들인 오찬은 격의 없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참석자_ 오근성 회장, 오양근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오형근 총무부회장, 오인수 상임고문, 오정균 종무원장, 오무송 호남본부장, 오동근 감사, 오희석·오인선·오성수·오광교·오영근·오행근·오은열·오기주·오종순·오광교·오현교·오찬균 부회장, 오효근·오희열·오중섭 고문, 오교웅 종무위원(무순)

❖서울경기지역 임원 오찬 간담회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12시 대종회 사무실 앞 '진진바라'에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오근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13일 광주에서 호남 임원 32명과 점심 겸해서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나성균 시제 때도 많은 후손들이 참가해 송조의

미덕을 살렸다”고 했다. “오늘 대종회 고문님과 임원님 등을 모신 이유는, 그동안 대종회를 위해 물적·정신적으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종회를 위한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대종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발전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했다. 그리고 점심을 하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참석한 분을 일일이 소개하고, 앞으로도 대종회를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삼선 부회장은 “앞으로는 대종회에 더 열의를 보이겠다”고 했으며, 오강열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매우 좋다. 대종회에 자주 참석하겠다”는 열의를 보였으며, 오홍구 부회장은 “대종회 일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오근성 회장은 “오늘 처음 나오신 오강열 족장님은 난봉공파로,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난봉공 선조님은 임진왜란에 참전해 큰 공을 세운 분이다”면서 오강열 족장에게 앞으로도 대종회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특별한 애정을 표하고 임원 간담회를 마쳤다.

*참석자_ 오근성, 오삼선, 오용근, 오철수, 오재남, 오관열, 오현열, 오강열(고창, 난봉공파), 오종만, 오공수, 오양근, 오열, 오맹근, 오교철, 오진열, 오교숙, 오홍구, 오동열, 오근신, 오재협, 오종문(무순)

❖서울경기지역 부장·임원 간담회

2016년 5월 28일(토) 오전 11시 40분 서울 대종회 사무실에서 서울경기지역 부장·임원 간담회가 열렸다. 오근성 회장은 “대종회 발족 이후



서울경기지역 대중회의 결속력이 약화되었다”면서 “오늘 참석하신 젊은 분들이 우리 대중회를 이끌어가야 할 대들보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그 동안 오양근 서울경기지역 본부장과 오형근 총무부회장의 도움으로 대중회 인수인계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대중회에는 산악회와 장년회가 있는데, 오경남 초대 산악회장과 오채열 전 회장, 오대균 현 회장의 수고가 많다”고 했다. 또한 “오채열 재무부장은 대중회 살림을 잘 꾸려왔고, 오정열 부회장도 역할이 기대될 뿐 아니라 오상열 부회장도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뿌리를 찾아 대중회에 가입한 분으로, 우리는 조상의 음덕으로 살고 있다”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중회 활성화를 위한 역군들로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될 분들이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일가 간이라는 핏줄 하나만으로 만났지만, 나 주오씨를 위해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오형근 총무부회장 진행으로 대중회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대중회 적극 참여 가능한 종친 발굴·영입’, ‘대중회 사업 홍보 강화 위한 대중보 발간비 확보(광고 협찬) 및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시스템 개선’, ‘조상 뿌리찾기 캠프 및 장학기금 조성’, ‘지역

종친 간 친목 도모 행사 개최’, ‘대중회 산하 단체(오수·오성 산악회) 활동 지원’, ‘종친 경조사 참례’, ‘가문을 빛낸 종친 발굴·소개’, ‘청·장년회 모임 결성 지원을 통한 활성화와 청·장년층 교류 및 대화의 장 마련’, ‘문중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조직 활성화’, ‘전·현직 임원 및 종무위원과 대화 시간 마련’ 등을 토의한 후 참석자들의 각오가 이어졌다.

“대중회 사료가 정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해 사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 일이 마무리되면 대중회에 관한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현재는 중앙종친회 및 민원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다. 대중회 관련 자료는 우리 대중회의 역사인만큼 종사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대중회 사사집을 만들겠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종친들의 애정사나 사업 개업 등 문중 소식과 귀중한 자료를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부장 임원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 대중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오형근), “일가 간 모임은 학렬이 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주위의 젊은 사람들을 많이 추천해 주었으면 한다. 대중회는 앞으로 부장들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오양근), “회의나 행사에 꼭 참석해 대중회 발전에 노력하겠다.”(오정열), “2002년 대중회에 처음 나왔다가 종친회의 일에 감명 받았다. 개인적인 일로 대중회 일에 뜸했는데, 앞으로는 회장님을 모시고 대중회를 위해 노력하겠다.”(오경남), “회장님을 모시고 대중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대중회 모임을 자주 가져야 친척 간에

가까워진다.”(오채열), “개인적인 일로 대종회 일을 소홀히 했다. 오늘처럼 젊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대종회 발전 방안이 나온다. 현재 대종회는 산악회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산악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오채근), “작년 6월 처음 대종회를 방문한 후 배운 게 많다. 앞으로도 계속 대종회의 일에 적극 참석하겠다.”(오상열), “산악회 모임을 통해 대종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오대균), “대종보가 나주오가의 위상을 높이고, 더욱 알찬 콘텐츠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오종문)고 했다.

오근성 회장은 대종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감사하다면서 “윗대 선계를 가지고 문중 간에 서로 자극하는 행위는 대종회의 친목을 저해한다”면서 각 문중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 후 “오자치 초상은 우리의 소중한 보물로, 국가 지원을 받아 보존처리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에 끝난다. 보존 처리가 마무리되면 광주와 서울 등 전시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면서 “임기 동안 대종회 친목을 다지고, 즐겁게 대종회 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석자_ 오근성, 오양근, 오형근, 오정열, 오상열, 오경남, 오채열, 오채근, 오대균, 오승기, 오종문(무순)

❖2016년도 제1차 서울경기지역 임원회의

2016년 8월 27일(토) 오후 4시 대종회 사무실 지하 ‘강진수산’에서 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 내용은 ‘2016년 대종회 사업 보고’, ‘2016년 종무추진사항 보고’, ‘2016년 회비 및 협찬금 입금 내역 보고’, ‘2016년 나성군 초상 보존처리사업 진

행 보고’, 부장간담회(6. 25)에서 논의된 ‘대종회 조직 활성화 방안’과 ‘제18호 대종보 원고 독려’와 ‘회원 주소 정비, 전자족보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순으로 이어졌다. 회의 결과는 2017년도 사업 계획은 2016년 연말까지 마련해 2017년 2월 종무회의 승인 후 시행토록 할 것이며, 부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종회 조직 활성화 방안 중 금년 사업연도에 시행 가능한 것은 시행하도록 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시행할 사항은 2017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 실시하자는 논의와 함께 대종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이야야기를 나누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참석자_ 오근성, 오양근, 오종만, 오기선, 오삼선, 오공수, 오근신, 오맹근, 오형근, 오교한, 오채근, 오열, 오재협, 오진열, 오동렬, 오정렬, 오경남, 오교철, 오대균, 오홍구, 오창교, 오승기, 오상열, 오종선(무순)

❖2016년도 서울경기지역 종무위원 간담회



2016년 9월 24일(토) 오후 4시, 서울경기지역 종무위원 간담회가 대종회 사무실 지하 ‘강진수산’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는 오형근 총무부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오늘 종무위원 간담회는 나성군 초상 보존처리 진행사항, 새로

나오신 종무위원을 소개하는 등 회의 자료를 참조해서 진행하겠다”는 제안 설명에 이어 오근성 회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주말인 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오양근·오형근 두 분이 회의 자료를 만드는데 수고가 많았고, 오형희 고문님은 2기 종무원장을 맡아 대종회 발전에 큰 공헌은 물론 나성군 초상에 관한 많은 일을 하셨으며, 오공수 부회장님은 대종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 오대균 산악회장은 대종회 결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오종문·오종선 두 부장의 수고가 크다”면서 대종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안건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6년 대종회 사업 보고’에 이어 ‘2016년 종무사항 보고’, 나성군 초상 보존처리사업 진행 보고, ‘대종회 조직 활성화 방안’으로 부장간담회(6. 25)에서 논의한 사항을 설명하고, 금년 사업년도에 시행 가능한 것은 시행하고, 그 외 것들은 201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종회 공지와 협조사항으로 제18호 대종보 원고 제출 독려와 임원 및 종무위원 주소록 정비, 전자족보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계속 사업에 등에 관한 내용이 토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오양근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대종회 사무실은 주 5일간 열려 있으니 자주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종무위원은 대종회의결기관으로, 현 종무위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문중별로 추천을 부탁했다. 하부조직이 탄탄해야 건강한 종무회의가 된다면서 가능하면 회의시 꼭 참석해 주시고, 대종회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니 회비 납부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근성 회장은 “원래 종무회의는 2회에 걸쳐 150여 명의 종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로 치러왔으나 최근에는 총회 개최 전 1회만 개최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이번 서울경기지역 종무회의는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했음을 이해 바라며, 다음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종무회의와 총회에 모두 참석, 가능하면 가족까지 동반해 참석하면 좋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참석자_ 오근성, 오양근, 오공수, 오상렬, 오형근, 오민선, 오이수, 오학수, 오근태, 오근국, 오성근, 오영근, 오형희, 오남열, 오전열, 오홍열, 오형교, 오맹열, 오경근, 오대균, 오승기, 오종문, 오종선(무순)

❖서울·호남 임원 및 종무위원 긴급 간담회



2016년 10월 9일(일) 14시~15시까지 금양군 단향제 봉행 후 ‘금하재錦霞齋’에서 서울·호남 임원 및 종무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논의 내용은 오성근·오항식 씨가 전북 고창 참의공(9세 희량) 종중 묘원에 나주오씨 시조비 설치(2016. 9. 5)의 부당성을 논의하고, “시조비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시조비 설치에 대하여” 등 2종의 자료를 각 본부별

임원회의 준비용으로 배포했다.

*참석자_ 서울:오근성(회장, 석문공), 오종만(종사연구위원장, 금양군), 오양근(서울경기본부장, 장탄), 오기선(부회장, 금양군), 오형근(총무부회장, 내금위), 오승기(감사, 명곡공), 오종문(홍보부장, 참판공), 오종선(재무부장, 장탄). 호남:오정균(총무원장, 장탄), 오무송(호남지역본부장, 금양군), 오성수(부회장, 금양군), 오은열(부회장, 석문공), 오광교(부회장, 장탄), 오현교(재무부회장, 칠송공), 오동근(감사, 금양군), 오화수(종무위원, 금양군), 오종선(종무위원, 부사공), 오승중(종무위원, 참판공)

❖서울경기지역 임원회의

2016년 10월 14일(금) 17시 대종회 사무실에서 오근성 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 주제는 '나주오씨 시조비 설치'에 대한 건으로, 오형근 총무부회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나주오씨 족보 수보에 참여하신 선조님께서도 장화황후 오씨가 나주인이고, 정묘보와 경오보에 나주오씨로 기술하였으나 장화황후 부친인 다련군이 중조 오숙규 또는 1세 오언 선조님의 직계 선조인지 확인할 수 없



어 시조로 족보에 올리지 못했다"면서 "고려사와 다르게 기록된 개성왕씨 사문중의 개성왕씨 족보 제1권의 고려성원록에 장화황후를 나주오씨로 기록되었음을 근거로 다련군을 시조로 정립한 것은 수보를 한 선조님들이 다련군을 우리 족보의 계보에 선조로 등재하지 못한 이유를 무시한 대단히 주관적인 사고의 결과"라면서 '나주오씨 시조 정립, 시조비 비문 결정, 시조비 설치 장소 선정, 설치 비용 부담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나주오씨대종회와 나주오씨 전체 문중과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_ 오근성, 오종만, 오양근, 오형근, 오기선, 오공수, 오근신, 오열, 오동열, 오맹근, 오진열, 오대균, 오승기, 오종문(무순)

❖2016년도 종사연구위원회 개최

2016년 10월 22일(토), 종사연구위원 8명, 집행부 임원 7명, 기타 초청 임원 6명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솔밭집'에서 종사연구위원회가 열렸다. 참의공 종중과 성근·항식 씨가 추진한 '나주오씨 시조 정립'과 '시조비 설치' 부당함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나주오씨 시조비 비문'과 '나주오씨 시조비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시조 정립 문제', '시조비 비문 내용의 문제', '시조비 설치 장소 선정의 문제' 등이었다.

회의에서는 나주오씨대종회와 나주오씨 전체 문중과 어떠한 논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조를 정립 및 시조비를 설치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참의공 종중과 성근·향식 씨에게 시조비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 설치한 시조비 자진 철거 조치 요구,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홍보 안내문 즉시 발송, 대종회 홈페이지 및 대종보에 게재하여 전체 종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기로 결의하였다.

* 참석자_ 오종만, 오열, 오형근, 오광섭, 오영교, 오은열, 오기주, 오찬균(이상 종사연구위원), 오근성 회장, 오정균 종무원장, 오양근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오무송 호남지역본부장, 오동근 감사, 오현교 재무부회장, 오종선 재무부장(이상 집행부 임원), 오공수, 오대균, 오홍구, 오부중, 오중섭, 오희열(이상 초청 임원)

❖서울경기지역 임원회의 및 송년 모임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1시 대종회 사무실 지하 '강진수산'에서 임원회의 및 송년 모임

을 가졌다. 오근성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올해는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건립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대종회에 발생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아오고 있다”고 했다. “모든 일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임원님들과 집행부 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와주었기에 가능”했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면 우리 대종회는 더욱 단단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임원회의는 그 동안 진행해 온 대종회 사업을 오형근 총무부회장이 자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담을 나눴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오형근 총무부회장의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건립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와



‘2017년 정기총회 개최 문중 선정 및 2017년 사업계획안 논의’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제18호 대종보 원고 제출 공지를 끝으로 임원회의를 마치고, 이후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_ 오근성, 오열, 오종만, 오맹근, 오재협, 오공수, 오대균, 오채균, 오형근, 오교철, 오정열, 오창교, 오채열, 오기선, 오홍구, 오진열, 오동열, 오경남, 오종문(무순)

❖2017년 호남지역본부 임원회의

2017년 1월 9일(월) 정오 12시 광주 송정동 ‘추령천’ 매운탕집에서 임원회의를 가졌다. 안건은 ‘대종회 정기총회 유사 문중 협의’와 ‘종무회의 참석 독려’와 함께 2017년도 대종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총회는 1999년 12월 5일 송정 뉴월드호텔에서 제1회가 개최된 후 제17회(2016. 3. 12)까지 매년 3월 넷째 주 일요일에 개최되어 왔다. 제5회(2003. 3. 23) 때부터는 문중(파별) 유사제를 시행해 도암공(고창 늘봄가든)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후 정기총회 유사 문중은 도암공—송은당—석문공—사정공—칠송공—장탄—송계공—금양군—송은당—석문공—사정공—칠송공—장탄 문중에서 개최되어 온 바,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문중은 송계공이나 유사 확정이 유보된 상태로 집행부 임원과 계속 절충 중에 있으며, 백양동 문중 총회(1. 21일)에서 최종 결정 되는 바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종무회의는 매년 2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되는 바, 2000년 3월 12일(용산구 초원

회관)에서 제1회가 개최된 뒤 제28회(2016. 2.14)가 충남 공주 공산성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 1월 14일 서울·호남 집행부 임원이 충남 논산 관촉사에서 회합을 갖기로 하고, 결정 후 회원에게 종무회의 개최 장소를 통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나주오씨 시조 부당 정립과 시조비 설치’에 대한 대종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참석자_ 오정균(종무원장), 오은열, 오기주, 오현교, 오동근, 오인국(무순)

❖2017년 호남지역본부 집행부 임원회의

1월 21일(토) 17시 상무지구 ‘달인청국장’에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가 열렸다. 협의 안건은 ‘정기총회 개최 문중 확정 보고’와 ‘2017년도 호남지역본부 운영 방안 협의’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송계공(백양동파) 문중에서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식전 행사 없이 회의 위주로 치르기로 했으며, 효자 및 장학생 선발을 서두르고 기념타올 400매 협찬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백양동 문중회의에서 신임 회장 오인국을 비롯해 오근남, 오희석, 오근양, 오병휘, 오기주, 오몽근 등이 회장단에 선출되었다고 했다. 호남본부 운영 방안으로는 ‘집행부 임원단의 매월 만남을 정례화’, ‘나주오씨 종파별 회장단 모임’을 통해 친목도모, 2월 초 ‘사정공 문중을 초청’해 오찬 모임을 갖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나주오씨 장학재단 설립 문제 등을 협의하고, 조직과 기금 마련 문제 등은 총회에서 재협의 추진키로 했다.

*참석자_ 오정균 종무원장, 오무송 호남지역본

부장, 오기주 총무부회장, 오현교 재무부회장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위원회 회의



2017년 2월 1일 대종회 사무실에서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위원회 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존처리위원회가 열렸다. 보물 제1190호 오자치 초상이 보존처리업체인 고창문화재보존(대표 송정주)에서 2015년 8월 16일부터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2017년 4월~6월경 초상 보존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존처리 후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할 것인가 아니면 대종회 소유로 기탁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 ‘인적·물적의 유물보존관리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고, 전문적인 유물 보존 관리가 가능한 국가(문화재청)에 기증하되, 궁중 유물전시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른 의견으로는 신설 박물관이나 지방 박물관 등에서는 귀중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하는 사례도 있는 바, 일단 기탁해 놓고 기회가 오면 대종회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으로 박물관에 기증 시

나주오씨대종회의 기증 유물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은 물론 각종 전시 행사 시에도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관 초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 역사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인 만큼 관련 학자들에게 의뢰해 오자치 초상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_ 오근성, 오종만, 오교철, 오형희, 오형근, 오승기, 오종문, 오흥기(입회)

❖호남지역본부 집행부 임원 간담회

2017년 2월 21일 백운동 ‘유정식당’에서 오경균 총무원장, 오무송 호남지역본부장, 오기주 총무부회장, 오현교 재무부회장, 오동근 감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안건으로는 2017년도 사업계획(월별) 확정과 호남지역본부 임원 간담회 확정 등이었다. 오는 3월 9일 총회 개최에 앞서 임원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참석 인원은 집행부 임원, 회장단, 총무위원, 기타 종원을 포함해 20~30명 안팎으로 하되 회장과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을 초청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3월 정기총회 참여 홍보 및 협조를 구하고, 3월 중 열리는 각 문중 일정을 4월로 조정할 것과 호남지역본부 하계 단합대회 이후 종파별 모임을 개최해 활성화를 꾀하고, 4월 초에는 9개 종파 상호군, 금양군, 칠성공, 참판공, 장탄파, 석문파, 송계공, 명곡공, 지봉공 등 문중 간담회 일정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9개 종파 간담회 시 송은당, 사정공, 내금위공, 정언공 등 4~6개 종파도 초청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정부인 신씨 묘지명 貞夫人申氏墓誌銘

[역문]

정부인 貞夫人 신씨는 가선대부 嘉善大夫 나원군 오공 세훈 世勳의 아내이다. 그 선세 先世는 곡성 谷城 사람인데, 숭겸 崇謙에 이르러 고려 태조를 도와 묘정 廟庭에 배향 配享되고 공훈 功勳으로써 적籍을 평산부 平山府에 내렸다. 증조의 휘는 개槃인데, 황희 黃喜 허조 許稠와 더불어 세종조 世宗朝의 삼공 三公이 되고 또 묘정에 배향되었다.

조祖의 휘는 자준 自準이니 통정대부 황해도관찰사 黃海道觀察使이며 고종의 휘는 말평 末平이니 종친부 宗親府 전첨 典籤이요, 전첨의 아들 상錦은 일찍이 청현 淸顯의 벼슬을 지내어 이조판서의 망望에까지 이르렀다. 중종 기묘 己卯년간에 사림 士林들이 청망 淸望으로써 추천하여 전첨공은 의정부좌참찬 議政府左參贊으로 관직이 올라갔다.

부인은 어려서 외조모 外祖母에게 양육을 받았는데, 외조모는 바로 좌의정 左議政 익평공 翼平公 권남 權孳의 부인이었고, 홍치 弘治(명명 明孝宗의 연호) 무신 戊申년에 오씨 집안에 출가하였다.

부인은 총명하고 정민 精敏하여 여공 女工에 두루 통했으며, 비록 어렸을 때의 자자구레한 일도 그 해와 달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나원군은 치산 治産을 일삼지 않았다.

부인은 마흔 두 살에 과부가 되었으나, 상제 喪祭에 예禮를 빠뜨린 적이 없었으며, 가르치고 기르는 일과 남혼여가 男婚女嫁에 있어 그 도리를 다했으며, 살림을 잘하여 토지를 사서 옛 업業을 여러 배로 늘렸다.

부인은 3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 겸謙은 가정嘉靖 임진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지금은 가선대부嘉善大夫로서 조부의 공을 승습承襲하여 금양군錦陽君에 봉했으며, 인訥은 진사進士요, 원諤은 생원生員이다. 장녀는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정광윤鄭光胤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태천현감泰川縣監 유건柳健에게 출가하고, 그 다음은 증산현감龜山縣監 신흥제愼弘濟에게 출가하고, 막내는 부인보다 일찍 죽었다. 금양군이 부인을 봉양하기 위하여 남평南平·남원南原·담양潭陽·전주全州의 여러 고을 외임外任을 거쳐 광주光州 목사에 까지 이르렀는데, 갑인甲寅 오월 십구일 무오戊午에 부인이 병으로써 임소任所에서 돌아가니 향년은 팔십이세였다.

부인은 아들을 따라 다섯 고을을 다니며 봉양을 받았는데 두세 명의 여자 종만 데리고 다녔으며, 오직 방적紡績에만 일삼고 일찍이 털끝 하나도 의義 아닌 생각은 갖지 않았고, 정신과 지려志慮는 노년이나 장년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해 구월 십구일에 나주羅州 용진산聳珍山 서쪽 기슭 나원군羅原君 영역瑩域의 동편 간좌곤향艮坐坤向의 별에 장사하였다. 명銘에 이르되, 악嶽이 영靈을 내리시어, 태정台鼎¹으로 대代 이었네. 이부吏部 능히 업을 이어, 뒷 자손 빛 더했어라. 석인碩人²의 옛 노래는, 혼자 미美를 차지하리. 어진 이를 짝해 덕 기르니 창성하고 복되도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³가 찬撰하다

1. 태정台鼎 : 재보宰輔(재상宰相)를 말한다. 예전엔 삼공三公을 칭稱하여 태정台鼎이라 했으니, 이를테면 별이 삼태三台(삼공三公)가 있고, 정鼎(중국 하나라의 우왕이 구주의 금속을 모아 만든 아홉 개의 솥으로, 국가·왕위·제업을 뜻함)이 삼족三足이 있는 것과 같다는 뜻.

2. 석인碩人 : 시경詩經·위풍衛風·석인碩人을 이름인데, 장강莊姜의 현賢을 노래한 것.

3. 김인후 : 조선 중기의 문신. 1540년 문과에 합격하고 1543년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를 역임하여 당시 세자였던 인종을 가르쳤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 장성으로 돌아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였다. 문집에 『하서전집』, 저서에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四天圖』 『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다.

※ 나원군 배위 신씨(할머니)의 품계가 정경부인임에도 하서 찬 묘지명에 정부인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묘지명을 찬할 당시(1554년)의 품계이었고, 그 후 정경부인으로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원문]

貞夫人申氏 善大夫羅原君吳公世勳之妻 其先谷城人 至崇謙 佐高麗太祖 配享朝庭 以勳賜籍平山府 曾祖諱槩 與黃喜許稠爲世宗朝三公 又配享于 朝庭 祖諱自準 通政大夫黃海道觀察使 考諱末平 宗親府典籤 典籤之子鎰 早歷清顯 官至吏曹判書 望中宗己卯間 士林以清望推之 進爵典籤公 議政府左參贊 夫人幼 養于外王母 即左議政翼平公權擘夫人也 以弘治戊申歲 歸于吳氏

夫人聰明精敏 曲達女工 雖幼時細微之事 無不記其年月 羅原不事營產

夫人四十二而寡 喪祭無所闕 教養婚嫁 咸盡其宜 營貲買田 累倍舊業

夫人 生三男三女 男謙 嘉靖壬辰登第 今以嘉善大夫襲祖勳封 錦陽君 誦進士 諱生員 長女適藝文館檢閱鄭光胤 次適泰川縣監柳健 次適甑山縣監愼弘濟 季先夫人而早歿 錦陽君爲養 南平 南原 潭陽 全州 以至光州 甲寅五月十九日戊午 夫人以疾卒于任所 享年八十有二

夫人從養五邑 以二三女僕自隨惟事紡績 未嘗有一毫非義之念 精神志慮 無間老壯

是年九月十九日 葬于羅州聳珍山西麓 羅原君塋域之東 艮首坤向之原 銘曰 嶽降生神 台鼎以世 吏部克纘 增光于裔 碩人之歌 奚獨專美 配賢毓德 以昌乃祉

河西 金麟厚 撰



대중회에 적극 참여 합시다



부회장 오기선

대중회가 창립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중회의 창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종원 여러분께 그간의 많은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대중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나주오씨 선조님과 각 문중의 내력 등 많은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대중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만나 뵙지 못했던 많은 종친님들과도 절친하게 지내면서 정담을 나누게 되는 등 여러 모로 좋은 점이 많아 개인적으로 대중회에 참여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오문羅州吳門은 한핏줄입니다.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유대紐帶를 공고히 한다면, 우리 대중회는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현재 대중회의 모습은 미래 대중회 모습의 거울입니다.

모든 종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마음가짐으로 대중회의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는 종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중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중회에 대하여 다소 서운하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로써 접어주시고, 대중회가 더욱 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회의 종훈宗訓, 즉 조상을 높여 소중히 여기는 숭조崇祖, 서로 친하여 화목하는 친목親睦, 정성스럽고 참된 성실誠實, 남을 위해 자신의 힘을 바치는 봉사奉仕를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무위원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 모두는 항시 종훈을 실천하면서 종친 상호간 친목의 외연外延을 넓히고 내실內實을 다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대중회는 어느 타 성씨 대중회 보다도 훌륭한 종친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직필直筆과 곡필曲筆 사이



홍보부장 오종문

1.

옛날 훌륭한 역사가들의 역사 기술 태도는 대단히 엄정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동호의 곧은 붓’이란 ‘동호직필董狐直筆’ 이야기가 나온다. ‘권세에 아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다’는 비유로 사용되는 고사故事로 ‘직필’이라고도 줄여 쓴다.

또 사마천이 지은 『사기史記』 「유림전儒林傳」에는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계(務正學以言 無曲學以阿世)’라는 말에서 비롯된 ‘곡학아세曲學阿世’란 고사가 나온다.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다르게 써 세상에 아부한다’는 뜻으로 ‘곡필曲筆’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한말의 대표적 시인이자 역사가인 황현黃玹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당시의 과거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곡필曲筆은 천주天誅요 직필直筆은 인주人誅”라고 했다. ‘곡필은 하늘(역사)에 베이고 직필은 사람에게 베인다’는 뜻으로, 왜곡된 글은 하늘의 벌을 받지만 직설적인 글은 사람의 벌을 받는다고 했다.

직필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고, 곡필이란 사실을 돌려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직필은 당대에는 외롭지만 후세에 영광을 쓰는 글이요, 곡필은 당대에는 건설적이라 하여 대접받지만 후세에 빈축을 사는 글을 말함이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조선왕조 오백 년 역사의 상세한 기록 유산물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이유는, 당대의 권력자를 미화하고 입맛에 맞게 쓴 기록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격한 사법史法에 의한 사실 기록이라는 실록의 진실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중에 ‘실록’이 아닌 ‘일기日記’로 기록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모두 반정反正 때문에 강제 퇴위되어 죽은 후에 붙여지는 묘호도 받지 못한 왕들로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은

조선시대에도 천 년을 내다보고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우고, 고치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라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기에는 그대로를 가공하지 않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곡필의 화禍는 참으로 무섭다. 특히 한 번 활자화된 왜곡된 기록의 위력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 나주오씨 씨족의 진용을 흔들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두렵다. 때문에 역사는 물론 씨족의 역사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올바르게 담아야 한다.

2.

우리 나주오씨羅州吳氏 가문家門은 지난날 나주의 명문名門 8대 성씨姓氏(오吳, 양梁, 임林, 박朴, 유柳, 나羅, 홍洪, 정鄭)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양반 가문이다.

오늘날 민주民主·평등平等 사회에서 구시대의 가문의 등급과 출생 신분을 논論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선조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명문名門의 전통傳統과 품격品格’은 이 시대에도 유지·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후손들에게는 있다.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상님께 결례나 죄를 짓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이를 묵과하여 방치해서도 안 된다.

나주오씨의 종사宗史에 밝으신 오성근吳成根·오항식吳恒植 씨 등이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의 비妃인 장화황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의 부친父親 다련군多憐君을 ‘나주오씨羅州吳氏 시조始祖’라 하고, 고창高敞 참의공參議公 문중門中 선산先山에 비석을 세웠는가 하면, 나주오씨 족보에도 시조를 다련군으로 정립定立하겠다는 내용의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중용中庸』의 첫 구절에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요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요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니라”고 했다.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것을 일컬어 성性이라 하고, 그 성을 잘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하며, 그 도를 잘 닦아나가는 것을 교教라고 한다”고 했다.

이는 세상만사世上萬事 그 본성을 존중하고 순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성씨 가문의 시조를 정립하고, 보계譜系를 수정하는 일도 족보 고유의 정체성正體性和 수보준칙修譜準則, 즉 보법譜法을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족보는 특정 성씨 가문의 한 할아버지 소생 자손들을 기록하여 혈통 관계를 나타내는 서책書冊(『족보족유록族譜則惟錄, ‘일조지소생자손이시혈통一祖之所生子孫以示血統’])이다. 그러므로 나주오씨 족보의 시조는 마땅히 족보에 수록된 자손들의 직계 선조이어야 하고, 수록된 자손들은 시조의 소생, 즉 직계 자손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장화왕후 아버지 다련군은 서기 900년 전후에 생존했던 인물로서 나주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오씨 가문(고려 중엽인中葉人 중시조中始祖 오숙규吳淑珪 자손 가문)과 선세先世 동일同一 가문 출신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 당시(서기 900년경) 나주 지역에 세거世居한 오씨 가문은 이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호족豪族이었으므로, 다련군이 오숙규 선조님의 직계 선조인지 방계傍系 선조인지 여부를 실증實證할 수가 없어 우리 선조님들은 나주오씨 최초의 족보인 『정묘보丁卯譜』(1747년)부터 다섯 번째로 편찬한 『신유보辛酉譜』(1981년)를 발간하면서 장화왕후 부친 다련군을 나주오씨 족보의 보계편譜系篇에 선조로 등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련군이 나주오씨의 직계 선조라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출신 가문에 의한 신분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던 조선시대에도, 다련군이 단지 역사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 명성을 무릅쓰고자 족보에 선조 또는 시조로 등재하는 등의 조작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오늘날 21세기 평등사회에서 직계 선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다련군을 나주오씨 시조로 추대하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빛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일까? 이러한 행위는 보법譜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중조中祖 오숙규 선조님 및 1세世 중랑장中郎將 오언吳偃 선조님 이하 대대손손을 졸지에 다련군의 직계 자손으로 바꾸어 버리는 폭거이며, 후손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다.

어쩌다가 나주의 명문인 우리 가문이 시조를 차용借用하여 모자 쓰듯이 모계冒系(보계譜系를 거짓으로 꾸며냄) 자손이 되려하는가!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3.

조선 역사에서 왜곡된 역사서 편술이 있을 때마다 큰 사회士禍가 있었다는 사실을 거울삼아, 우리 후손들은 나주오씨 미래 세대를 위해 바른 씨족의 역사를 기술해야 한다. 선조나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씨족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한 점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후손들에게 우리 씨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씨족의 역사를 전해주는 것은 선조님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 오류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공자孔子도 “잘못을 저지르면 고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고 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자체라기보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잘못이라고 한다(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고 했다.

또한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재상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몰락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관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천백 년 뒤까지 남게 할 수도 있고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썼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류는 발생한다. 물론 오류를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직필을 첫 번째 덕목으로 내세운 이유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럼에도 예단하여 양심까지 농탕질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인간보다 못한 새들도 좌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다. 그것이 우주와 생물의 생존 원리이다. 음陰과 양陽이 조화를 이뤄 세상을 만들어가듯, 종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은 머리를 맞대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난제難題라도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오래 날 수 있을 것이다.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대중회, 종사에 대한 편협된 사고를 뛰어 넘어 오직 후손을 위한 참된 역사를 남겨주기 위해 직필을 정도正道로 삼아야 한다.

선조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며 살얼음 위를 걸어가듯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조상님이나 후손들에게 왜곡된 씨족의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붓의 무거움을 느낄 것이며, 그 붓으로 쓴 역사는 길이 빛날 것이다. 직필과 곡필 사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직필을 견지하고 곡필을 경계한다는 끈은 마음가짐을 가진 옛 사관史官들의 참된 지혜를 배운다.

나주오씨
무안務安
몽탄夢灘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思想



錦樵家門 代表 吳榮均

1. 들어가면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육십갑자 중 34번째에 속하는 정유에서 10간의 ‘정丁’은 오방색 중 붉은 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12간지 중 ‘유酉’는 닭을 의미하므로 올해는 붉은 닭의 해가 된다. 화재和齋 변상벽卮相璧의 〈모계영자도母鷄領子圖〉닭과 병아리 그림)는 어미 닭과 병아리로부터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인간에게 예지·여명·깨우침의 의미를 주고 있다. 닭은 풍수지리 지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유곡酉谷(닭실마을)은 500년 이어온 안동권씨 충재沖齋 권벌權機의 일가가 이룬 집성촌이다. 뒷산은 금닭이 알을 품는 형상(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고, 작은 논과 흐르는 내를 두르고 있는 앞산은 수닭이 날개를 펼쳐 알을 지키는 모습이다. 『택리지擇里志』를 쓴 이중환은 안동 내앞마을과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이곳을 영남의 4대 길지로 꼽았다. 특히 유곡은 전란의 피해가 없는 십승지지十勝之地이다.

풍수지리설은 산천山川과 수로水路의 모양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켜 설명하고, 기氣를 모아 흠어지지 않게 하며, 기가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혹자는 평생 풍수지리설을 믿고 “신神이 하는 일을 빼앗아 하늘이 부여한 운명을 고칠 수 있다(신공가탈神工可奪 천명가개天命可改)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인으로써 하늘의 뜻을 거부(逆天)하지 못하고(順天) 무등산에서 토끼가 달을 바라보고 있는 옥토망월형국玉兔望月形局의 명당明堂을 찾아 헤매며 금붕어를 키우면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다(금옥만당金玉滿堂)고 믿으면서 정원 연못에 금붕어를 키우고 있다.

필자는 금초가문의 봉사손奉祀孫으로서 올해는 태봉산·경양방죽을 매립하여 화룡승천化龍昇天이 좌절되었다는 광주光州를 떠나 나주오씨羅州吳氏 무안務安 몽탄夢灘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思想 자료를 수집하여 나주오씨 종사宗史에 남기려고 한다.

2. 무안務安 몽탄夢灘 풍수지리 사상

고려高麗 왕건이 후백제를 공략하다가 세궁역진勢窮力盡하여 현 나주 동강면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영산강이 막혀 건너지 못하고 있던 중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눈앞에 호수는 강이 아니라 여울(灘)이니 빨리 건너라 하니 말을 타고 현재의 몽탄으로 건너와 견훤군甄萱軍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하여 몽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노령산맥蘆嶺山脈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 연정산淵澄山과 승달산僧達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남으로 영산강이 흐르고 있으므로 이 물을 이용하여 예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지고 있다.

① 승달산僧達山 호승예불형好僧禮佛形

무안 몽탄의 승달산(317미터)은 백두대간이 서남부 마지막 지류로 남도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눈으로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훈훈한 훈풍을 느낄 수 있는 명산으로 유명하다. 승달산의 유래는 신라 성덕왕 24년(725) 서역 금지국金地國 정명淨明淨 스님이 처음으로 법천사法泉寺를 창건했고, 뒷날 고려 인종(1122년) 때 원나라 임천사臨泉寺 원명국사圓明國師 징엄澄嚴(1090~1141)이 중창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제자 500명이 한꺼번에 깨달음을 얻었다고(達道)고 하여 승달산이라 하였다.

원명스님은 꿈에 백운산에 있는 총지사總持寺에서 소 한 마리가 나와 이 암자에 이르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보았더니 계곡 바위에 소 발자국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 절을 지어서 목우암牧牛庵(법천사 말사 말사末寺)이라고 이름을 붙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 山川條, 金城誌). 풍수風水를 소개하고 있는 각종 비결서의 통례에 따르면 호남 혈 가운데 제1은 무안 승달산 도학군자지道學君子之地이고, 제2는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¹ 도인지사道人之士의 땅이라고 우선 순위를 못박고 있다. 승달산은 높지 않은 산이지만 일찍부터 노승이 불공을 드리는 호승예불好僧禮佛(노승예불老僧禮佛 노승집념老僧執念)의 혈처로 명명되었다. 승달산의 좌청룡우백호는 ‘활 궁궐’ 자에 해당하는 태극지혈太極之穴이 나란히 형성돼 있어 49대에 걸친다는 영화가 두 번 이어지는 천년 영화榮華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요지이다.

1. 회문산回文山: ① 살아서 부안扶安, 죽어서 순창淳昌. 중국의 유명한 풍수학자 두사충杜思忠은 회문산산형도回文山山形圖에서 삼도의 기가 뭉친 상서로운 땅 순창의 회문산에 19개의 대혈이 숨어 있다고 하였다. 그 중 회문산의 큰 힘이 모아지는 꼬리 부분인 선인위기형仙人圍基形(다섯 신선이 둘러 앉아 바둑을 두고 있다)과 목마른 말이 물을 찾는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을 들 수 있다. ② 음택陰宅은 순창 회문산, 양택陽宅은 정읍 평사낙안平沙落雁. 평사란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와 앉은 형국으로, 평사낙안은 묘를 쓰는 음택자리가 아니라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양택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소문난 양택 자리는 이북 원산에 있는 사치혈死稚穴(죽은 평을 나무에 걸어 놓은 형국)과 정읍 산외에 있다. 전라감사 이서구는 평사낙안은 3개(상대上堡—도학군자출생道學君子出生, 중대中堡—천하문장출생天下文章出生, 하대下堡—천하갑부출생天下甲富出生)의 집터가 있다고 예언하였다.

② 죽전동竹田洞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

해제반도海際半島(우백호右白虎 우수구右水口) 월출산月出山(좌청룡 외벽)이 좌우로 시립한 호남 명혈 승달산지맥僧達山地脈에는 봉황鳳凰이 돌아오는 ‘죽전동비봉귀소형竹田洞飛鳳歸巢形’의 혈처穴處(입수入首+선익蟬翼+전순氈髻)가 있다. 죽전은 마을 뒷산에 봉황이 날아왔다 하여 ‘봉정산鳳頂山’이라 불렀다. “봉은 오동나무에 길들이고 대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봉비오동불서鳳非梧桐不棲) 대나무가 많이 심어졌고(비죽실불죽非竹實不竹), 이로 인하여 대나무 마을이라하여 죽전이라 불렀다. 낚시 명당인 어옹수조형국魚翁水釣形局의 몽탄 봉산鳳山에는 칠송공파七松公派 금초가문錦樵家門이 있는데, 중심 선조인 오광수吳光洙(1843~1925)는 고종 11년(1874) 갑술문과에 급제한 한말 문신이다. 그는 모친(선산김씨善山金氏)을 승달산 지맥 죽전동 비봉귀소형 혈처에 안장하기 위하여 1899년 한양조씨 사당을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매장하면서 98대에 이르도록 문무백관(98대 향화香火)을 발원하였으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합격자 하나 배출하지 못하고 의사만 양산하였다. 그리고 당사자는 1925년 물고기가 물결을 희롱하며 노는 유어농파형遊魚弄波形 혈처에 매장되었으나 생존시 55세에 봉사손을 얻어 선일조善一祖 장손 성근成根를 환본하는 시련을 당하였다.

3. 권언勸言—첨제원건尖齋圓健

동행하였던 풍수지리학자風水地理學者들은 용진산의 붓끝 같은 석봉石峰과 토봉土峰에서 풍수지리 자료를 수집하고, 〈나주오씨대동보羅州吳氏大同譜〉에서 묘도문자墓道文字(행장行狀, 묘갈명墓碣銘)을 검토한 후 나주오씨 선조님들을 첨제원건尖齋圓健²(붓끝의 미덕)을 갖춘 어르신들로 평가하여 나주 오씨 후손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2. 첨제원건尖齋圓健: 좋은 붓의 네 가지 덕德. 붓이 날카롭고 흩어지지 않아야 하는 첨尖, 털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제齊, 원만한 모양을 가지고 회전이 잘되어야 하는 원圓, 휘어진 털이 금세 똑바로 돌아오고 수명이 오래 가야 하는 건健이다. 첨: 붓끝이 뾰족해야 한다(첨지필봉요첨예尖指筆鋒要尖銳), 제: 붓이 퍼질 때 가지런해야 한다(제지필봉발개날편齊指筆鋒撥開捺扁 필모요제筆毛要齊 몰유삼차장단沒有參差長短), 원圓: 붓털 윗부분이 팽창하고 요철없이 잘매여서 둥글어야 한다(원지정개필두요원휘포만圓指整個筆頭要圓揮飽滿 몰유요철沒有凹凸), 건: 붓털이 탄성이 있어 획을 긋고 난 뒤 세워져야 한다(건즉지필모유탄성健則指筆毛有彈性).

나주오씨 족보 발간 주요 내용

1. 정묘보丁卯譜 〈최초 발간〉

발간연도	1747년 (영조 23년)	
권수	전 3권 (상 · 중 · 하)	
주요 목차	• 족보 서문 • 오씨래동문적기 • 금양군 소록 • 태인공 회길 소기 • 내한공 회도 소록 • 이산현감 대경 소록 • 나성군 공신록功臣錄 및 교지敎旨 등 각종 지장誌狀	• 족보 범례凡例 • 족보 편차 천자문 배자 목록 • 나주 연혁기 • 자손록(각록各錄, 별부別附, 별록別錄, 추부追附 포함) • 보첩인출시종기 • 족보 발문
서문을 쓰신 분	13세世 시정時鼎 (호: 죽헌竹軒)	
발문을 쓰신 분	12세世 대경大經 (호: 만포晩圃, 이산현감尼山縣監)	
특기 사항	• 보계편에 오숙규吳淑珪, 오경연吳慶延, 오양수吳良秀, 오광좌吳光佐 네 분의 선조님을 기록하고 있으나, 세대世代 이음이 불명하여 그 후손인 고려 말엽 중랑장공 오언吳偃 선조님을 '1세世'(기세조起世祖)로 정립하였음 • 송은당공파(進士 卓眞派) 자손록을 원보 뒤에 각록各錄으로 등재하였음 • 6세世를 기준으로 계파를 분류하였음 — 암파巖派, 송파崧派, 세호파世豪派, 세준파世俊派, 세린파世麟派, 세봉파世鳳派, 세구파世龜派, 세훈파世勳派, 세익파世翊派, 명복파命福派	

2. 경오보庚午譜 〈제2회 발간〉

발간연도	1810년 (순조 10년)
권수	전 4권
주요 목차	• 족보 서문 • 구보 서문 • 족보 범례凡例 • 세보 목록 • 자손록 • 별록別錄(진사공 탁진과) • 부록附錄(시사부집, 명곡공 통계 소기, 양평공 녹훈·교지·훈호, 행장·묘지·묘갈·서명·묘표 등 장명狀銘) • 구보 발문
서문을 쓰신 분	14세世 정원鼎源 (호: 만파晩葩, 대사간大司諫)
발문을 쓰신 분	발문 없음
특기 사항	• 보계편譜系篇에 제일 먼저(수선首先) 등재된 오숙규吳淑珪 선조님을 ‘중조中祖’로 정립하였음 • 4세世를 기준으로 계파를 분류하였음 — 부사공府使公 신교파愼交派 — 금성군錦城君 신중파愼中派 — 학생공學生公 신의파愼儀派 • 선조님들의 행장·묘지·묘갈·서명·묘표 등 장명狀銘을 수록하였음

3. 임진보壬辰譜 〈제3회 발간〉

발간연도	1892년 (고종 29년)
권수	전 8권 (지장록 : 상 · 하권, 자손록 : 1~6권)
주요 목차	• 족보 서문 • 구보 서문(정묘보丁卯譜, 경오보庚午譜, 정미보丁未譜, 정사중간보丁巳重刊譜) • 구보 발문(정묘보丁卯譜) • 명곡공 통계 소기 • 오씨동래사적 • 시사부집 • 나주 광산사 3현 사적 • 창평 도장사 8현 사적 • 족보 범례 • 향렬자 정규(19세世 洙洙~29세世 淳淳) • 자손록 • 장지狀誌(양평공 녹훈·교지·훈호, 행장·묘지·묘갈·서명·묘표) • 족보 발문
서문을 쓰신 분	17세世 승규升圭(호: 덕일재德一齋)
발문을 쓰신 분	17세世 사규士圭 · 원규元圭 19세世 계수繼洙 18세世 준선駿善
특기 사항	• 송은당公松隱堂公 탁진파卓眞派는 수단을 제출하지 않았음 • 4세世를 기준으로 계파를 분류하였음 — 부사公府使公 신교파愼交派 — 금성군錦城君 신중파愼中派 — 학생公學生公 신의파愼儀派

4. 신사보辛巳譜 〈제4회 발간〉

발간연도	1941년 (일제강점기)
권수	전 11권
주요 목차	• 족보 서문 • 구보 서문(정묘보·경오보·임진보) • 자손록 • 구보 발문(정묘보·임진보) • 족보 발문 • 나주오씨세보 기사記事(오씨동래사적, 홍룡동 사실, 시사부집, 명곡공 통계 소기, 족보 범례, 향렬자 정규〈21세世 열렬~50세世 화和〉, 사적事蹟〈세조·선조·인조실록, 나주 광산사 3현 사적, 양평공 녹훈·교지·훈호 등〉)
서문을 쓰신 분	18세世 필선彌善 (호: 만헌晩軒)
발문을 쓰신 분	19세世 동수東洙, 20세世 용근龍根, 17세世 대선大善 20세世 연근演根, 18세世 진선辰善
특기 사항	• 2세世를 기준으로 계파를 분류하였음 — 송은당公松隱堂公 탁진파卓眞派 — 예빈시정公禮賓寺正公 계진파季眞派 — 사정공司正公 경진파敬眞派 • 2세世 탁진卓眞·계진季眞 형제의 서차序次를 정립하였음 • 사정공과와 최초 합보合譜하고, 선조편에 철좌哲佐 사정공과 선조님을 추가하였음 • 선조님들의 행장·묘지·묘갈·서명·묘표 등 장명狀銘은 등재하지 않았음

5. 신유대동보辛酉大同譜 〈제5회 발간〉

발간연도	1981년
권수	전 5권
주요 목차	• 족보 서문 • 선대 유적(사진) • 세계 분파도 • 대동보 편찬 목차 • 구보 서문(정묘보·경오보·임진보·신사보·부사공파 정축파보) • 오씨래동문적기 • 족보 범례 • 항렬자 정규(21세世 렬烈~50세世 화和) • 사적事蹟(세조·선조·인조실록, 나주 광산사 3현 사적 등) • 지장편(양평공 녹훈·교지·훈호 등) • 행장·묘지·묘갈·서명·묘표 등 장명狀銘 • 자손록 • 편찬위원회 임원록 • 편찬 후기(족보 발문)
서문을 쓰신 분	21世 준섭 濬燮 (편찬위원회 회장, 재경나주오씨화수회 회장, 육군 대령 예편)
편집후기(발문)을 쓰신 분	21世 항섭 恒燮 (편찬위원장, 중등학교 교장, 한학자)
특기 사항	• 족보 명칭을 최초로 “대동보大同譜”로 표기하였음 • 실제 운영 문중 기준으로 계파를 분류(20개 계파로 구분)하였음 1) 송은당공 松隱堂公 탁진파 卓眞派 2) 백은공 栢隱公 경조파 敬祖派 3) 송은공 松隱公 경친파 敬親派 4) 죽은공 竹隱公 경장파 敬長派 5) 남평공 南平公 언후파 彦厚派 6) 파성공 坡城公 언관파 彦寬派

특기 사항

- 7) 칠송공七松公 인파訥派
 - 8) 공조참판공工曹參判公 언린파彦麟派
 - 9) 공조참의공工曹參議公 희량파希亮派
 - 10) 도암공韜菴公 희길파希吉派
 - 11) 도림공道林公 이구以久 장탄파長灘派
 - 12) 명곡공明谷公 희도파希道派
 - 13) 석문공石門公 이익파以翼派
 - 14) 송계공松溪公 언인파彦仁派(참봉공과參奉公派)
 - 15) 지봉공芝峰公 언지파彦智派
 - 16) 난봉공蘭峰公 언례파彦禮派
 - 17) 상호군공上護軍公 세익파世翊派
 - 18) 정언공正言公 자형파自澄派
 - 19) 내금위공內禁衛公 신의파愼儀派
 - 20) 사정공司正公 경진파敬眞派
- 사정공과 오제吳倬 선조님을 사정공과 1세世로 정립하였음
(기세조起世祖를 추가하여 기존의 1세世 오언吳偃 세계世系와 2개 세계世系로 편찬하였음.)
 - 미혼 여자들도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등재하였음
— 종전에는 여자(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등재하지 않았으며, 기혼 여자들에 한하여 배우자(남편)의 성명과 성관姓貫, 그의 자녀를 등재하였음



봄날의 족보族譜

오 종 문

역사만을 기억하는 내 족보의 무게보다
이 땅에 뼈대 세운 한 가문의 자존감이
오늘은 제기로 앓은
지조 높은 봄날이다

봉분 속 잠든 이의 전 생애를 돌에 새긴
간절한 그 이력의 극진한 삶 읽어낼 때
봄빛은 말미를 두고
필사본을 쓰고 있다

여러 번 관통 당한 험거워진 중년 사내
바닥째 도굴되는 다음 생의 그 어디쯤
북게 핀 참꽃 세거지世居地
세 들어 살 봄날이다

부사공(諱 愼交) 13대손 오재영吳在英 건국포장 추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17. 2. 27.(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일(수) 제98주년 3·1절을 맞아 '한국혁명 여성동맹 6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등 독립유공자 75명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 중 만주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은 부사공(諱 愼交) 13대손 오재영이 독립유공자(서훈자)로 선정,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주요 공적으로는 '1913년 중국 훈춘에서 한인학교 설립', '1916년 순치동제회 회원', '1922년 훈춘에서 대한신민단 훈춘지단 통신부장 활동' 등으로 외현손인 한선비(여, 61세) 씨가 수상했다.... 편집자 주

□ 건국포상(18명)

고영대 高永澤 (국내항일)	박영진 朴英鎭 (국내항일)	이항근 李恒根 (국내항일)
공원규 孔元圭 (국내항일)	오재영 吳在英 (만주방면)	임덕문 林德文 (3·1운동)
김광명 金光烈 (국내항일)	유동미 劉東伊 (의·병)	장윤호 鄭允興 (3·1운동)
김시종 金時宗 (국내항일)	유명식 劉命實 (3·1운동)	천학서 千鶴書 (3·1운동)
나병렬 羅炳烈 (국내항일)	이임배 李林培 (국내항일)	최선택 崔善澤 (3·1운동)
박복래 朴福來 (3·1운동)	이치원 李致完 (미주방면)	현용록 玄龍祿 (3·1운동)

안중근의사 '이토저격' 직전행적 찾았다



일문 - 2015.02.15 (00:00:00)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1909년 10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의거를 치르기 직전 한달 이상 지낸 (吉林省 琿春縣) 진방(鎭)촌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는 안의사가 1907년 북간도로 건너가 거사하기까지 2년간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의사는 1908년 4-6월 훈춘시 진방촌 인근 취안태(寬甸)촌에 머문 사실이 밝혀져 훈춘시에서 유적지를 세우기도 했으나 거사 직전 행적이 드러나기는 이렇지 못했다.

중국 국가민족사무원회소수민족 담당 부처인 민족민족국에서 일하다 현재 베이징(北京)에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금순(申金順, 65)씨는 15일 안의사가 당시 함일운동들 열치면서 훈춘시 장신(張新)진방촌에 있던 자신의 종조부(申壽南) 집에 자주 들렀다고 증언했다. 신씨는 2001년 작고한 큰고모(신복산)와 함께 세상을 떠난 종재(申壽南)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의사는 거사 직전 이 마을을 개척한 유지이며 숭신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을 한 오재영(吳在英)의 집에서 한달간 머물며 관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오재영의 증손녀로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오정덕 할머니(87)는 "안의사는 집에 찾아와 종조부와 지도를 보며 토의곤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신씨에게 보내왔다. 안의사가 신씨의 종조부집을 자주 찾은 것은 이 집안의 셋째아들(申壽南) 1999년 건국훈장 독립장 수상이 독립군인 대마(대마의 조모)가 안의사와 밀가인 손을 안씨로 독살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이라고 신씨는 설명했다.

신씨의 조모는 "안의사가 어느날 집에 찾아와 정신을 먹은 뒤 굴장 패나려 해 말렸으나 굴한 일이 있어 꼭 가야 한다며 러시아령 크라스노보르 떠났는데 열흘도 채 안돼 의거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신씨는 전했다.

훈춘지역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연변대 김준성 교수는 "안의사의 거사전 2년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 석달간 연변에 머문 것은 분명하며 그 중 진방촌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그곳에 머문 게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신문(北京新聞) 2015.02.15 (00:00:00)〉

의 집에서 한 달 간 머물며 권총을 지원받았다"고 밝히면서 "오재영의 증손녀로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오정덕 할머니(87)는 '안 의사는 집에 찾아와 종조부와 지도를 보며 토의하곤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 '이토 저격' 직전 행적 찾았다」(경향신문 2005.08.16. 기사 참조)

심금순 씨는 1999년 8월 15일 광복 54주년 기념일에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추인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신우여 선생의 종손녀로, 1965년 경신의 항일투쟁사 발굴에 참여했으며, 1990년부터 가족사부터 캐기 시작, 앞4세대가 묻혀 있는 고향 금당촌 항일투쟁사 발굴에 집념해왔다.

다음은 신금순 씨가 「안중근 의사와 훈춘 경신-안중근 의사 순국 101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길림신문(www.jlxcwb.com.cn)에 특별기고한 내용 중 오재영 관련 기사만 발췌해 싣는다.

"1910년생인 큰고모님은 '우리 조부님이 한말 기병출신으로 의병이었고, 셋째 삼촌 신우여가 독립군이였으며, 조모님이 순흥안씨여서 친척관계로 늘 드나드셨다더라'고 하시었다. 1914년생인 둘째 백부님도 '안중근도 천주교인이고 우리 집도 다 천주교를 믿고 있었으므로 늘 우리

현재 베이징(北京)에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금순(申金順, 65·여, 조선족) 씨에 의하면, "안 의사는 거사 직전 이 마을을 개척한 유지이며 숭신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을 한 오재영



안중근



오교원



신우여

집에 래왕하셨다더라'고 보충하시면서 '경신에서 대단한 분은 금당촌 원로이고 금당학교 학감인 오교원 선생인데 그분 역시 종교인으로서 독립군의 총무이며 독립신문의 기자라더라'고 알려주시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금당촌 출생인 유일 선생(경신독립군 두령 유문관 선생의 종손)은 일찍 한국 모 비공개 간행물에서 안중근 의사가 할빈 거사 직전 한 달 나흘 간 훈춘에 머무셨다는 내용을 보신 적 있다면서 금당촌 오교원 댁에 한 달 나흘간 머무셨고 오교원으로부터 권총을 사는 등의 경제적 부조를 받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하시었다. 유일 선생님이 추측한 시간, 장소는 필자의 기억과 맞아떨어졌다.

‘증조부님(명함)은 오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근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증조부님과 같이 말씀하시며 지도를 보시며 계셨다는 것은 제가 잘 기억합니다. 저의 집도 독립군 일가인데 금당촌은 참 애국투사들이 많았던 곳으로 압니다.’

2002년 8월 오교원 선생의 증손녀 오정덕 씨가 한국 서울에서 부쳐온 편지 내용으로서 금당마을 오교원 댁에 한 달 나흘 머무셨다는 믿음직한 증거이다.”

“안중근 의사 략력에 의하면 안 의사는 ‘1907년 국외에서 의병부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연해주로 갔으며 그 곳에서 리범윤을 만나 의병부대의 창설을 협의하는 한편 연해주의 한인촌을 돌아다니며 독립전쟁과 교육 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병을 모았다.’ 이 자료로 보면 연추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항일의병부대는 리범윤, 안중근 등 의병장과 추풍의 개척 원로 최재형에 의해 1907년에 창설되었다. 이로부터 추풍일대와 산 하나를 사이 두고 있는 금당촌을 중심으로 한 경신항일독립군은 안중근 의병장과 금당촌 개척 원로이고 애국계몽운동자인 오교원, 한말 의병출신인 신정호 등에 의해 역시 1907년에 창설되었다고 보아진다.”

“경신 금당촌 개척자들은 개척 초기 애국계몽운동자 오교원 선생의 지도 하에 한학서당과 신학(新學) 학교를 세워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한학서당의 훈장은 평양 만경대학원으로 나간 김병국 선생님의 조부님으로서 역시 애국계몽운동자였고 신학교의 학교장은 오교원 선생이었다. 1910년 전후 마을 세대수가 급격히 늘어나 큰 200세대로 되자 초옥 교사가 학생들을 더는



수용할 수 없게 되어 교사를 새로 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교원 선생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학교를 현대식으로 짓고 숭신고등학교라 이름 지었다. 숭신고등학교는 경신에서 하나뿐인 6년제 고급소학교로서 초급 소학교를 졸업한 타촌 학생들도 와서 공부했다고 한다. 숭신학교는 설립되면서부터 교회당의 간판을 걸고 독립군학교로 경영되었고 문무를 겸비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우여 선생의 장자 신병진의 수기에는 ‘숭신학교 고등반 졸업생 17명을 김좌진 부대에 호송했다’는 기록이 있다. 숭신학교 학감으로는 오교원 선생님, 교원들로는 오수현, 박경하, 한빈, 강정빈, 한창권 등 독립군들이었다. 숭신학교가 설립되자부터 독립군 학교로 경영된 것을 보면 안중근의사가 독립군을 창설하면서 금당촌 오교원 선생과 합동하여 세운 독립군 학교라고 인정된다.”

“1919년 3·1운동 후인 3월 28일 구사평에서 경신 8사 4000명 독립선언선포대회가 열리었는데 그 대회를 조직한 참모부 소재지가 숭신학교였다. 그 정황은 신병진 수기와 『한국독립운동사』 3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회 이후 경흥현

병대가 두만강을 건너와 1만 장의 태극기로 채웠던 구사평 8간집을 불살랐고 마을을 분탕친 후 그 주모자로 금당촌의 오교원·신정호, 구사평촌의 서치복 등 4명을 체포하여 경흥경찰서에 호송하였다. 호송 도중 서치복은 두만강 나루배에서 배를 갈라 자결하는 것으로 항의를 표시했고, 남은 3명은 경흥경찰서에서 갇은 혹형을 당한 후 서울 서대문감옥에 인도되어 3년 옥고를 치렀다. 1920년 경신년 참변에서 일본 토벌대는 회룡봉 독립운동자 한규량, 김용연, 박인권 등 7명을 붙잡아다 금당 사람들 앞에서 조리돌림하면서 갇은 모욕과 혹형을 다한 후 숭신학교에 가두고 참혹하게 창으로 찢어 반죽음을 만든 다음 학교 건물과 함께 불살랐다. 그리고 금당촌 독립군 신우여, 오교원, 오수현, 김봉세, 유문관, 김병국, 김병권, 박경하 등 아홉 집을 불살랐다.”

* 자세한 내용은 길림신문(www.jlcnwb.com.cn), 2011-03-25자 [특별기고] 안중근 의사와 훈춘 경신-안중근 의사 순국 101주년에 즈음하여/ 신금순 참조.

오성수 부회장 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지부 14대 회장에 취임



나주오씨대종회 부회장 오성수吳聖洙(금양군) 부회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광산생활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유림회원과 나주오씨 문중 종친 및 내외 귀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대 회장에 취임식했다.

윤기봉 광산구 부구청장, 김중채 광주시본부유도회장, 이종섭 모성회장, 이정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강박원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구의원, 오정균 나주오씨대종회 종무원장, 유복현 전 광산문화원장이 축사를 했다.

오승열 ‘행정고시 기술직 건축직렬’ 합격



오승열吳承熱(29세, 송은당공) 군은 2016년도 60회 행정고시 기술직 건축직렬에 합격했다. 오승준 군은 광주 지역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광역시 출자기관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인 오일근(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의 장남이며, 나주오씨대종회 오철수吳哲洙 고문의 장손자로, 현재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다.

오승준 광주광역시청 투자유치과 서기관 승진

오승준은 명곡공 문중 오현종 회장의 아들로, 2016년 7월 27일 광주광역시청 서기관으로 승진, 투자유치과장으로 재직중이다. 1980년 공직을 시작해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국무총리 표창, 청백리상, 민선 4·5기 시정구호제안 수상,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1993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2012년 서울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 학사)를 졸업하고, 2013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박사 과정에 재학중이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 2016. 07. 17. 오요근(내금위공) 차남 오태섭 군 결혼
- 2016. 10. 15. 오건열(석문공) 종무위원 장녀 오보람 양 결혼
- 2016. 10. 16. 오상균 오수산악회 장남 오종철 군 결혼
- 2016. 12. 17. 오경남(부사공) 부회장 장남 오전교 군 결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16. 03. 06. 오중열(석문공) 전 국회의원 부인(이정숙 여사) 별세
(오은열 호남본부장 형수)
- 2016. 03. 29. 오정희(석문공) 고문 별세(오형희 전 종무원장 만형)
- 2016. 09. 25. 오관수(송은당공) 부회장 부인 별세
- 2016. 10. 17. 오정렬(참의공) 고문 별세
- 2016. 11. 11. 오종문(참판공) 홍보부장 장모 별세

족보 상식 族譜常識

1. 족보의 기원 起原

‘족보(한 집안의 계통系統과 혈통血統의 관계, 한 족속族屬의 세계世系를 적은 책)’는 다른 말로 ‘보첩譜牒(족보로 된 책)’이라고도 하며, 그 효시嚆矢는 중국의 육조시대六朝時代에 왕실王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고려高麗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왕대종록王代宗錄』(18대 의종毅宗(1146~1170) 때 ‘김관의金寬毅’ 지음)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朝鮮 성종成宗 때인 1476년부터이며, 이때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가 처음 발간發刊되었다. 혈족血族 전부를 망라網羅한 족보는 조선 명종明宗때 편찬編纂된 〈문화류씨보文化柳氏譜〉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전해온다.

족보를 보면 서문序文(머리말)이 나오는데, 이는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 간행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글이며, 족보의 이름은 ○○譜(예를들어 정묘보丁卯譜, 경오보庚午譜, 임진보壬辰譜, 신사보辛巳譜, 신유대동보辛酉大同譜)라 하여 족보 간행년도의 간지를 따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본문에는 시조始祖와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시작하여 가로 1행(단)을 같은 대代로 하여 보통 5~6단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름자가 나오고 자字와 호號가 있으면 기록한다.

이어서 출생과 사망연도가 표시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夭折이란 뜻의 조요早夭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향년享年,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수壽라 하고, 방서란旁書欄에 기록한다. 시호諡號(사후 나라에서 공덕을 칭송하여 추증追贈하는 칭호)와 관직官職이 있으면 기록되고, 비필妃匹이라 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보통 배配 자 만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본관 성씨와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또한 묘소가 기록되는데 소재지와 방위方位 그리고 석물石物 등을 표시하며, 합장 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끔 출후出后·출계出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집으로 양자養子를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계자繼子 또는 계자系子라 기록되며,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옛날에는 여식女息(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대신 남편의 성명을 원용援用하고 남편의 본관 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 들어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남편,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2. 족보의 종류

- ①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 아래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본관本貫을 가지고 있는 씨족氏族 간에 종합綜合·편찬編纂된 족보. 다시 말해서 본관은 서로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宗族(동성동본同姓同本の 일가一家)이 함께 통합해서 편찬한 보책譜冊.
- ② 족보族譜·종보宗譜: 관향貫鄉을 단위單位로 하여 같은 씨족氏族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譜牒으로, 한 가문家門 역사를 표시하고, 한 씨족의 계통도系統圖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보첩.
- ③ 세보世譜·세지世誌: 두 개 파派 이상의 종파宗派가 합하여 합보合譜로 편찬한 보첩.
- ④ 파보派譜·지보支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派만의 계보系譜와 사적을 기록하여 편찬한 보첩.
- ⑤ 가승보家乘譜: 본인本人을 중심으로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直系 존속尊屬(자기의 윗대)과 비속卑屬(자기의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이름 자와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文獻.
- ⑥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血統關係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을 계통적系統的으로 나타내는 도표圖表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
- ⑦ 가첩家牒·가보家譜: 편찬編纂된 형태形態, 내용內容에 상관없이 동족同族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一家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
- ⑧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姓氏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 구실을 하는 것.
- ⑨ 기타: 현달한 조상의 세계世系를 명백明白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조상祖上 중에서 충忠, 효孝, 절絶, 의義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功勳을 수록한 것. 또한 환관宦官(내시)이 계보系譜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入養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家系를 보존保存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3. 족보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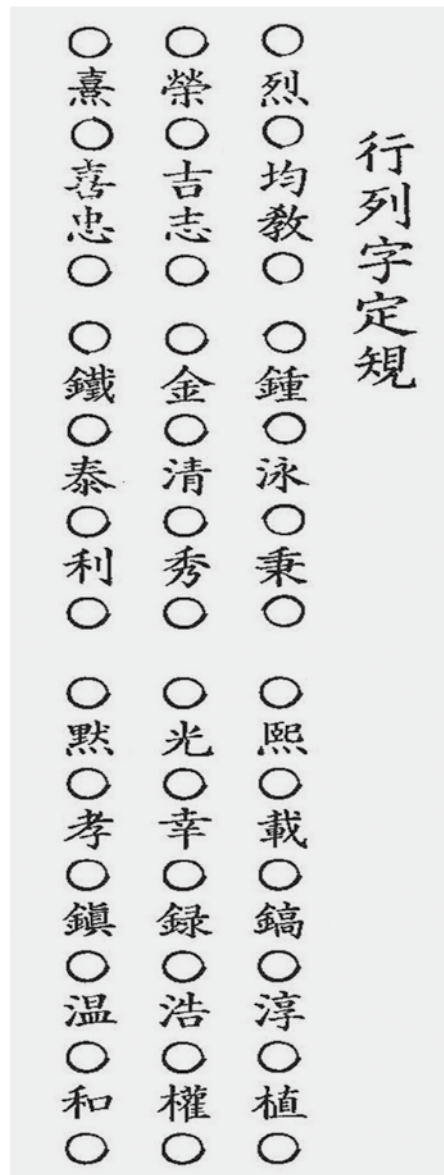
- ① 시조始祖: 시조는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祖上이다.
- ②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하以下에서 쇠퇴衰退한 가문家門을 일으켜 세운 조상祖上로서,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公論에 따라 추대된 조상이다.

- ③ 선계先系: 시조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다.
- ④ 세계世系: 시조로부터 대대代代로 이어가는 계통系統을 차례로 말하는 것이다.
- ⑤ 세世와 대代: 대와 세의 개념에 차이가 없다. 다만, 후손을 나타낼 때 현재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시조始祖부터 계산하는가, 시조를 제외하고 계산하는가이다. 엄밀하게 ‘몇 대’ 또는 ‘몇 세’라 고만 하려면 시조부터 계산된다. 그리고 ‘손孫’자를 붙이려면 시조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 시조를 1세世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라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代로 하여 올라가 며 계산하는 것을 대代라 한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 대조代祖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의 몇 대손代孫이라고 한다.
- ⑥ 자字와 호號: 지금은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다. 어렸을 때 부르는 이 름을 아명兒名이라 하고, 20세 성인成人이 되면 다시 관명冠名(자字)을 지어주었다. 호號는 낮은 사 람이나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하여 별도로 지어 불렀다.
- ⑦ 함衡과 휘諱: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衡字’라고 하며, 극존칭極尊稱으로서 ‘존 함尊衡’이라고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禮儀이다.
- ⑧ 항렬行列: 항렬이란 같은 혈족血族 사이에 세계世系の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門中の 법法. 항렬자行列字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血族, 같은 세대世代임을 나 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항렬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 십간+干 순順으로 쓰는 경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 십이지+二支 순順으로 쓰는 경우: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 나주오씨 항렬자 정규

〈임진보〉(1892년)에는 수(洙, 19世)부터 순(淳, 29世)까지의 항렬자가 정규되어 있고, 〈신사보〉(1941년) 및 〈신유보〉(1981년)에는 열(烈, 21世)부터 화(和, 50世)까지의 항렬자가 정규되어 있다.

세수	항렬자
21세	烈 (열)
22세	均/敎 (균/교)
23세	鍾 (종)
24세	泳 (영)
25세	秉 (병)
26세	熙 (희)
27세	載 (재)
28세	鎬 (호)
29세	淳 (순)
30세	植 (식)



〈나주(금성)오씨대종보〉 제19호 원고모집 안내

“대종회에서는 2018년 3월 정기총회 시 배포할 《나주(금성)오씨대종보》 제19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종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바랍니다.”

《나주(금성)오씨대종보》는 2000년 5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2017년 3월 26일 통권 제18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대종보大宗報는 종원 간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따뜻한 만남의 장입니다. 종친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조상과 자손의 역사를 잇기 위하여 나주오문羅州吳門의 문화, 인물 소개 및 유적지 탐방, 각종 제례행사 등의 내용을 담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알찬 대종보가 발행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 내용

- ① 선조의 위업을 소개하는 글
- ② 씨족사氏族史에 관한 연구 논문
- ③ 종친 간 친목 증진을 도모하는 글
- ④ 문중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소개하는 글
(충절·효열·예절·선행·학문 연구 등에 빛을 남긴 인물 소개. 특히 나주오문을 빛낸 청년층·장년층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적·재주·솜씨·소질 등)
- ⑤ 나주오문 집성촌集姓村을 소개하는 글
- ⑥ 각종 사적事蹟·사우·재실·비·묘 등을 소개하는 글
- ⑦ 각 문중의 위선사업爲先事業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글
- ⑧ 지역 종친회, 문중별 종친회의, 각종 모임 및 친목행사와 시제時祭 행사 소개글
- ⑨ 시·수필·답사기(기행문), 기타 종원 모두에게 유익한 상식·미담 등
(단,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마감일 및 접수처

- 원고 마감일: 2018년 1월 31일까지
- 원고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608호 나주오씨대종회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홈페이지: www.najuoh.co.kr | 전화: 02-2275-5574, 팩스: 02-563-5574
홍보부장 오종문 전화: 010-3214-7068, 전자우편: ibook99@naver.com

대중회 공지사항

“본관本貫을 나주羅州로 통일합시다!”

현재 나주오씨는 호적에 본관이 '나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금성錦城'으로 되어 있는 종친도 있습니다. 이는 나주의 옛 이름이 금성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따라서 나주오씨대중회에서는 본관을 '나주'로 통일(2003년)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본관 '금성'을 '나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관 정정 구비서류

- ① 호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1통
- ② 호주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③ 기본증명서 1통
- ④ 재적등본서 1통
- ⑤ 보증인(호적에 본관이 나주로 되어 있는 친족) 2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⑥ 나주오씨대중회 회장 발행의 '본관 확인서' 1통(대중회 사무실 발급)
- ⑦ 족보 사본 1통(표지와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

*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10만원의 비용이 별도 소요됨.

□ 문의처

- ☎대중회사무실 전화 02-2275-5574, 02-2265-5591
- ☎호남지역본부 사무실 전화 062-375-5575
- ☎호남지역(오영란 법무사) 사무실 062-222-1472-4. 휴대폰 010-3610-3160

■ ■ ■ 나주오씨 선조의 시제일

세수 世數	휘 諱	제향일	묘 소	비 고
1세	언(僊)	음력 3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평가산	중랑장공
	2세 계진(季眞), 4세 신교(愼交 : 府使公), 5세 경친(敬親)			중랑장공과 같은 날 봉사
1세	제(倝)	음력 10월 15일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사정공
	2세 경진(敬眞), 3세 귀종(貴宗), 4세 효존(孝存), 5세 익사(益師) 6세 말남(末男), 7세 숭수(崇秀), 8세 득린(得鄰), 9세 준헌(俊獻) 10세 석현(碩賢), 11세 이후(以堯)			사정공과 같은 날 봉사
2세	탁진(卓眞)	음력 10월 15일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백련산	송은당공
	3세 중달(仲達), 4세 숙손(叔孫), 5세 세상(世相), 6세 언국(彦國) 7세 천수(天壽), 8세 익남(益男), 9세 운창(運昌)			송은당공과 같은 날 봉사
3세	영달(穎達)	음력 10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복성산	참의공
	10세 이구(以久 : 道林公) 묘소:광산구 명도동 장탄산			참의공과 같은 날 봉사
4세	신중(愼中)	음력 3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와동	금성군
	7세 원(諱 : 庶尹公)			금성군과 같은 날 봉사
4세	신의(愼儀)	음력 3월 13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내금위공
	5세 첩(牒), 6세 명복(命福)			내금위공과 같은 날 봉사
5세	자치(自治)	음력 3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나성군
	6세 세훈(世勳 : 羅原君), 7세 겸(謙 : 錦陽君), 8세 언후(彦厚 : 南平公) ※ 부조묘 제사 나성군 음력 6월 3일, 정부인(여씨) 음 3월 19일			나성군과 같은 날 봉사
5세	자영(自瑩)	양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산 41-4	정언공
	6세 세우(世佑) 외 15위			정언공과 같은 날 봉사
6세	세익(世翊)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상호군공
7세	인(訥)	음력 3월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칠송공
	8세 언호(彦虎), 9세 극의(克義), 10세 이건(以健), 11세 준표(俊標)			칠송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관(彦寬)	음력 3월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복룡산	파성공
	9세 준신(俊臣), 10세 이항(以亢)			파성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린(彦麟)	음력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참판공
	9세 희철(希哲), 10세 이경(以敬), 11세 문석(文錫)			참판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표(彦彪)	음력 3월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곡척등	참봉공
	9세 희일(希一), 11세 효석(孝錫)			참봉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인(彦仁)	양력 4월 첫째 주 토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백양동	송계공
	9세 희중(希中), 10세 이해(以海)			송계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지(彦智)	양력 3월 20일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지봉공
8세	언예(彦禮)	음력 4월 8일	전북 정읍시 공음면 군유리	난봉공
8세	명한(命漢)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송조당)	참의공(송은당공파)
	9세 계선(繼善), 10세 정익(廷益), 11세 필신(必信)			참의공과 같은 날 봉사
9세	희량(希亮)	음력 3월 20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 갈마리 영성산	참의공
	10세 이인(以仁), 이신(以信), 이공(以恭), 이겸(以儉)			참의공과 같은 날 봉사
9세	희길(希吉)	음력 10월 10일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고례	도암공
	10세 이정(以精), 11세 홍석(洪錫)			도암공과 같은 날 봉사
9세	희도(希道)	음력 10월 9일	전남 화순군 북면 수리 토지등	명곡공
	10세 이두(以斗), 이규(以奎)			명곡공과 같은 날 봉사
10세	이익(以翼)	양력 11월 첫째 주 일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석문산	석문공
	9세 희유(希有) 묘소 : 본량 왕동 원당 남산, 11세 봉석(朋錫)			석문공과 같은 날 봉사

나주오씨 홈페이지 전자족보 등록 안내

(http://najuoh.or.kr)

1. 대종회 홈페이지 전자족보 소개

나주오씨대종회 홈페이지는 종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나주오씨대종회는 1964년 ‘재경나주오씨화수회’로 출발한 이후 1981년 ‘나주오씨서울총친회’, 1994년 ‘나주오씨중앙총친회’로 개칭되어 1999년 ‘나주오씨대종회’로 정식 창립된 이후 나주오문을 빛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2000년《나주(금성)오씨대종보》(회보)를 창간하고, 2002년 나주오씨대종회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기존의 종이책 족보를 전자족보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 ‘전자족보 기본사항(인적사항)’ 입력추진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주오씨대종회 홈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발행된《나주(금성)오씨대종보》(회보)를 열람할 수 있고, 1981년에 발간된《나주오씨대동보(족보=신유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원들의 전자족보 등록 및 등록된 종원들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전자족보 등록/검색’란이 있습니다.

(1) <전자족보> 신규 등록

□ 생존자

구 분	신규 등록 신청 절차
① <신유보> 등재자 중 전자족보 미등록자	해당 등재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규등록 신청함을 원칙
② 1981년 이전 출생자 중 <신유보> 누락자로서 전자족보 미등록자	위와 같음
③ 198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전자족보 미등록자	위와 같음

□ 망인(亡人)

구 분	신규 등록 신청 절차
①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전 사망자 (※신유보에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표 시자)	대중회에서 향후 일괄적으로 신규 등록을 전산 입력 처리할 계 획임 ■중회에서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를 확인할 수 있는 건임
②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전 사망자 이나 신유보에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미표시자	해당 등재자의 가족이 '신규등록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중회에서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를 확인할 수 없는 건임
③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후 사망자 로 신유보에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미표시자	위 와 같 음
④ 1981년 이후 출생자 중 현재 사망자로 서 전자족보 미등록자	해당 등재자의 가족이 신규등록신청과 등록변경신청(사망 관련 항목 입력)을 동시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중회에서 생·졸년월일 또는 생·졸년간지 를 확인할 수 없는 건임

(2) 전자족보 등록 변경

전자족보에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서 결혼·출생·사망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등록사항에 오류(오
자·탈자·누락 등)가 있거나, 등록 이후 변경(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등록 변경 신청 절차
① 본인 혼인 시 (배우자 등록)	본인 또는 가족이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배우자 인적사항(한글 이름, 한자 이 름, 생년월일, 성관姓貫)을 추가 입력한다
② 자녀 출생 시 (자녀 등록)	부父 또는 가족이 ① 신규등록신청 화면에서 출생자 신규등록신청을 완료한 다 음, ② 출생자의 부父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자녀 이름 란에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생년을 추가 입력한다
③ 본인 사망 시 (사망 관련 항목 등록)	가족이 망인亡人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족보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망인의 사망 관련 항목(졸년월 일, 묘소 위치)을 추가 입력한다 ■묘소 위치는 본인 특기란에 입력한다
④ 배우자 사망 시 (사망 관련 항목 등록)	본인 또는 가족이 망인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 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망인의 사망 관련 항목(졸 년월일, 묘소 위치)을 추가 입력한다 ■묘소 위치는 배우자 특기란에 입력한다
⑤ 등록사항 오류 발견 시 (췌 항목에 해당)	본인 또는 가족이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 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다
⑥ 등록사항 사후 변경 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근무처 등 변경)	본인 또는 가족이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 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변경(변동) 사항을 수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다

전자족보 신규(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 본인 인적사항 :		□ 회원번호(등록번호)	
호적이름	(한자 :)	족보이름	(한자 :)
성 별	남 □, 여 □	부친이름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양 □, 음 □)	줄년월일	년 월 일(양 □, 음 □)
파명(派名)		향렬자	善□, 洙□, 根□, 烈□ 教□, 鍾□, 泳□, 秉□
출생지주소			
본인 경력	* 현직(근무처) 이전의 경력사항을 기재합니다.		
본인 특기	(묘소)		

□ 배우자 인적사항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성 명	(한자 :)	성관(姓貫)	(기재 예시) 경주이씨
생년월일	년 월 일(양□, 음□)	줄년월일	년 월 일(양□, 음□)
배우자 경력			
배우자 특기	(묘소)		

□ 자녀 인적사항 * 자녀의 세부사항은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이 신청서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아래 란에는 ‘이름’과 ‘생년’만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자녀 이름	(기재 예시) 기열基烈(1972). 상렬相烈(1974). 영순英順(女, 1976)
-------	---

□ 연락처/근무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자택주소	(우편번호 :)		
근 무 처	이메일주소		@

□ 특기사항

--

☞ 이 서식은 대종회 홈페이지 “<전자족보>이용안내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변경)등록 신청은 대종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신규등록 : 대종회 홈페이지 > 전자족보 > 전자족보등록/검색 > 신규등록신청
- 등록변경 : 대종회 홈페이지 > 전자족보 > 전자족보등록/검색 > 인명검색 > 전자족보 기본사항 > 등록변경신청

나주오씨대종회 조직기구표



2017년도 정기총회 자료

1. 2016년도 회기 결산(총괄)
2. 2017년도 회기 예산안(총괄)
3. 2016년도 회기 회비 및 협찬금 입금 내역
4.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개정 및
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개정안

나주오씨대종회

2016년도 회기 감사 보고

1. 감사일시 : 2017. 2. 1~2. 4
2. 감사장소 : (서울) 대종회 사무실/ (광주) 호남지역본부 사무실
3. 감사기준일 : 2016. 1. 1~2016. 12. 31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제8조 제5항에 따라 종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종무사항

대종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건(보첩, 회원명부, 대종보, 각종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잘 관리 정리 보관하고 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2) 회계사항

- 2015년도 이월금은 79,358,875원이고, 당기 회비 및 협찬금 수입은 35,819,251원이며, 총수입액은 115,178,126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 총지출액은 27,246,961원이며, 총잔액 87,931,165원은 2017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 차기이월금 87,931,165원 중 71,303,312원은 장기저축액이며, 나머지 16,627,853원은 서울(8,113,447원)과 호남(8,514,406원)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는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제작 국고보조금은 2015.08.07. 강남구청에서 5,300만원을 수령하여, 2015.8.28. 고창문화재보존(대표 송정주)에 선급금 1,590만원을 지급하고 그 동안 세후이자 41,182원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잔액은 2016.12.31. 현재 37,141,182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 항목별 지출의 적정 여부를 감사한 결과 적법하게 지출되었으며 회계처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3) 제안사항

- 임원 종무위원 등 종친들의 회비 납부율이 담보상태인 점에 대한 대책과 대종회의 자금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 대종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나주오문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특별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2017년 2월 4일

나주오씨대종회 감사 오 동 근

감사 오 승 기



2016년도 사업 추진 내용

- | | |
|--|---|
| <p>1. 종무회의 개최(2016.02.14.)</p> <p>02. 정기총회 개최(2016.03.27.)
—장탄문중 주관</p> <p>03. 임원회의 개최
—서울 : 2016.08.27., 2016.10.14.
2016.12.14. (3회)
—광주 : 2016.05.10., 2016.10.12.
2016.12.20. (3회)</p> <p>04. 제17호 대중보 발간(2016.03.27.)</p> <p>05. 2016년도 효녀·효자상 표창 및 장학금
수여 (2016.03.27.)
—효녀상(박영금)
—효자상(오영석)
—장학금 수여(오상영·오경재)</p> <p>06. 오자치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사업
추진
—문화재청 기간연장 승인에 따라 도급
계약 변경 계약 완료(2016.05.13.)</p> <p>07. 종사연구위원회 회의 개최(2016.10.22.)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 건립 논의</p> | <p>08. 인터넷 전자족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속사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추진</p> <p>09. 대중회 조직활성화 방안 논의
—(2016.06.25. 서울 부장간담회)</p> <p>10. 회장과 임원 간담회 실시
—서울: 2016.05.20, 2016.08.04.
—광주: 2016.05.10.</p> <p>11. 부장 간담회 실시
—서울: 2016.05.28, 2016.06.25.</p> <p>12. 종무위원 간담회 실시
—서울: 2016.09.24.</p> <p>13. 나주오씨대중회 고유번호증 발급
—역삼세무서 2016.05.20.</p> <p>14. 정기예금 만기 도래 건 재예치
—서울 동부저축은행 43,134,236원
(만기일 2016.06.02.)
—광주 동양저축은행 28,169,076원
(만기일 2016.09.26.)</p> |
|--|---|

2016년도 회기 결산(총괄)

(기간 : 2016. 01. 01~2016. 12. 31/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서울경기	호남	계		서울경기	호남	계
2015년 이월금	72,133,352	7,225,523	79,358,875		-	-	-
회비,협찬금수입	18,660,000	12,780,000	31,440,000	정기총회 회의비	2,605,900	-	2,605,900
광고협찬금수입	500,000,		500,000	총회지원금		3,210,000	3,210,000
이자수입	1,378,777	474	1,379,251	종무회의 회의비	949,320	2,251,600	3,200,920
지역간 이체	2,500,000		2,500,000	임원회의회의비	514,000	1,032,000	1,546,000
				종사위회의비	1,225,170		1,225,170
				종보발간비	5,490,500		5,490,500
				홈페이지관리비	317,220		317,220
				장학금		1,000,000	1,000,000
				사무실관리비	2,033,430	659,540	2,692,970
				사무용품비	1,157,560	41,330	1,198,890
				출장 및 교통비		422,500	422,500
				통신비	906,260	84,490	990,750
				경조사비	180,000	290,000	470,000
				세금(재산세등)	375,790	131	375,921
				잡손실	220		220
				지역간이체		2,500,000	2,500,000
2016년 수입 계	23,038,777	12,780,474	35,819,251	2016년 지출계	15,755,370	11,491,591	27,246,961
				차기이월금	79,416,759	8,514,406	87,931,165
				(정기예금)	(71,303,312)	(-)	(71,303,312)
				(현 예금)	(8,113,447)	(8,514,406)	(16,627,853)
합 계	95,172,129	20,005,997	115,178,126	합 계	95,172,129	20,005,997	115,178,126

〈서울경기지역본부〉

* 2015년도 이월금 72,133,352원은 당초 109,233,352원 중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국고보조금 잔액 37,100,000원을 특별회계로 구분한 후의 금액임.

* 오자치초상 보존처리 국고보조금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차기이월금 79,416,759원에는 정기예금 71,303,312원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 동부저축은행 43,134,236원 + 광주 동양저축은행 28,169,076원)

(가) 2016년도 회기 결산(서울경기지역본부)

(기간 : 2016. 01. 01~2016. 12. 31.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2015년 이월금	72,133,352		
회비 및 협찬금 수입	18,660,000	정기총회 회의비	2,605,900
광고협찬금 수입	500,000	종무회의 회의비	949,320
이자 수입	1,378,777	임원회의 회의비	514,000
지역간 이체(호남본부)	2,500,000	종사위원회 회의비	1,225,170
		증보발간비	5,490,5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17,220
		사무실관리비	2,033,430
		사무용품비	1,157,560
		통신비(전화, 인터넷)	906,260
		경조사비	180,000
		세금(재산세 등)	375,790
		잡손실	220
2015년 수입 계	23,038,777	2016년 지출 계	15,755,370
		차기이월금	79,416,759
		(정기예금)	(71,303,312)
		(현·예금)	(8,113,447)
합 계	95,172,129	합 계	95,172,129

(나) 2016년도 회기 결산(호남지역본부)

(기간 : 2016. 01. 01~2016. 12. 31.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2015년 이월금	7,225,523		
회비 및 협찬금 수입	12,780,000	총회 지원금	3,210,000
이자 수입	474	종무회의 회의비	2,251,600
		임원회의 회의비(2회)	1,032,000
		장학금	1,000,000
		사무실관리비	659,540
		사무용품비	41,330
		출장 및 교통비	422,500
		통신비	84,490
		경조사비(3회)	290,000
		세금	131
		지역간 이체(서울본부)	2,500,000
2015년 수입 계	12,780,474	2016년 지출 계	11,491,591
		차기 이월금	8,514,406
		(정기예금)	(-)
		(현·예금)	(8,514,406)
합 계	20,005,997	합 계	20,005,997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 국고보조금 수지 보고

(특별회계 2016.12.31. 현재)

처리일자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2015-08-07	강남구청에서 수령	53,000,000		53,000,000
2015-08-28	고창문화재보존에 선금금 지급		15,900,000	37,100,000
2015-09-26	예금이자 수입 (세후)	5,086		37,105,086
2015-12-27	예금이자 수입 (세후)	7,922		37,113,008
2015년 누계		53,013,008	15,900,000	
2016-03-27	예금이자 수입 (세후)	7,842		37,120,850
2016-06-11	예금이자 수입 (세후)	4,661		37,125,511
2016-12-10	예금이자 수입 (세후)	15,671		37,141,182
2016년 누계		28,174	0	
총 누계		53,041,182	15,900,000	

[국고보조금 관리 예금계좌]

KB국민은행 012501-04-267245, 오근성(나주오씨대종회) 회장 명의

[註] 2016.03.27. 정기총회에서 임원 변경에 따라 오근성 신임 회장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오교철 前 종무원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잔액 37,120,850원(예금이자 발생액 20,850원 포함)을 2016.04.18. 오근성 신임 회장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처리하였음.

2017년도 사업 추진 계획

01. 종무회의 개최(2017. 02.12.)

—충남 논산 관촉사

02. 정기총회 개최(2017. 03. 26.)

—송계공 문중 주관

03. 임원회의 개최

04. 제18호 대중보 발간 (2017. 03. 26.)

05. 2017년도 대중상 표창 및 장학금 수여
(2017. 03. 26.)

06.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사업
마무리 (2017. 06. 30.)

—사업 완료 시 오자치 초상기증 추진

07. 종사연구위원회 회의 개최

—나주오씨 사적비(중시조비) 재건립 검토

08. 인터넷 전자족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속 사업)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추진

09. 대중회 ‘장학재단’ 설립·운영 방안
검토 보고 (상반기 중)

10. 대중회 ‘여성부’ 신설·운영 방안
검토 보고 (하반기 중)

11. 대중회 홈페이지 개선(리뉴얼)
작업 추진 (상반기 중)

12. 청장년층(40~50代)과의 교류·대화
시간 마련 (하반기 중)

13. 신유대동보(자손록) 20개 파별 PDF
파일설치(열람) 추진 (상반기 중)

14. 대중회 임원수첩 제작·배포(하반기 중)

15. 정기예금 만기 도래 건 재예치

—서울 동부저축은행 43,134,236원
(2017. 06. 02. 만기)

—광주 동양저축은행 28,169,076원
(2017. 09. 26. 만기)

2017년도 회기 예산안(총괄)

(기간 : 2017. 01. 01~2017. 12. 31/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예 산 액	과 목	예 산 액
회비 및 협찬금 수입	25,000,000	정기총회회의비	3,000,000
광고협찬금 수입	2,500,000	총회 지원금	3,000,000
예금이자 수입	1,500,000	증무회의 회의비	4,200,000
		임원회의 회의비	1,000,000
		종사위원회 회의비	1,200,000
		종보발간비	5,000,000
		홈페이지유지관리비	3,000,000
		장학금	1,000,000
		사무실유지비	3,000,000
		경조사비용	1,000,000
		전기 · 통신비	1,600,000
		예비비	2,000,000
합 계	29,000,000	합 계	29,000,000

2016년도 회기 회비 및 협찬금 입금 내역

(기간:2016. 01. 01~2016. 12. 31/ 단위:원)

□ 서울·경기지역본부 : 19,160,000원

◆ 집행부 임원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직책	성명	문종	금액
회 장	오근성	석문공	7,010,000	종사위원장	오종만	금양군	200,000
서울본부장	오양근	장탄	300,000	영남본부장	오의곤	송은당	600,000
부회장	오기선	금양군	200,000	부회장	오삼선	금양군	700,000
	오공수	송은당	200,000		오관수	송은당	200,000
	오근신	송은당	200,000		오맹근	내금위	200,000
	오상열	송은당	100,000	총무부회장	오형근	내금위	200,000
	오채근	내금위	300,000	부회장	오 열	장탄	200,000
	오진열	명곡공	200,000		오재협	지봉공	200,000
	오정렬	장탄	200,000		오동열	장탄	200,000
	오운열	석문공	200,000		오경남	부사공	600,000
	오교철	칠송공	200,000		오대균	명곡공	200,000
감 사	오승기	명곡공	300,000	홍보부장	오종문	참판공	200,000
재무부장	오종선	장탄	100,000	소 계	(25명)		13,210,000

◆ 종무위원

종무위원	오민선	송은당	100,000	종무위원	오학수	송은당	200,000
	오근국	송계공	100,000		오근태	내금위	100,000
	오경근	장탄	100,000		오신근	내금위	100,000
	오정근	금양군	100,000		오성근	석문공	100,000
	오순열	장탄	100,000		오남열	장탄	200,000
	오상가	참의공	500,000		오병열	내금위	100,000
	오재열	부사공	100,000		오전열	석문공	200,000
	오채열	장탄	200,000		오홍열	내금위	100,000
	오재열	칠송공	200,000		오건열	석문공	300,000
	오백교	장탄	100,000		오재열	석문공	100000
	오형교	장탄	100,000		오송균	칠송공	150,000
	오대수	칠송공	100,000	소 계	(23명)		3,450,000

◆ 고문·기타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직책	성명	문종	금액
고문	오철수	송은당	100,000	고문	오춘근	참의공	200,000
	오용근	석문공	300,000		오현열	장탄	100,000
	오종국	칠송공	200,000		오재남	장탄	100,000
증원	오윤수	칠송공	100,000	기타	영남총친회		300,000
	오명수	칠송공	100,000		오수산악회		500,000
				소계	(10명)		2,000,000

◆ 광고 협찬

성명	광고대상업체	금액	성명	광고대상업체	금액
오종근	법무법인 덕민	500,000			
			소계	(1명)	500,000

◆ 2017년도 회기 회비 및 협찬금 입금 내역(2017. 01.01~2017. 03. 13)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종사연구위원장	오종만	금양군	200,000	고문	오재남	장탄	100,000
부회장	오삼선	금양군	500,000		오교한	칠송공	100,000
	오관수	송은당	200,000	부회장	오양근	장탄	300,000
	오대균	명곡공	200,000		오동열	장탄	200,000
	오 열	장탄	200,000		오상기	참의공	500,000
	오 동	장탄	200,000		오대균	명곡공	200,000
	오진열	명곡공	100,000	종무위원	오민선	송은당	100,000
홍보부장	오종문	참판공	200,000		오형교	장탄	100,000
종무위원	오병렬	내금위	100,000				
	오봉균	송계공	100,000	소계	(17명)		3,400,000

□ 호남지역본부 : 12,780,000원

◆ 집행부 임원

(단위 : 원)

직 책	성 명	문 중	금 액	직 책	성 명	문 중	금 액
회장	오근성	석문공	800,000	본부장	오무송	금양군	310,000
종무원장	오정균	장탄	1,100,000	부회장	오광교	장탄	250,000
부회장	오광교	장탄/면장	220,000		오기주	송계공	200,000
	오곤수	석문공	100,000		오낙균	명곡공	300,000
	오길빈	석문공	250,000		오성수	금양군	210,000
	오병균	칠송공	200,000		오영근	장탄	250,000
	오수열	부사공	200,000		오인선	송은당	210,000
	오은열	석문공	1,050,000		오종순	사정공	1,000,000
	오찬균	칠송공	210,000		오창희	석문공	200,000
	오판수	송은당	300,000		오필렬	칠송공	100,000
	오현상	송은당	210,000		오희석	송계공	210,000
	오행근	석문공	220,000	재무부회장	오현교	칠송공	200,000
	오동근	금양군	250,000	소계	(25명)		8,550,000

◆ 종무위원

종무위원	오갑교	칠송공	100,000	종무위원	오건교	칠송공	100,000
	오경교	참판공	120,000		오경수	석문공	100,000
	오관섭	부사공	110,000		오교웅	장탄	100,000
	오금수	송은당	110,000		오금렬	송계공	120,000
	오기섭	정언공	110,000		오동석	장탄	110,000
	오만균	명곡공	100,000		오말근	장탄	100,000
	오병교	칠송공	100,000		오병근	송은당	110,000
	오성환	송은당	100,000		오연수	송은당/나주	100,000
	오연수	송은당/광주	100,000		오영현	석문공	110,000
	오오근	내금위	150,000		오종선	부사공	200,000
	오찬교	장탄	100,000		오천년	칠송공	100,000
	오현근	송계공	110,000		오현근	송은당	100,000
	오화수	금양군	110,000	소계	(25명)		2,770,000

※ 추가 : 오영택(정언공) 100,000원(2017년도 회기에 반영)

◆ 상임고문 · 고문

상임고문	오근동	석문공	1,000,000	상임고문	오인수	송은당	250,000
고문	오광섭	장탄	50,000	고문	오영교	참판공	50,000
	오호근	석문공	110,000	소계	(5명)		1,460,000

1.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장 재정 제16조(운영) ②본회의 재정기금은 은행을, 정기에탁금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나주오씨대종회’(실명:회장)명의로 예치하되, 인감은 회장과 종무원장 2인의 직인으로 하고, 증서는 종무원장, 인장은 재무부장, 재무부회장이 보관한다. ③본회 운영을 위한 소액자금은 일정액을 전도 받아 ‘나주오씨대종회’(실명:회장) 명의로 예치하되, 인감은 종무원장 직인으로 하고, 통장은 재무부장이 보관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운영) ②본회 자금관리를 위한 예금계좌 개설 등 필요한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2. 나주오씨 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자격, 선출) ①위원은 대종회의 임원 또는 각 문중에서 추천한 회원으로서, 종사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②임원회의에서 제1항의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대 및 선출한다. (신설)	제5조(위원의 자격, 선출 등) ① (좌동) ② (좌동) ③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016년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사업 진행사항

추진일자	보존처리사업 진행 사항
2015-09-04	고창문화재보존 주관으로 제1차 자문회의 개최 -자문위원 : 조선미(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명예교수, 박정식(단국대학교 박물관장 사학과 교수,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문위원 교수) -유물 훼손이 매우 심각하므로, 전체 공정의 대부분을 결손부의 원형 복원과 보존처리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초본 제작보다는 고해상도 촬영을 통해 모사본 제작이 가능한 원본 크기의 사진 복제본 제작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016-01-22	고창문화재보존 주관으로 제2차 자문회의 개최 -보존처리 작업에 가장 바탕을 이루는 메움건 제작(재직 및 열화)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의 완성 시까지 공사를 중단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의뢰하여 메움건 제작한 후 일본 업체에서 열화처리 완료.
2016-01-26	고창문화재보존에서 강남구청에 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 공사 중단 요청 -공사 중단 기한 : 2016년 1월부터 6개월 예상
2016-01-28	강남구청에서 문화재청에 吳自治 초상 보존처리사업 기간 연장 승인 요청 (문화체육과-2520 : 2016. 01. 28.)
2016-02-19	문화재청, 강남구에 吳自治 초상 보존처리사업 기간 연장 승인 (유형문화재과-1149 : 2016. 02. 19.) 2016. 08. 04. → 2017. 06. 30.
2016-04-14	관련기관 등에 대중회장 변경 통보 (문화재청·서울시·강남구·고창문화재보존)
2016-04-18	국고보조금 관리 예금계좌 변경 (오교철 前 중무원장 명의 → 오근성 신임 회장 명의)
2016-04-18	강남구청에 吳自治 초상 보존처리사업 관련 질의 -문화재청의 기간 연장 승인에 따른 도급계약 변경 여부 질의
2016-04-27	강남구청으로부터 질의회신 접수(문화체육과-11441)
2016-05-02	고창문화재보존에 도급계약 변경 계약 협조 요청 문서 발송
2016-05-13	고창문화재보존과 도급계약 변경 계약 체결 완료 -회장·서울지역본부장·홍보부장 3인이 '고창문화재보존(대표 송정주) 방문하여 변경 계약 체결 -보존처리 완료예정일 2016. 08. 04. → 2017. 06. 30.
2016-05-23	'고창문화재보존의 요청에 따라 역삼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2016. 05. 20.) 받아 사본 송부
2016-07-28	'고창문화재보존에 이행보증보험 등 재가입 협조 요청 문서 발송
2016-08-01	고창문화재보존, '이행(계약)보증보험' 갱신 완료 -보험가입금액 : 1,060만원 (계약금액 5,300만원 X 20%) -보험기간 : 2016. 08. 05. ~ 2017. 06. 30. -피보험자 : 나주오씨대중회
2016-08-10	고창문화재보존, '박물관 및 문화재단종합보험(손해보험)' 갱신 완료 -최대보상한도 : 5억원 -보험기간 : 2016. 08. 11. ~ 2017. 04. 27. -피보험자 : 나주오씨대중회



오자치 초상
(보물 제1190호)

- 1994. 01. 05. 나성군 초상(문화재 지정 명칭 : 오자치 초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 1190호로 지정되었음.
- 2003. 05. 02. 오자치 초상을 국립고궁박물관 (前 궁중유물전시관)에 기탁하여 보관중에 있음.
- 문화재청과 서울시로부터 국고보조금 (5,300만원)을 지원받아 2015. 08. 07.부터 고창문화재보존(대표 송정주)에서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오자치 초상
(2004.05. 모사본)

-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를 문화재청 소속 국립고궁박물관에 2003. 05. 02. 기탁하면서 문화재청이 국가 예산으로 동강東江 권오창 權五昌 화백이 그린 모사본을 제작·지원 받았음.
- 이 모사본은 진본과 같이 비단천에 천연물 감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그렸음.
- 2004. 05. 11. 대종회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수하여 현재 나성군 중종 도유사 영교榮敎씨가 보관하고 있음.

오자치 초상 향후 보존방법 결정

〈현황〉

- 오자치 초상吳自治肖像은 우리나라 무관武官 초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역사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로 평가 받고 있음.
- 오자치 초상의 경우 조선 성종 7년(1476년)경 제작된 적개공신敵愾功臣 초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4년 1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190호로 지정을 받았으며, 2003년 5월 2일 대종회가 국립고궁박물관(前 궁중유물전시관)에 기탁하여 보관하여 왔으나, 초상을 기탁하기 전부터 유물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훼손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수탁 당시부터 보관함에 넣어 진 상태로 지하 수장고收藏庫에서 보관하고 있었음.
- 오자치 초상의 보존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태에서, 초상 기탁처리 이후 대종회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5년 8월 7일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5,300만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우리 대종회와 전체 종원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현재 보존처리업체인 고창문화재보존(대표 송정주)에서 2015년 8월 6일부터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4월~6월경 초상 보존처리가 완료될 예정임.
(※2015. 08. 18.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오자치 초상을 인수하여 현장에서 고창문화재보존에 인계)

〈제안 사유〉

- 오자치 초상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과는 달리 우리 대종회가 향후 매각(환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가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소중한 유물문화재 유산이므로, 2017년 4월~6월경 고창문화재보존(대표 송정주)에서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및 초본 제작 사업이 완료되면, 오자치 초상을 보다 더 안전하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에 오자치 초상을 기증寄贈하고자 합니다.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위원회(2017. 02. 01.) 회의 결과

- 신설 박물관이나 지방 박물관 등에서는 귀중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사례도 있는 바, 기탁해 놓고 기회가 온다면 대종회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탁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현존하는 적개공신 초상 3점(오자치·장말손·손소) 중 오자치 초상의 훼손 정도가 가장 심하여 현재 보존 상태가 불량한 바, 금번 보존처리사업 이후에도 철저하고 세심한 보존관리가 절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인적·물적으로 유물보존관리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고, 전문적인 유물보존관리가 가능한 국가(문화재청)에 기증하되, 수증기관도 우리 대종회가 2003년부터 계속 수탁하여온 〈국립고궁박물관〉(前 궁중유물전시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건의사항
 - 오자치 초상 기증시 ‘나주오씨대종회’의 기증 유물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박물관에서 각종 전시 행사 시에도 오자치 초상이 ‘나주오씨대종회’ 기증 유물임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존처리 후 전문가의 오자치 초상 연구 학술발표회를 갖도록 하면 좋겠다.

대중회 조직 활성화 방안

1. 대중회에 적극 참여 가능한 종친 발굴·영입으로 대중회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
2. 대중회 각종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대중회 홈페이지 및 전자속보시스템 개선
3. 조상 뿌리찾기 캠프, 장학기금 조성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상 뿌리찾기 캠프 운영
 - 나주오씨 인재 육성을 위한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재단 설립 등 장기적인 장학사업 토대 마련
4. 지역본부별 종친 간 친목 도모 행사(체육대회, 화수회 등) 개최 (연 1회)
 - 각 지역본부 조직 활성화
 - 종친 간 친목 도모 및 유대 강화
 - 젊은 세대의 씨족 사랑 실천
5. 대중회 산하단체(오수산악회·오성산악회 등) 활동 지원으로 친목 도모, 유대 강화
6. 종친 경조사 참례
 - 특히 종무위원 가족 장례 발생 시 대중회 및 산악회 조기弔旗 설치 및 참여
7. 가문을 빛낸 종친 발굴·소개
 - 각계 각층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타의 모범이 되는 종친을 전 종원에게 소개
 - 취임, 당선, 승진, 서훈 등 가문을 빛낸 종친에 대한 소식 전달
8. 청·장년층(40~50代) 교류 및 대화의 장 마련
 - 사회에서 기반을 구축한 종친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
9. ‘청·장년회’ 모임 결성 지원
 - 2006년 이후 활동이 중지된 ‘장년회’를 대체할 ‘청·장년회’ 결성 적극 지원
10. 청·장년층의 대중회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활성화 유도
 - 대중회 참여 활성화 및 봉사 의식 고취
 - 대중회 사업 계획 및 추진 결과 공유로 대중회 각종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11. 청·장년층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임 앱 BAND’ (네이버 밴드) 운영
12. 각 파종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각 파종회의 조직 활성화 지원
 - 정기적인 대화 → 갈등 예방, 해소
 - 파종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문중에 대한 파종회 구성 독려 및 지원
13. 대중회 행사에 자주 참석하지 못한 前·現 임원 및 종무위원과의 대화(소통) 시간 마련
 - 대중회에 긍정 참여 분위기 조성

[註] 2016.06.25. 서울경기지역본부 부장 간담회에서 논의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제정	1999. 12. 05
일부개정	2000. 09. 24
일부개정	2002. 02. 17
일부개정	2002. 09. 08
일부개정	2003. 02. 09
일부개정	2006. 03. 26
일부개정	2009. 03. 22
일부개정	2012. 03. 25
일부개정	2015. 03. 29
일부개정	2017. 03. 26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나주오씨대종회(羅州吳氏大宗會)'라 칭한다.

제2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전국에 거주하는 나주오씨 후손(後孫)으로서 성년(成年)된 자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나주오씨(羅州吳氏)의 동조동근(同祖同根)에 따라 숭조사상(崇祖思想)을 배양하고,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기본으로 하는 종원 간의 친목 증진에 목적을 둔다.

제4조 (사무소 및 지역본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편의에 따라 각 지역에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서울·경기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과 특별임원을 둔다.

① 임원

1. 회장 1인
 2. 종무원장 1인
 3. 서울·경기지역본부장, 호남지역본부장, 영남지역본부장(당연직 부회장) 각 1인
 4. 부회장 20인 내외
 5. 감사 2인
 6. 상임고문 약간 명
 7. 총무·재무·조직·홍보·청장년 등 각 부장 약간 명
- ② 특별임원
1. 고문 약간 명
 2. 종사연구위원장
 3. 종무위원 100인 내외(당연직 제외)

제6조 (임원 선출)

- ① 회장·종무원장·부회장·감사는 종무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부회장은 소문중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으로 안배한다.
- ② 상임고문은 전임 종친회 및 대종회 회장(직무대행 포함)을 종무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각 지역의 지역본부장과 각 부 부장은 종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특별임원(고문·종무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 및 선출한다.

제7조 (임원 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총무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대총회 실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지역의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해당 지역의 부회장과 협력하여 조직 강화와 종원 간의 친목·화합을 이루는데 힘쓰고, 원활한 종무(宗務) 수행을 위하여 중앙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 ④ 부회장은 소문중의 여론을 대총회 운영에 반영한다. 부회장은 각 부장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계결산 및 종무(宗務)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 등 제반 회의에 출석,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 ⑥ 총무부장은 제반 회무를 담당하여 기록을 유지 보관하고, 각종 회의 소집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⑦ 재무부장은 제 회비·찬조금 등 출납과 재정사무를 담당하고, 예금증서와 자산 등을 관리한다.
- ⑧ 조직부장은 회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규 가입 회원 명단을 작성하여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각종 회의의 소집 시 참석 독려 업무를 담당하고, 각과 소문중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소문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총무원장에게 보고한다.
- ⑨ 홍보부장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추진 실태 등을 홍보하고 회원 명부·종보 등의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 ⑩ 청장년부장은 청년 회원 및 장년 회원 명단을 별도 작성하고, 미가입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회와 장년회 모임을 주관한다.
- ⑪ 고문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고문회의를 소집 자문을 구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본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침이 있을 때는 이를 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의 2 (임원의 자격정지)

- ① 본회의 임원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임원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조의 대총회 목적 사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나주오문의 씨족사를 크게 왜곡시키는 등 종원 간의 화합과 단결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2. 출판물에 의하여 나주오씨 선조님, 문중 또는 회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
3. 본회의 회칙을 위배하여 본회로부터 회칙 위배사항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의 해당 임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의·종무회의·고문회의 등을 둔다.

제10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양력 3월 4번째 일요일 12시에 소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아 인준한다.
 1. 임원 구성
 2. 회칙 개정 사항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4. 기타 중요한 회무
- ② 정기총회는 전국의 나주오씨 집성촌을 순회하며 개최되 구체적인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종무회의에서 의제를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문 추대

2. 종무위원 선출
3. 각종 회비 규모
4. 포상에 관한 사항
5. <대중회보> 편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 승인
7. 기타

제12조 (종무회의)

- ① 종무회의는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당연직 종무위원)과 100명 내외의 종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종무회의는 연 1회 양력 2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2. 회칙 개정
 3. 회장·종무원장·부회장·감사 선출
 4. 상임고문 추대
 5. 임시총회 소집 요청
 6. 제23조에 의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9. 기타

제13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성회한다.
- ②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1/3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모든 회의의 구성원은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은 성회 요건 충족에만 유효하다.

제14조 (회의록)

총무부장이 작성하는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회장·종무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비
2. 임원회비
3. 특별찬조금
4. 기타 사업수입금(단, 1호와 2호의 회비 규모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운영)

- ① 본회 소유 부동산은 관할관청에 등록된 '나주오씨 대중회'(대표 회장) 명의로 등기한다.
- ② 본회 자금관리를 위한 예금계좌 개설 등 필요한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간행물·포상·예절

제18조 (대중회보 발간)

본회는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활성화하고 홍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대중회보>를 발간, 전국 종원에게 배포한다.

제19조 (간행물 등 사전승인)

나주오씨 씨족 관련 연구물과 저작물을 간행하고자 하거나 기세조(起世祖) 이상의 선조에 대한 설단을 포함한 제례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나주오씨대중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포상 및 장학금)

-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로를 남겼거나 평소 숭조 효친(崇祖孝親)에 남다른 면을 보인 종원에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대종상(大宗賞) '효행상·덕행상·공로상' 등을 시상한다.
- ② 숭조사상이 투철하고 종문을 빛낼 유능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참배)

본회 회원 특히 임원은 1년에 한 번 도선묘(都先墓, 광

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신정마을 평가산 소재)에 참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시제일(時祭日, 時享日)은 음력 3월 9일이다.

제22조 (증친간 예절)

종원 간에 향렬이 높은 분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되, 향렬이 높더라도 향렬이 낮은 분의 생년월일이 1년 이상 빠르면 종원 간의 화합을 위해 상호 양존한다. 단, 파 문중 안에서는 파 문중 관습에 따른다.

제6장 위원회

제23조 (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부칙(1999. 12. 5)

본 회칙은 1999년 12월 5일 창립총회 결성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부칙(2000. 9. 24)

본 회칙은 2000년 9월 24일 제1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7)

본 회칙은 2002년 2월 17일 제2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 8)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9월 8일 제3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현재 종회원장과 종회의원 및 각 간사는 개정 회칙에 의해서 종무원장과 종무위원 그리고 각 부장으로 각각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2003. 2. 9)

본 회칙은 2003년 2월 9일 제4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26)

본 회칙은 2006년 3월 26일 제5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2)

본 회칙은 2009년 3월 22일 제6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5)

본 회칙은 2012년 3월 25일 제7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9)

본 회칙은 2015년 3월 29일 제8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6)

본 회칙은 2017년 3월 26일 제9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제 정 2008. 09. 21
일부개정 2012. 03. 25
일부개정 2017. 03. 26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와 각종 저작물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올바른 씨족사를 정립한다.
2. 제반 종사 문제에 관하여 전체 문중 간의 합의 도출 또는 동의 등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는 대종회 회칙 제23조(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종회의 산하에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간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서울과 호남지역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호남지역에 간사를 둔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선출 등)

- ① 위원은 대종회의 임원 또는 각 문중에서 추천한 회원으로서, 종사에 많은 관심과 열의가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 ② 임원회의에서 제1항의 회원 중에서 책임자를 추대 및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

장한다.

- ③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요청한 사항 및 제8조의 심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물, 저작물 간행에 관한 사항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종무회의에 보고하고, 종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위원회는 2항의 위원회 고유 심의사항 이외에 임원회의에서 별도 심의 요청한 사항이 있을 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 결과를 임원회의에 회부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회칙 제19조(간행물 등 사전승인) 규정에 해당되어 임원회의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출석인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록)

간사가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간사가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오씨대중회 임원 명부

■임원 주소록 정비 안내

임원 명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변경된 경우
대중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중회 사무실 연락처 ☎ 02-2275-5574

□ 상임고문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출생지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항렬)	우편번호
상임고문	오근동 吳根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하길31(도덕동) 전 대중회 회장(제3, 4대), 전 중학교 교장(號:錦谷) (석문공)	062-943-0765 010-9855-0765	1932 (근)	광산 도림 62406
	오인수 吳仁洙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8 우방A 102동 703호 전 대중회 회장(7, 8대)전 초등학교 교장 (송은당공)	062-224-1785 010-2684-1785	1938 (수)	나주 동강 61629

□ 고문

고 문	오동식 吳東植	광주광역시 남구 서대문로823번길 7-15, 101동 1115호(주월동, 스카이라) 전 공산농협 조합장 (사정공)	062-675-4919 011-9966-1717	1927 (선)	나주 공산 61720
	오경호 吳慶浩	울산광역시 중구 명정11길 31(태화동) (송은당공)	052-297-6109 010-8503-6109	1936 (선)	울산 44435
	오몽룡 吳夢龍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10, 203동 802호(우정동, 선경2차A) (송은당공)	052-246-2718 010-9611-2718	1937 (선)	울산 44465
	오진곤 吳振坤	경남 양산시 신명로 87, 208동 1104호(평산동, 봉우A) (송은당공)	055-362-7422 010-3856-7422	1928 (수)	경남 양산 50544
	오철수 吳哲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21, 304동 906호(개포동, 대청A) 쌍용약국 대표 (송은당공)	02-451-1575 010-3251-1575	1933 (수)	나주 동강 06334
	오명수 吳命洙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세동길 36-4(송산동) 전 송계공중중 회장 (송계공)	062-943-7556 010-6875-7556	1936 (수)	광산 내동 62406
	오문곤 吳文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11번길 36(부곡동) (송은당공)	051-515-0028 010-4130-0028	1937 (수)	경남 양산 46302
	오근혁 吳根赫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26, 113동 402호(LG자이1차) (부사공)	031-261-0607	1927 (근)	광산 상지 16817
	오근우 吳根佑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7길 40, 102호(불광동, 젤라빌리지) (석문공)	02-312-8195	1927 (근)	광산 도림 03343

직 책	성 명	자택 주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고 문	오춘근 吳春根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35, 호계아크로리버동 B1502호 (참의공) 명성양행 사장	031-395-4217 010-4758-0050	1930 (근)	고창 대산 14121
	오규식 吳圭植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40, 3층(가락동) 전 공무원	02-402-9225 (참의공) 010-6254-9225	1931 (근)	목포 05712
	오용근 吳用根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흥로 718, 101동 1107호(중계동, 건영A) 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원	02-932-8600 (석문공) 010-3766-8700	1938 (근)	고창 신림 01715
	오효근 吳鬻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43-1(도덕동) 전 공무원	062-943-7300 (석문공) 016-684-7303	1938 (근)	광산 도림 62406
	오광섭 吳光燮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112(명도동) (장탄)	062-943-7507	1930 (열)	광산 본량 62404
	오헌열 吳憲烈	인천시 동구 송현로 50, 113동 405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A) 전 우체국장	070-4114-3109 (장탄) 010-9668-3108	1935 (열)	광산 본량 22547
	오덕렬 吳德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9, 89동 106호(반포동, 반포A) 전 대구계명대 문화대학장	02-532-5455 (도암공) 010-9483-0007	1935 (열)	전북 정읍 06501
	오수열 吳守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양림길 4(도덕동) (석문공)	062-943-7562	1935 (열)	광산 양림 62406
	오형희 吳榮熙	경기 의왕시 오전로 63, 104동 104호(오전동, 무궁화아파트) 전 대중회 중무원장	031-457-0279 (석문공) 010-5349-0279	1937 (열)	광산 양촌 16057
	오관열 吳寬烈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7번길 14-5(철산동) (참판공)	02-2684-8201 010-9123-8201	1937 (열)	광산 본량 14250
	오재협 吳在浹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58, 115동 2403호(광명동, 해모리이연A) (지봉공)	02-373-9842 010-8249-9842	1937 (열)	광산 세동 14295
	오중섭 吳重燮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117번길 94(두암동) 전 중등학교 교장	062-224-7879 (장탄) 010-6721-2875	1937 (열)	광산 예림 61199
	오희열 吳熙烈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40, 101동 106호(문흥동, 모아아파트) 전 중등학교 교장	062-267-7255 (장탄) 010-8709-7255	1938 (열)	광산 명도 61128
	오재남 吳在南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66, 105동 2502호(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A) (장탄)	02-833-9738 010-5291-4144	1935 (균, 교)	광산 본량 07364
	오영교 吳榮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속길 40(남산동) 나성군 중중 회장	062-943-9701 (참판공) 010-9887-9701	1936 (균, 교)	광산 풍속 62404
	오세교 吳世敎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16,123동 1703호(석관동, 두산A) 전 동호프라자 사장	02-960-1532 (장탄) 010-7446-1532	1939 (교, 균)	광산 도림 02780
	오교한 吳敎漢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3번길 7, 3층(수내동) 전 단국대 대학원장	031-726-3377 (칠송공) 011-9749-1123	1940 (균, 교)	무안 윤남 13601
	오종국 吳鍾國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0길 29, 3층(방배동) LCI 키즈클럽 서초스쿨 이사장	02-594-2079 (칠송공) 010-8217-3653	1935 (중)	무안 몽탄 06565

□ 집행부 임원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출생지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항렬)	우편번호
회장	오근성 吳根聲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8, 256동 1001호(금호베스트빌) 합동철재산업(주) 대표이사 (석문공)	031-302-9086 010-5394-7071	1939 (근)	광산 도림 16939
종무원장	오정균 吳丁均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도산길 78(송정동) 전 광산구청 총무국장 (장탄)	062-944-0551 010-8621-0551	1945 (균, 교)	광산 죽산 62437
서울경기 본부장	오양근 吳梁根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65-24, 205동 1102호(현대모닝사이드1차) 전 중앙고속신탁 전무 (장탄)	031-726-2366 010-7554-9940	1939 (근)	광산 봉정 12771
호 남 본부장	오무송 吳茂松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23, 101동 1002호(운림동, 무등파크맨션) 전 조선대학교 교수 (금양군)	062-671-2526 010-9474-2527	1940 (수)	광산 세동 61491
영 남 본부장	오익곤 吳義坤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90, 102동 2405호(삼성아파트) 연합검정(주) 전무 (송은당공)	051-622-5575 010-8338-1415	1941 (수)	경남 양산 48519
종사연구 위원장	오종만 吳鍾滿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22, 103동 1802호(써니벨리) 전 감사원 수석감사관 (금양군)	031-308-2265 010-6359-5469	1940 (수)	광산 내동 17088
부회장	오기선 吳起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6-16, 501호(신사동, 다스케어빌) 전 신안교육청 근무 (금양군)	02-376-3689 011-9749-2501	1937 (선)	광산 세동 03450
	오인선 吳仁善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09번길 11-2(주월동) 전 나주공산농협 조합장 (송은당공)	061-335-3600 010-2625-3006	1944 (선)	나주 동강 61720
	오삼선 吳奇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34길 20(용두동) (주)정성기계 회장 (금양군)	02-953-1244 010-5381-4604	1945 (선)	전북 진안 02584
	오공수 吳桴洙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4, 110동 1402호(하우스토리) (송은당공)	02-2298-5415 010-8397-3463	1936 (수)	장성 진원 12010
	오판수 吳判洙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94번길10, 107동 604호(용봉동쌍룡예가) 전 초등학교 교감 (송은당공)	062-261-2378 010-7266-2378	1938 (수)	나주 동강 61064
	오병휘 吳炳暉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175, 108동 1503호(동림동, 삼익A) 전 광주우체국장 (송계공)	062-513-0880 010-4632-0880	1939 (수)	광산 내동 61271
	오관수 吳官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110동 801호(한진타운) 대한상사 대표 (송은당공)	02-2298-9768 010-6274-9723	1942 (수)	나주 동강 04717
	오길빈 吳吉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상길 7-2(도덕동) (석문공)	062-943-7334 010-8849-7334	1943 (수)	광산 도림 62406
	오성수 吳聖洙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세동길 9-14(송산동)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 (금양군)	062-943-7305 010-5544-7036	1947 (수)	광산 세동 62406
	오곤수 吳坤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안길 27(도덕동) 석문공 종중 총무 (석문공)	062-943-1684 010-2608-1025	1948 (수)	광산 도림 62406
	오병엽 吳炳葉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길 7-30 사정공 종중 회장 (사정공)	061-335-7206 010-3297-7206	1952 (수)	나주 공산 58300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향렬)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부회장	오행근 吳幸根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23,103동1406호(무등파크맨션) 전 교육공무원 (석문공)	062-222-8551 010-5622-8551	1939 (근)	광산 봉정 61491
	오희근 吳憲根	경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71번길 61, C동 302호(송내동, 옥일A) (금양군)	032-651-5271 010-4705-5271	1940 (근)	광산 내동 14720
	오근신 吳根伸	서울시 관악구 창림2길 30, 2층(봉천동) 동부화재 대리점 대표 (송은당공)	032-677-1127 010-7384-1094	1940 (근)	나주 동강 08733
	오맹근 吳萌根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0길 20, 111동 701호(청솔우성A) 전 공무원 (내금위공)	02-2248-6311 010-2820-6311	1944 (근)	광산 임곡 02536
	오헌상 吳憲相	전남 나주시 동강면 성지길 10-8 전 공무원 (송은당공)	061-335-2142 010-3649-2144	1944 (근)	나주 동강 58292
	오인국 吳仁局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5번길 17(금호동) 송계공파종회 회장 (송계공)	062-369-0411 010-4185-0411	1945 (근)	광산 송산 62011
총무 부회장	오기주 吳基柱	광주광역시 남구 웅정길 21, 101동 1303호(주월동, 경남A) 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서기관) (송계공)	062-675-3355 010-3642-3355	1947 (근)	광산 내동 61698
부회장	오근국 吳根國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42-19, 나동 102호(서초동, 현대하이츠) 요식업(의왕) (송계공)	02-521-1358 010-2360-7112	1949 (근)	광산 내동 06649
감사	오동근 吳東根	광주시 서구 치평로 77, 106동 1401호(치평동, 중흥아파트) 우림교통 대표 (금양군)	062-374-2320 010-3605-5330	1952 (근)	광산 세동 61952
부회장	오상열 吳祥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229, 3동 1108호(하계동, 극동A) 전 중랑경찰서 경비계장(경감) (송은당공)	010-9416-9668	1952 (근)	전남 장흥 01776
총무 부회장	오형근 吳榮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가길 38(창신동) 전 국제자산신탁(주) 경영지원본부장 (내금위공)	02-742-1710 010-7759-5250	1954 (근)	광산 임곡 03095
부회장	오채근 吳蔡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112동 603호(한신A) (주)부성전공 대표이사 (내금위공)	031-702-3352 010-5247-3352	1955 (근)	장성 남면 13588
	오청근 吳靑根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490번길 22,101동 505호(당동, 동아A) 안양렌트카 대표 (내금위공)	031-397-4593 010-8811-8100	1955 (근)	장성 남면 15856
	오희석 吳熙石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동송동길13-86(송산동) 전 송계공문중회장 (송계공)	062-943-7457 010-3896-7457	1935 (열)	광산 내동 62406
	오 열 吳 烈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23-4, A동 106호(한강로3가, 장미맨션) 서울사 대표 (장탄)	02-793-9285 010-7193-9285	1937 (열)	광산 예림 04380
	오진열 吳震烈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길 31-4, 401호(역삼동) (명곡공)	02-552-9166 010-8621-9166	1940 (열)	담양 연천 06123
	오영근 吳永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76번길 74,108동2301호(중흥에스클래스) 전 삼거리주유소 대표 (장탄)	062-943-5050 010-3606-7321	1940 (열)	광산 삼도 62322
	오계열 吳桂烈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86, 207동 1102호(봉천동, 두산아파트) 대명회 회장 (장탄)	02-3285-6622 010-6257-2354	1940 (열)	광산 명곡 08751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부회장	오강렬 吳康烈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111동 604호(본오동, 신안1차아파트) (난봉공)	031-408-7020 010-2647-7020	1940 (열)	15541
	오은열 吳殷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33(도덕동) 전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석문공)	062-943-7332 010-5031-7054	1941 (열)	광산 도림 62406
	오창희 吳昌熙	광주광역시 동구 학소로76번길 14, 102동 1503호(모아미래도) 전 초등학교 교장 (석문공)	062-222-8450 010-8615-8450	1941 (열)	광산 양촌 61501
	오동렬 吳東烈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5가길 38(등촌동) 대왕산업 대표 (장탄)	02-2644-4845 011-349-3430	1943 (열)	광주동명동 07733
	오필열 吳苾烈	전남 나주시 문평면 체암로 317 양조장 경영 (칠송공)	061-336-5016 011-621-5016	1944 (열)	광산 삼도 58200
	오정열 吳正烈	서울 동작구 사당로16사길 35, 301호(사당동)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연구원장 (장탄)	02-582-2789 010-7313-2789	1947 (열)	함평 월야 07020
	오남열 吳南烈	경기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73, 401동 402호(포일동, 포일숲속마을) 태흥전자 대표 (장탄)	031-465-5185 010-5381-8334	1948 (열)	광산 예림 16003
	오수열 吳洙烈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86번길 3-23(소태동)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부사공)	062-223-2562 010-2695-6734	1950 (열)	장성 61496
	오상기 吳相基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410동 2102호(삼성래미안) 해리화학 대표 (참의공)	02-2677-6644 010-4394-3344	1951 (열)	고창 해리 07214
	오종순 吳鍾淳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19, 102동1801호(한국아델리움) 가야종합건설 대표 (사정공)	062-651-9006 010-3602-9026	1952 (열)	광주 61737
	오경남 吳京南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110동 401호(간석동, 레미안자이) 초원갈비 (부사공)	032-317-6886 010-6209-2244	1954 (열)	나주 다시 21548
	오채열 吳榮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7, 2층(여의도동, 서린빌딩) 청미일식 대표 (내금위공)	02-785-2280 010-5470-7971	1955 (열)	장성 남면 07332
	오순열 吳淳烈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05, 106동 803호(치평동, 중흥A) (주)두국건설 대표 (장탄)	062-384-6300 010-3609-1756	1957 (열)	광주 61952
	오운열 吳雲烈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3, 105동 602호(잠원동, 롯데캐슬) 해양수산부 국장 (석문공)	02-6247-7076 010-9287-7076	1962 (열)	광산 도림 06515
	오광교 吳光敎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79번길 83-5(임동) 전 삼도면장 (장탄)	062-522-0114 010-4784-3883	1938 (교, 군)	광산 죽산 61253
	오 동 吳 東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45, 403동 702호(오산동, 운암4단지주공A) 전 쌍용정유(주) 과장 (장탄)	031-378-6760 010-5638-6760	1939 (교, 군)	광산 예림 18133
	오성교 吳成敎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65번길 7-1, 301호(농성동, 제일파크) 전 우체국장 (장탄)	062-369-3337 010-2595-4132	1939 (교, 군)	광산 평촌 61930
	오교철 吳敎哲	경기 과천시 별양로 180, 809동 802호(부림동, 주공A) 전 중무원장(7, 8대, 전 소방서장) (칠송공)	02-503-5055 010-8853-2899	1940 (교, 군)	무안 몽탄 13831

직 책	성 명	자택 주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부회장	오광교 吳光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곡길 170-46(명도동) 장탄 문중 도유사, 광주 향교 재단이사 (장탄)	062-943-9897 010-9013-9897	1941 (교, 군)	광산 본량 62404
	오대균 吳大均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다길 33-7, 2층(석관동) 전 서울지방철도청 (명곡공)	02-3246-3753 010-5383-9845	1944 (교, 군)	담양 남면 02785
	오백교 吳白敎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119, 109동 1003호(흑석동, 명수대 현대) 전 한국산업은행 부장 (장탄)	02-2217-7948 010-3285-7948	1944 (교, 군)	광산 죽산 06904
	오병균 吳炳均	전남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10, 106동 404호(목포옥암골드클래스) 목포대학교 교수 (칠송공)	061-287-3111 010-4322-8181	1945 (교, 군)	목포 58680
	오찬균 吳粲均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65-6 금초가문 대표 (칠송공)	010-3614-8142	1945 (교, 군)	무안 몽탄 58109
	재무 부회장	오현교 吳玆敎	광주광역시 서구 엄화로57번길 4, 102동 1307호(화정동, 모아타워) 전 중등학교 교사 (칠송공)	062-373-0005 010-5197-0888	1946 (교, 군)
부회장	오홍구 吳洪鉉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56(종암동) (주)시원양행 (도암공)	02-911-0255 010-3282-1330	1946 (교, 군)	고창 마명 02800
	오낙균 吳洛均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 10-2호 전 공무원 (명곡공)	061-392-1546 010-3634-1546	1946 (교, 군)	담양 수북 57220
	오창교 吳漲敎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113동 1104호(신천동, 파크리오) 다집건설(주) 회장 (장탄)	02-2671-5133 010-7387-2332	1955 (교, 군)	광산 도림 05507
	감사	오승기 吳承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07, 104동 1006호 (상도동, 삼호A) (명곡공)	02-586-7068 010-3641-7021	1956 (영)
홍보부장	오증문 吳鍾文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2가길 6, 202호(길동) 도서출판 이미지북 대표 (참판공)	070-8817-7068 010-3214-7068	1960 (중)	광산 풍속 05303
	재무부장	오증선 吳鍾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16(효자동) 아이엠티글로벌(주) 상무이사 (장탄)	02-737-4568 010-8230-7000	1964 (중)

□ 종무위원

직책	성명	자택주소	자택전화	생년 (한월)	출생지 우편번호
		직장 (파명)	직장전화		
종무위원	오병한 吳柄漢	울산광역시 중구 초은길 39(교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은당공)	052-246-2241 010-2864-2241	1946 (신)	울산 44468
	오일태 吳一太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35, 4층(신정동) (송은당공)	052-273-0570 010-3841-0570	1947 (신)	울산 44679
	오민선 吳眠善	경기 부천시 경인로575번가길 11, A동 02호(괴안동, 역곡빌라3차) (송은당공)	032-347-7230 010-2729-4879	1947 (신)	나주 동강 14677
	오태룡 吳泰龍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11길 12-3(복산동) (송은당공)	052-297-6432 010-4190-1254	1948 (신)	울산 44517
	오영택 吳英澤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7번길 58,101동 402호(신용주공) 정언공 회장 (정언공)	010-7653-0278	1936 (수)	61705
	오종수 吳鍾洙	전남 담양군 수북면 서당동길 38-11 전 산림과 공무원 (장탄)	061-383-7356 010-3925-7356	1937 (수)	광산 삼도 57316
	오연수 吳蓮洙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63, 2동 201호(방림동, 송림연립) 선일건설 기술이사 (송은당공)	062-675-4188 010-3603-1831	1938 (수)	함평 월야 61668
	오화수 吳和洙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30번길 32(도산동) 전 공무원 (금양군)	062-944-5050 010-5744-0070	1940 (수)	광산 세동 62437
	오형수 吳亨洙	전남 장성군 삼계면 이암길 70-4(덕산리) 송계공파 이암문중 총무이사 (송계공)	010-7742-4479	1942 (수)	57233
	오응곤 吳應坤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39, 702동 501호(화명동, 대림쌍용A) 전 병무청 사무관 (송은당공)	051-334-6925 010-8547-6925	1946 (수)	경남 양산 46540
	오학수 吳學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54-8(정자동) (송은당공)	031-256-8479 010-8848-6123	1946 (수)	나주 동강 16339
	오몽수 吳夢洙	전남 장성군 삼계면 이암길 50-25(덕산리) (송계공)	010-8666-1207	1951 (수)	57233
	오권수 吳權洙	전남 장성군 삼계면 이암길 50-29(덕산리) 송계공파 이암문중 회장 (송계공)	010-2028-9772	1952 (수)	57233
	오창수 吳昌洙	전남 나주시 동강면 나주서부로 1426 (송은당공)	061-335-2163 011-606-9543	1952 (수)	나주 동강 58292
	오금수 吳錦洙	전남 나주시 동강면 나주서부로 1568 (송은당공)	061-335-2163 010-3606-9543	1952 (수)	나주 동강 58292
	오경수 吳景洙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65번길 7-1,1011호(농성동, 제일파크) 전 광산구청 복지문화국장 (석문공)	062-365-5263 010-3624-6686	1955 (수)	광산 도림 61930
	오연수 吳蓮洙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길 105 (송은당공)	061-335-2151 011-9708-9333	1955 (수)	나주 동강 58292

직책	성명	자택주소	자택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장 (파명)	직장전화		
종무위원	오득수 吳得洙	서울시 성동구 동호로 84,101동 1004호(금호동4가, 롯데A) 보스나이트 (송은당공)	02-516-5209 010-3021-5555	1961 (수)	나주 동강 04725
	오민곤 吳敏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길 30 (주)효성 (송은당공)	055-374-8361 010-2585-5263	1961 (수)	경남 양산 50582
	오동건 吳東建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261번길 32,106동 805호(삼산동, 우성A) (송은당공)	052-269-6470 010-2555-8118	1966 (수)	울산 44699
	오근학 吳根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20, 102동 806호(하남제일파크맨션) (부사공)	010-3184-4742 010-6419-4742	1934 (근)	62357
	오성근 吳聖根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315번길 41, 101호(서대신동2가, 향원빌라) (송은당공)	051-255-0635 010-2256-0635	1935 (근)	부산 49227
	오윤근 吳潤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동송동길 13-75(송산동) (금양군)	062-943-7405 019-643-7405	1938 (근)	광산 내동 62406
	오홍교 吳洪敎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32-14 (사정공)	061-335-3374 010-5335-3042	1939 (근)	나주 공산 58300
	오병근 吳炳根	전남 나주시 동강면 성지길 24-3 (송은당공)	061-335-0018 010-6470-4980	1946 (근)	나주 동강 58292
	오남근 吳南根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37,102동 802호(쌍촌동, 일신A) 전 교육공무원 (장탄)	062-372-6227 011-682-6227	1946 (근)	광산 봉정 61996
	오정욱 吳政昱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241번길 13(오치동) 광주 동신대 교수 (송계공)	062-262-0303 010-2045-0388	1946 (근)	광산 내동 61120
	오오근 吳五根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20, 107동 603호(문흥동, 상록A) 전 담양군 금성면장 (내금위공)	062-263-0702 010-4620-0702	1947 (근)	담양 61134
	오광주 吳光柱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길 188, 10동 1505호(개봉동, 영화아이닉스) (부사공)	010-2446- 2712	1947 (근)	영광 불갑 08355
	오두성 吳斗星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31, 307동 1203호(대림동, 현대3차A) (송은당공)	010-9126-1007	1947 (근)	07376
	오기영 吳機瑩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30 (사정공)	061-335-3251 010-8600-3251	1947 (근)	58300
	오신근 吳信根	인천광역시 남구 숙골로43번길 14-47(도화동) 자영업 (내금위공)	032-883-5619 010-4246-9085	1948 (근)	장성 남면 22102
	오현근 吳玹根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월로 167-29 백년골농장 (송은당공)	061-336-3421 010-6620-6382	1948 (근)	나주 동강 58288
	오근태 吳根泰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59(묵동) 건축업 (내금위공)	02-756-8128 010-9010-8128	1948 (근)	장성 남면 02046
	오사근 吳四根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1번길 35,103동 402호(아이딜빌라) 전 문화재청 (내금위공)	031-964-7587 010-2432-7587	1949 (근)	광산 임곡 10266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종무위원	오경근 吳京根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4길 22-31, 4층(성수동1가) (장탄)	02-462-2780 010-5275-4531	1950 (근)	
	오기근 吳基根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98 자영업 (송계공)	031-763-9991 010-2230-2859	1950 (근)	광산 송산 17303
	오동석 吳東浙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마길 28(명도동) 전 본량농협 전무 (장탄)	062-943-7427 010-6640-7427	1951 (근)	광산 가마 62404
	오동우 吳東宇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길 22-15 오명농장 (송은당공)	055-374-0160 010-3801-9230	1952 (근)	경남 양산 50582
	오몽근 吳夢根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2길 90(쌍문동) 삼도식품 대표 (송계공)	02-903-1587 010-4004-1587	1952 (근)	광산 송산 01379
	오성근 吳成根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7, 진양꽃상가 56호(투투플라워) 투투플라워 대표 (석문공)	02-2265-2020 010-7927-0711	1953 (근)	고창 신림 04558
	오근용 吳根龍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길 85, 105동 1806호(신대방동, 강남A) 건우메디칼 대표 (송계공)		1956 (근)	광산 송산 07069
	오현근 吳賢根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로 23, 103동 301호(운암동, 현대A) (주)장성철강 대표이사 (송계공)	062-512-6620 010-8500-4618	1956 (근)	광산 삼도 61256
	오성환 吳成煥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길 25-4 전 나주시의회 의원 (송은당공)	061-335-2692 010-3603-2693	1956 (근)	나주 동강 58292
	오영선 吳英銑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32-3 (사정공)	061-335-3227 010-4611-3227	1958 (근)	
	오말근 吳末根	전남 목포시 양일로 42, 111동 1803호(대성동, 천연나무아파트) (장탄)	061-462-1280 010-3093-1280	1960 (근)	목포 58711
	오형근 吳炯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53(도덕동) 삼도부동산 (상호군공)	062-943-8920 010-9605-8910	1963 (근)	광산 삼도 62406
	오종경 吳鍾景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지정길 108-16(지평동) (지봉공)	062-943-0962 018-612-0962	1964 (근)	광산 삼도 62406
	오창근 吳昌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오너스타워 301호 (주)원드시너지 대표이사 (석문공)	031-602-5600 010-3002-3989	1965 (근)	광산 도림 13595
	오정근 吳正根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06, 5층 미플란트치과(대치동, 한협빌딩) 美플란트치과 원장 (금양군)	02-995-5100 010-4900-6653	1972 (근)	광산 삼도 06198
	오주열 吳周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17-2(도덕동) (장탄)	062-943-7623	1931 (열)	광산 도림 62406
	오기섭 吳寄燮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46-18 농업 (부사공)	062-376-2344 010-2676-2344	1938 (열)	광산 지평 502-802
	오기섭 吳基燮	주광역시 광산구 가삼안길 49(지평동) 농업 (부사공)	062-943-6151 010-9133-6151	1939 (열)	광산 지평 62406

직 책	성 명	자택 주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종무위원	오관섭 吳官燮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86-16(용봉동) (부사공)	010-9646-2171	1939 (열)	61185
	오금열 吳錦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삼안길 24-7 (부사공)	062-943-7394 010-2537-7394	1940 (열)	광산 지평 62406
	오영현 吳榮炫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634번길 16(광천동) 전 한전 과장 (석문공)	062-366-9966 010-9474-9968	1941 (열)	광산 봉정 61913
	오기섭 吳基燮	전남 담양군 수북면 용구동1길 37-35 동인한의원 사무장 (정언공)	062-972-3809 010-4607-2666	1944 (열)	나주 57316
	오순열 吳順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 414동 702호(정자동, 느티마을) 전 서울시 공무원 (장탄)	031-711-3291 010-6394-3291	1948 (열)	광산 본량 13611
	오병렬 吳炳烈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길 5, 3층(신사동) (주) 매일관광 (내금위공)	02-356-1926 010-7165-1926	1948 (열)	장성 남면 03437
	오산열 吳汕烈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23, 301동 1105호(치평동, 금호3차A) (부사공)	062-372-2881 010-6736-6688	1950 (열)	광산 삼도 61957
	오송열 吳松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76번길 74, 110동 2403호(중흥에스) 송계공파총회 총무 (송계공)	062-526-7229 010-9623-7229	1950 (열)	광산 송산 62322
	오기호 吳奇浩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145,113동 3503호(더샵센텀파크1차) (송은당공)	051-743-2528 010-7118-1670	1951 (열)	부산 48050
	오전열 吳典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7, 403동 406호(하늘마을4단지) 오주통상대표 (석문공)	031-977-2111 010-5223-4550	1952 (열)	광산 도림 10311
	오명렬 吳明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예림길 29-2(명도동) (명곡공)	062-943-7501 010-6744-7501	1952 (열)	광산 본량 62404
	오재열 吳在烈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70, 703동 1201호(대화마을)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과장 (부사공)	031-816-6269 010-3775-6269	1953 (열)	광산 지평 10218
	오진호 吳鎭浩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110동 2401호(더샵센텀파크) (송은당공)	051-808-2488 010-3867-5545	1953 (열)	48050
	오금열 吳錦烈	전남 나주시 그린로 63, 110동 1501호(빛가람동 LH1단지)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개발과장 (송계공)	062-941-1178 010-3648-2484	1954 (열)	나주 다시 58326
	오병현 吳秉炫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20, 101-501(현진에버빌) 전 광주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석문공)	062-572-6801 010-7256-9800	1954 (열)	광산 도림 61026
	오경렬 吳京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38번길 5(산정동) (지봉공)	062-952-0336 010-6660-6543	1954 (열)	광산 삼도 62343
	오영열 吳永烈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8길 23-6, 2층 201호(쌍문동) 와이와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명곡공)	010-4145-8806	1954 (열)	담양 01377
	오홍렬 吳弘烈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2길 5, 502호(우면동, 영동아트빌라) 전 한국보그워너보스텍 이사 (내금위공)	02-576-6981 010-3765-9162	1956 (열)	경남 마산 06763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종무위원	오건열 吳建烈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8, 102호 704호(상암월드컵A) 자영업(전기) (석문공)	02-6351-1443 011-784-6173	1957 (열)	광산 평림 03913
	오영란 吳英蘭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41, 104동 1602호(금호동, 코아루아파트) 오영란 법무사 사무소 (석문공)	062-527-3160 010-3610-3160	1957 (열)	광산 도덕 62004
	오맹렬 吳孟烈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역3길 5, 4층(봉천동) 동서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장탄)	02-535-8707 010-5229-9319	1958 (열)	광산 명도 08793
	오채열 吳采烈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104동 1403호(신대방동, 현대A) 전 국민은행 부지점장 (장탄)	02-844-9330 010-5341-9830	1959 (열)	광산 명곡 07064
	오재열 吳在烈	충남 당진시 면천면 대치로 370-4 (주)원폴 (칠송공)	041-356-4021 010-5772-8553	1961 (열)	광주 덕산 31807
	오승훈 吳承勳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41, 102동 102호(금호동, 시영1차아파트)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 팀장(사무관) (석문공)	062-456-9768 010-5620-9768	1963 (열)	광산 도덕 62005
	오재열 吳在烈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2라길 27, 101동 1606호(대망드림힐) 국민연금매장 대표 (석문공)	010-9175-0220	1966 (열)	고창 신림 01626
	오평교 吳豐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마길 37(명도동) (장탄)	062-943-7431 010-8607-7431	1935 (교, 균)	광산 가마 62404
	오기봉 吳基奉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중방길 76-12(지평동 24-1) (부사공)	062-943-7447 010-2062-9557	1938 (교, 균)	62409
	오기봉 吳基奉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산서길 24(요기동) (지봉공)	062-944-6498 010-5115-6498	1939 (교, 균)	광산 삼도 62461
	오천년 吳千年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217번길 33-1(주월동) 나성군 봉사손/윤수업 (칠송공)	062-651-0568 010-3638-0568	1940 (교, 균)	광산 양촌 61608
	오경교 吳敬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89번길 9-7(송정동) (참판공)	062-944-0026 016-9669-0026	1943 (교, 균)	광산 풍속 62422
	오형교 吳敬敎	경기 남양주시 불암산로39번길 43-40(별내동) 오성가구 대표 (장탄)	031-527-4784 010-5253-4784	1944 (교, 균)	광산 본량 12100
	오병교 吳柄敎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78번길 7, 101동 801호(진월동, 대주A) 광주 전남경총상임 부회장 (칠송공)	062-676-1366 010-2612-1366	1945 (교, 균)	광산 삼도 61709
	오영균 吳英均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동송동길 47-9(송산동) 전 백제약국 이사 (송계공)	070-4802-7407 010-7101-7407	1946 (교, 균)	광산 내동 62406
	오갑교 吳甲敎	광주광역시 서구 화계중앙로114번길 19, 102동 803호(진흥더블파크) 칠송공 덕흥문중 회장 (칠송공)	062-371-2546 010-3607-2546	1947 (교, 균)	광주 덕산 62012
	오건교 吳健敎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30번길 11, 5동 1501호(지산동, 삼성A) 칠송공 영호공문중(덕흥문중) 회장 (칠송공)	062-233-9311 010-2615-3900	1947 (교, 균)	광주 덕산 61442
	오송균 吳松均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39길 20, 가동101호(양재동, 장미타운) 국가유공자회 (칠송공)	02-576-8305 011-9637-5454	1948 (교, 균)	무안 06745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종무위원	오경교 吳景敎	광주시 북구 호동로 100, 104동 1304호(우산동, 현대아파트) (재)오씨광주전남대동중친장학회 감사 (장탄)	062-262-2846 010-3626-2129	1951 (교, 군)	광산 도덕 61176
	오봉균 吳鳳均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46, 115동 1103호(래미안 노블클래스) 전 수원 대선평화학교 교장 (송계공)	031-217-7412 010-7319-7432	1951 (교, 군)	광산 삼도 16534
	오찬교 吳贊敎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48-15(양산동) 중앙강철 대표 (부사공)	010-3605-1985	1952 (교, 군)	61056
	오정숙 吳敎淑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70, 5층(사당동) Kyani (장탄)	010-3388-5382	1953 (교, 군)	07025
	오찬교 吳燦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248-10, 502동 1401호(운남동, 주공A) 임해관광 사장 (장탄)	062-959-1014 010-3611-1014	1956 (교, 군)	광산 본량 62320
	오만균 吳晩均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22번나길 13 (주월동) 광주 호산나교회 담임목사 (명곡공)	062-653-7112 010-4129-7008	1957 (교, 군)	광주용강동 61730
	오교웅 吳敎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상길 3-2(도덕동) 도덕동 우체국장 (장탄)	062-446-7900 010-4623-0900	1959 (교, 군)	광산 도림 62406
	오진교 吳眞敎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14번길 6-5(쌍촌동) 제중약국, 오씨광주전남대동중친회 수석부회장 (송계공)	010-3993-8957	1961 (교, 군)	광산 송산 61966
	오영오 吳英吾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상로 24, 108동 1803호(성원상떼빌) 주택공사 부장 (장탄)	010-9538-0505	1964 (교, 군)	16927
	오균희 吳均禧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68, 212동 304호(용현2단지 금호타운) KT부평지사 (장탄)	032-888-8004 010-2777-3600	1965 (교, 군)	광산 명도 22192
	오종선 吳鍾璿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동송동길 9-4(송산동) 삼도농협 조합장 (부사공)	010-4601-3532	1955 (종)	광산 내동 62406
	오승중 吳承鍾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속길 30-8(남산동) 본량농협 조합장 (참판공)	062-943-6660 010-4228-6660	1959 (종)	광산 풍속 62404
	오성호 吳盛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9, 1207호(서초파라곤) 국토연구원 첨단도로교통연구단장 (칠송공)	02-588-1239 010-4910-8728	1966 (종)	무안 일로 06621
	오상운 吳相雲	전남 신안군 압해읍 원가릉길 83-8 (유)늘샘건설 대표 (칠송공)	010-5540-4886	1970 (종)	58819
	오영일 吳永一	전남 신안군 압해읍 상광립길 6 선우렌터카 대표 (칠송공)	010-4606-9480	1977 (종)	58823
	오대수 吳大樹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99, 103동1602호(한신희플러스) 자영업 (칠송공)	02-845-5749 010-4261-6532	1965 (영)	무안 몽탄 06916
	오명수 吳明修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진산로 222, B동 1502호(신세계쉐덴) 브레인콘텐츠 (장탄)	010-7105-1531	1977 (영)	16896

□ 오수산악회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출생지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항렬)	우편번호
회장	오대균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8다길 33-7, 2층(석관동) 전 공무원 (명곡공)	02-3426-3753 010-5383-9845	1944 (교, 균)	담양 남면 02785
부회장 (재무)	오채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112동 603호(한신A) (주)부성전공 대표 (내금위공)	031-702-3352 010-5247-3352	1955 (근)	장성 남면 13588
감 사	오동렬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35가길 38(등촌동) 대왕산업 대표 (장탄)	02 -2644-4845 011-349-3430	1943 (열)	광주동명동 07733
총 무	오종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16(효자동) 아이엠티글로벌(주) 상무이사 (장탄)	02-737-4568 010-8230-7000	1964 (종)	광산 본량 03042

□ 오성산악회 임원 명단

회장	오인선	광주광역시 남구 서대문로809번길 11-2) 전 나주 공산농협 조합장 (송은당공)	061-335-3600 010-2656-3006	1944 (선)	나주 동강 61720
산행이사	오행근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23, 103동 1406호(무등파크맨션) 전 교육공무원 (석문공)	062-222-8557 010-5622-8551	1939 (근)	광산 봉정 61491
총 무	오영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634번길 16(광천동) 전 한전 과장 (석문공)	062-366-9966 010-9474-9968	1941 (열)	광산 봉정 61913

□ 나주오씨대종회 역대 회장단 명단

대수	임기	회장	총무원장	감사	지역본부장
초대	1999. 12. 05~ 2002. 03. 23	오근택 (석문공) (※ 오사진 수석부회장 직무대행:1999. 9 ~2002. 3)	오근창 (석문공)	오억근(부사공) 오근문(송은당공)	
2대	2002. 03. 24.~ 2004. 03. 27	오춘수 (금양군)	오형희 (석문공)	오무송(금양군) 오토근(장탄)	서울경기 오세교(장탄)-1년 호 오종만(금양군)-1년 남 오광교(장탄)-1년 오병휘(송계공)-1년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3대	2004. 03. 28~ 2006. 03. 25	오근동 (석문공)	오종만 (금양군)	오무송(남평공) 오토근 (장탄)	서울경기 오공수(송은당공)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해룡(송은당공)
4대	2006. 03. 26~ 2008. 03. 22	오근동 (석문공)	오종만 (금양군)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 (금양군)	서울경기 오토근(장탄)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해룡(송은당공)
5대	2008. 03. 23~ 2010. 03. 27	오완교 (칠송공)	오토근 (장탄)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종만(금양군)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6대	2010. 03. 28~ 2012. 03. 25	오완교 (칠송공)	오토근 (장탄)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종만(금양군)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7대	2012. 03. 26~ 2014. 03. 25	오인수 (송은당공)	오교철 (칠송공) (2013. 3~)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은열(석문공)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8대	2014. 03. 26~ 2016. 03. 27	오인수 (송은당공)	오교철 (칠송공)	오동근(금양군) 오근신(~2015.3) 오승기(명곡공) (2015.3~)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은열(석문공)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9대	2016. 03. 28~ 2018. 03.	오근성 (석문공)	오정균 (장탄)	오동근(금양군) 오승기(명곡공)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무송(금양군)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나 이	이 칭	의 미
10세 안팎	충년 冲年	10세 내외의 어린나이 ※冲 어릴 충
15세	지학 志學	학문에 뜻을 둠. 지우학志于學, 성동成童이라고도 함
15세	계년 笄年	소녀가 비녀를 꽂을 나이로 시집 갈 나이가 되었음을 뜻함
16세	과년 瓜年	결혼하기에 적당한 여자의 나이
20세	약관 弱冠	스물 살 된 남자의 나이, 약년弱年/若年·약령弱齡이라고도 함
20세	방년, 방령, 묘령 芳年, 芳齡, 妙齡	스무 살을 전후한 여자의 꽃다운 나이
30세	이립 而立	서른 살을 달리 이르는 말. 스스로 자립한다는 <논어論語> 삼십이립三十而立
40세	불혹 不惑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함. <논어論語> 불혹지년不惑之年
50세	지천명 知天命	자신의 분수를 앎, 하늘의 뜻을 앎 [지명知命]
50세	애년 艾年	머리털이 세어서 삭 같다는 말. ※艾 : 삭 애
50세 이상	애로 艾老	삭처럼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는 뜻
51세	망육 望六	나이가 예순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선한 살을 이르는 말
60세	이순 耳順, 육순 六旬	모든 것을 소리대로 이해함. 예순 살을 달리 이르는 말
61세	환갑 環甲 화갑 華甲 망칠 望七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 온다는 뜻[회갑回甲]. 예순한 살을 이름 華의 자획을 풀어서 나누어 보면 +이 여섯, -이 하나인 데서 나온 말 일흔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
62세	진갑 進甲	환갑의 이듬해 또는 그 해의 생일
70세	고희 古稀 종심 從心, 칠순 七旬	예로부터 드물다는 뜻. 나이 일흔 살 또는 일흔 살이 되는 때를 이르는 말 일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
71세	망팔 望八	여든을 바라본다는 뜻
77세	희수 喜壽	희자의 초서가 '七十七'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흔일곱 살을 달리 이르는 말
80세	산수 傘壽, 팔순 八旬	나이 여든 살을 이르는 말
81세	망구 望九	나이가 아흔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여든한 살을 이르는 말
88세	미수 米壽	여든여덟 살을 달리 이르는 말. 八十八을 모으면 미(米)자가 되는 데에서 생긴 말
90세	구순 九旬, 졸수 卒壽	아흔 살을 이르는 말
91세	망백 望百	백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나이 아흔한 살을 이르는 말
99세	백수 白壽	백百 자에서 일(一)을 빼면 백白 자가 되는 데에서 나온 말
100세	백수 百壽, 상수 上壽	백 살 이상의 나이. 100년을 1기로 봄 [壽]라고도 함
108세	다수 茶壽	차 다茶를 파자하면, 스물 입卅(20)에 八(80)+八(8) = 108
111세	황수 皇壽	황제가 누린 나이
120세	천수 天壽	타고난 수명
162세	완수 完壽	81이 반의 나이이므로 완完은 162

대중회 공지사항

“임원·고문 및 종무위원님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연회비와 협찬금 등은 대중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주오씨대중회〉는 대중회 임원·고문 및 종무위원님께서 매년 납부하여 주시는 연회비와 협찬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회는 정기총회 연 1회(3월중) 개최, 종무회의 연 1회(2월중) 개최,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수시) 개최, 종사연구위원회 활동, 대중보 연 1회(3월) 발간, 선행자 표창, 뿌리찾기 사업, 대중회 홈페이지 운영, 전자족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의 대중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회비와 협찬금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중회가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고, 후손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장학사업, ‘나주오씨의 뿌리 바로알기’ 책자 발간, 선조 사적 탐방 및 성묘행사 체험, 뿌리고실 운영, 지역별 화수회 개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임원·고문 및 종무위원님께서 대중회에 납부하여 주시는 연회비와 협찬금 등은 이러한 숭조애족(崇祖愛族)의 뜻있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납부하여 주신 금액은 대중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연회비·협찬금 납부 은행 예금계좌

- | | |
|---------------|---|
| ■ 서울·기타 지역 | ◆ 은행계좌 : KB국민은행 012501-04-266516
예금주 : 오근성 (대중회 회장) |
| ■ 광주, 전남·북 지역 | ◆ 은행계좌 : NH농협 356-1123-7033-33
예금주 : 오현교 (대중회 재무부회장) |

❖ 연회비 : 집행부 임원 20만 원 이상, 고문·종무위원 10만 원 이상

산행의 이모저모



□ 오수산악회(서울·경기지역)

- ◆ 산행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 ◆ 시산제 : 매년 3월 첫째 주 일요일

2016년 오수산악회 산행일지

산행일	산행지	모임 장소	2차 모임 장소	참석인원	기 타
1. 3	수락산	7호선 장암역	장암골 대우산장	11명	
2.					구정 연휴로 취소
3. 6	관악산	2, 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관악산 입구 우측 두부집	31명	시산제(12:00 정각)
4. 3	도봉산	1, 7호선 도봉역 큰길 건너 만남광장	섬진강음식점	12명	
5. 1	청남대	용산역 07:30 양재역 08:00	청주시 문의면 전주식당 식사	호남:13명 서울:33명	호남·서울 합동산행 (충북 청주시 청남대)
6. 5	청계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청계산 원터골 장수오리집	14명	청계산원터골-길림목 정자-원터골
7. 3	관악산	2, 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약초마을식당	15명	
8. 7	청계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황구청계산점	16명	
9. 4	도봉산	1, 7호선 도봉산역 만남광장	섬진강식당	12명	
10. 2	서대문 안산	3호선 독립문역 4번출구역	명원숯불갈비집	14명	서대문 안산 자락길 산책
11. 1	설악산 용소폭포	용산역전(07:00) 서초구청앞(07:30)	오색남설악식당	27명	독립문역
12. 4	관악산	2,4호선 사당역6번출구	참배나무골	13명	송년산행



1월 수락산
3월 관악산
(2016년 시산제)
4월 도봉산
8월 청계산
9월 도봉산
12월 관악산
(좌에서 우)



2017년 오수산악회 시산제



□ 2016년 오성산악회

• 산행 : 매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2016년 오성산악회 산행일지

산행일	산행지	참석 인원	비 고	산행일	산행지	참석 인원	비 고
1. 12 1. 26	무등산	12명 6명		7. 12 7. 26	무등산	8명 10명	
2. 23	무등산	15명		8. 09 8. 23	송산교 무등산	17명 8명	하계 야유회
3. 22	무등산	10명		9. 27	무등산	16명	
4. 12 4. 26	무등산	11명 8명		10. 11 10. 25	무등산	6명 14명	
5. 01 5. 24	청남대 무등산	13명 6명	오수산악회 합동 산행	11. 08 11. 22	강진 가우도 무등산	26명 11명	추계 야유회
6. 14 6. 28	무등산	8명 11명		12. 13	무등산	12명	



오성산악회 가우도 야유회

오성산악회는 매월 2회(둘째 · 넷째주 화요일) 무등산 산행을 해오고 있다. 산행 후에는 점심을 함께 하며 종친의 정을 10여 년째 나누고 있으며, 평균 15명 내외의 종친들이 참석하고 있다.

봄에는 심신과 체력 단련을 위해 명산을 찾고, 여름에는 황룡강을 찾아 닭백숙 등의 건강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기고 있으며, 11월 8일에는 강진 가우도와 남미륵사를 답사했다.

대종회 전 회장 오인수, 전,현 호남본부장 오은열,오무송, 종무원장 오정균, 오성산악회장 오인선을 비롯한 총무·재무 부회장 및 대종회 고문이신 오영교 등 35명이 참석했다.

산악회장이 대절한 버스는 오전 9시 본령을 출발, 송정리공원 지하철역 앞에서 회원들을 싣고 강진, 마량항을 거쳐 제2월출산이라고도 불리는 석문산과 다산초당을 연결하는 만덕산 석문교(길이 110m) 구름다리를 1시간 여 동안 트레킹하고 가우도만 출렁다리에 도착했다.

주변에는 다산초당, 만덕사와 청자누각공원이 자리한 곳으로 풍광이 뛰어나고, 가우도에서 강진만을 가로지르는 만호출렁다리, 가우도일주로를 걸어 대구면에 도착하는 약 4km의 탐방로는 강진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천혜의 풍광은 장관을 이룬다. 또 청자공원에서 출렁다리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는 리프트카는 젊은이들이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시간 관계상 타보지 못하고 마량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1시 반 마량항에 도착, 현지직관장에서 구입한 농어, 돔, 광어, 쭈꾸미, 피고막 등 푸짐한 생선회를 준비해 늦은 점심을 먹은 후 남미륵사 답사를 마치고 7시경 무사히 광주에 도착했다.

가우도 만호교 출렁다리



① 만호교 출렁다리 입구에서의 간식
② 강진군 도암면 덕산 석문교
③ 만덕산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④ 미량향 횃집에서의
즐거운 점심시간
⑤ 남미륵사의
동양 최대 미륵보살상
⑥ 강진군 남미륵사 입구

오수·오성 청남대 합동산악회



이
모
저
모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작은 공사에서 큰 공사까지 책임을 다하여 완벽하게 시공합니다.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작은 소규모 공사부터 큰 대규모 공사까지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100% 만족하실 수 있는 역량과 열정, 완벽한 시공으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건설업면허** 토목공사, 포장, 철콘, 상하수도, 기계임대업
- 영업종목** 도로확포장 및 투스콘포장,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상하수도 관로공사
- 보유장비** vegal-600, vogel-1800, vogel-1900, BG 2 로올러 등



(주)가야건설~(주)금성건설

대표이사 오 중 순 (대중회 부회장 | 사정공 문중)

- ◆본사: 전남 나주시 송월동 667번지
- ◆지사: 전남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289-7
- ◆전화: 061-332-8127~8
- ◆FAX: 061-336-8111



동·서양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을 보유한 가장 든든한 로펌 -
SHIN&KIM | 법무법인 세종의 흔들림 없는 비전이자 의지입니다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종한 (칠송공 문중)



법무법인 德民

대표변호사 오 종 근

(송은당공 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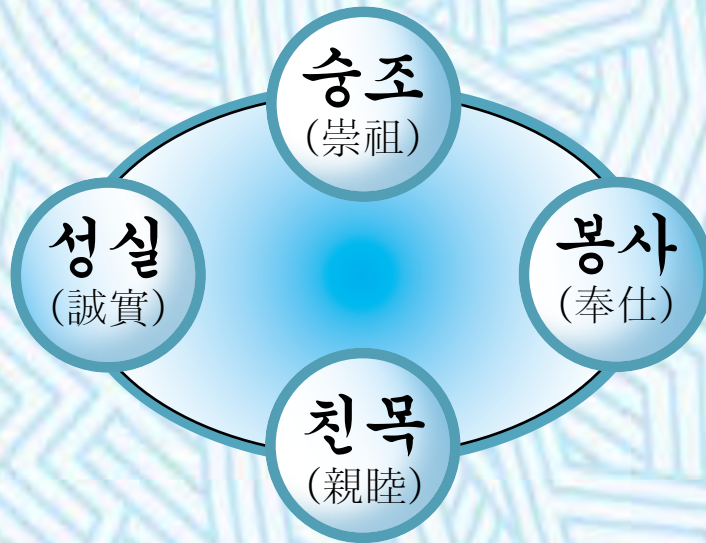


- 서울 성동고(33회), 고려대 법대(84학번) 졸업
- 인도 국립델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Visiting Scholar)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검 논산지청 검사
-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특수·공안) 검사

법무법인 덕민

066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14층(서초동 1554-4)
TEL : 02-447-4300, FAX : 02-447-4333, H.P. : 010-7155-0544
전자우편 : ochong@hanmail.net

종훈(宗訓)



승조(崇祖) : 조상을 높여 소중히 여김
친목(親睦) : 서로 친하여 화목함
성실(誠實) : 정성스럽고 참됨
봉사(奉仕) :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